



10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10호

(루계 제 636 호)

◆◆◆◆◆◆◆◆◆◆ 차 례 ◆◆◆◆◆◆◆◆◆◆

우리 당기발	4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령도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주체문학	5
하나의 결정속에	7
무쇠마치	8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며	9
장군님과 시 《어머니》	10
전설적인 태양의 존함	12
대홍단의 욕심	13
세월이 전하는 이야기	14
대홍단의 아침노을	15
명언해설	26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	27
고향과 병사	34
달리고 또 달리자	35
결석대표	37
우리의 전사	46

선군시대 청춘찬가	47
비단의 념변	52
피 묻은 당원증앞에서	53
현실은 나의 스승이었다	55
영웅의 고향집	57
청춘이여 이 길로 가자.....	58
자전거	60
근로의 값	62
로당원의 숭고한 모습.....	63
땀에 대한 찬가.....	65
시대와 인간, 열망.....	68
홍채에 의한 개인식별기술.....	73
차번호 《만-하나》	74

우리 당기발

권강일

나란히 선 하얀 기발대들에

찬연하여라

눈부시여라

연연히 나뭇기는 우리 당기발

불 붙는 그 빛 그 열정이 빛발쳐

가을하늘 저리도 높고 창창한것인가

부드러운 기폭은 내 불을 스치는듯

정겨이도 이 가슴을 쓰다듬는듯

아, 이 땅의 승리를 높이 쳐든 기발이여

청사에 빛날 당창건 55돐

내 조국이 맞이하는 크나큰 경륜을

세상에 펼쳐 든 자랑이여 영광이여

구김살 하나 얼룩 한점 없는

저 싱싱한 기발들에는

있어라

당의 부름에 심장을 끓이며

이날을 향해 내 들고 온 기발도

붉고붙어라

맞고 보낸 해들중에도 뜻 깊은 이해에

가장 큰 열매를 주렁지우며 달려 온

우리의 깨끗한 량심

총성의 붉은 마음이 진하게 물들어

폭풍속 길은 멀고 험해도

우리 얼마나 신심과 락관에 넘쳤던가

우리 장군님 10월의 이 하늘가에 세워 주신

승리의 이정표를 가까이 바라보며

승리의 광장에서 마주 오는 환호소리를 안으며

누구도 꺾어 보지 못한 총포성 없는 전쟁

막아 서는 백첩천첩 고난과 시련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이날의 승리를 안아 오신 장군님

우리 당 우리 인민모두를

붉은기의 기수로

준마를 탄 영웅으로 키워

오늘의 이 대축전장에 세워 주신

아, 그이의 위대함을 무슨 말로 다하랴

퍼덕이는 기폭에 실려 온다 울려 간다

장구한 우리 당 력사우에

가장 빛나는 금문자로 새겨 지며

세기의 하늘가에 떠오른 55돐

이날과 더불어 길이 전해 지는 영광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의 승리가 영원한

내 늘쌍 안고 살던 이 진리를

처음인듯 오늘에 더욱 깊이 새기며

눈시울 젖어 우러르노라

마치와 낫과 붓-우리 인민을

붉은 기폭에 감싸안은

성스러워라 귀중하여라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승리의 기치여!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령도를 따라 힘있게 전진하는 주체문학

김순림

인류사상 가장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우리 인민은 류레없이 시련많은 최악의 역경을 겪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난을 맞받아 뚫고 일떠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이 모든 건인불발의 무한대한 힘의 원천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을 이끄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키워 주신데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가 위대한 승리를 안아 오며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빛나는 결실을 가져 오고 있는 격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문학은 시대의 반영이다.

우리 주체문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따라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고 있는 거창한 우리 시대를 형상으로 재현하며 새로운 창작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1987년 1월 2일 지금 우리 작가들이 령도자와 같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쇠소리나는 좋은 글들을 많이 써내고있을뿐아니라 오늘과 같은 시련의 시기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하여 주시였으며 최근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들과 일군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은정 깊은 사랑과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지난 5년간(주체83년~주체88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인들은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김만영 작),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류동호 작), 장시 《6월의 푸른 하늘아래에서》(백의선 작), 가사들인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집제작), 《높이 들자 붉은기》(송찬웅 작), 《대흥단 삼천리》(박정애 작)를 비롯하여 수많은 훌륭한 시, 가사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장시 《인민의 어머니》(정은옥, 김은숙 작), 서정시 《철령》(황성하 작)을 비롯하여 10여차에 걸쳐 시작품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에 대하여서는 여러번 읽어 보았는데 잘 썼다고, 나와 한차를 타고 다닌 사람이 쓴것 같다는 분에 넘치는 치하까지 해주시였다. 그

리고 《우리 집은 군인가정》(류동호 작)을 비롯한 명가사들을 적극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시문학과 작가들이 가사를 잘 쓴다는 말씀을 또다시 받아 안았다.

그리고 소설가들은 지난 5년간에 장중편소설 창작과제 55편을 58편으로 초과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소설가들은 다른 분과 작가들보다 창작사업이 힘겨운데다 창작조건이 어려웠지만 1~2년씩 집을 떠나 우산장창작실과 현지들에 나가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려 제4차 장중편형식의 100편창작과제를 근 1년이나 앞당겨 끝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1월 21일 장편소설 《열망》(김문창 작)을 각색한 TV 연속극 《열망》을 보시고 당적, 정치적지도를 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기에 당일군들이 참고할수 있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전설문학을 개척하고 그 정리사업을 잘하여 지난해 3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또한 아동문학작가들도 장편소설 《삼형제별》(리준길 작), 《우리도 군복을 입었다》(리동섭 작), 중편소설 《붉은 기와집》(송혜경 작) 등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동시초 《장군님과 아이들》(집제작)과 우화작품들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 올려 지도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리고 희곡작가들은 장막희곡들인 《소원》(서남준 작), 《오늘을 추억하리》(김흥기, 서남준, 김휘영 작), 《어머님의 당부》(최현구 작)를 비롯한 많은 극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전반적작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문학에서 일어 난 이 놀라운 성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5년간에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로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문학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 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며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혁명적인생관을 지니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가는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시련을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하는데서 혁명적인 시와 소설이 노는 비상한 감화력에 대하여 깊이 통찰하시고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문학창작에서 앙양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인 로고를 바쳐 작가들의 창작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5년기간에 당창건 50돐 기념 문학축전, 공화국창건 50돐기념 문학축전, 당창건 55돐기념 문학축전 등 3차례의 전국문학축전을 성대히 진행하도록 하시였고 주체85(1996)년부터 주체89(2000)년까지 제4차 장중권형식의 100편 창작과제를 위한 전투를 벌리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기간에 무려 30여차에 걸치는 은정 깊은 말씀과 근 20차에 달하는 평가의 친필지시를 주시였으며 매해, 매 분기마다 그리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사변적인 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작가들에게 작품의 종자를 주시고 구체적인 창작방향을 제시하시어 문학창작사업이 활력 있게 진행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빛나는 지난 5년기간 무려 690여편에 달하는 시가작품들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문학작품창작사업을 친히 지도하여 주시었다. 이것은 장군님께서 매해 평균 근 140편, 매주 2~3편의 작품을 보아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것으로 되며 어떤 날에는 10~15편의 작품을 지도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집무실도 침실도 따로없이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길을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로정에서 시간과 날을 보내시면서도 부피 두터운 장편소설의 창작과 관련한 문제로부터 서사시와 서정시, 가사작품들, 아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동시, 우화작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혁명소설과 랑만이 차넘치는 시와 노래를 안겨 주어 신심 드높이 오늘의 난관을 맞받아 뚫고 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와 전선길 야전 차안에서, 때로는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보아 주시고 지도해 주시었다.

지난 5년기간에 우리 문학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민감하게 반영한 시대의 명작, 다시 말하여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그대로 구현하고 담은 시대의 명작이 전례없이 많이

창작되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헤치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면 축하시 《장군의 눈보라》가, 최전선길을 가시면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근위병사들》이, 철령을 넘으시면 시 《철령》이, 강계를 찾으시면 시초 《우리는 강계사람이다》가,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지도하시면 시초 《강원땅의 새 노래》가, 동해명승 칠보산을 찾으시면 산수련시 《내나라의 명산-칠보산》이...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자욱마다에서 시대의 명작들이 태어났다.

그리하여 지난 5년간 명작으로 창작되어 사람들을 건인불발의 의지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다그쳐 나가도록 고무하고 있는 작품은 무려 수백여편에 달한다. 주체문학의 력사에 이처럼 명작이 많이 나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지난 5년기간에 우리 문학은 또한 다채로운 형식, 이채로운 양상의 작품들로 다양하게 장식되었다.

지금까지 많이 보지 못하던 송년시, 추대시, 축하시, 기행련시, 산수련시, 실화소설, 환상소설, 추리소설, 유년기문학, 지능동화, 속담동화, 우화소설 등 다양한 형태와 형식의 작품들이 기운차게 창작되었다.

력사상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인 지난 5년기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 나가는 동행자의 대오로 이끌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자각을 가지고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전국 작가들의 협의회를 열고 작가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워 신념과 량심으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필봉을 높이 추켜 들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작가들을 영원히 운명을 같이해 나가는 혁명동지로 굳게 밋고 자신의 곁에 가까이 세워 주시었다.

작품을 보시고는 뜨거운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고 중요한 행사나 류다른 공연이 있을 때면 작가들을 자신의 곁에 불러 주시였고 조선로동당에 입당시키도록 하시는 크나큰 정치적인임과 사랑을 돌려 주시였으며 작가들이 특별휴양을 하도록 하시였고 어느 한 시인의 건강을 위하여 외국에 보내여 치료받도록 해주시었다.

참으로 지난 5년기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작가들이 있었고 우리 작가들의 심장

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장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것이 작가들의 무한대한 창작적힘이 되고 사색과 열정의 원천으로 되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난 5년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작가들속에서는 《김일성상》계관인 6명, 로력영웅, 1명이 나오게 되었고 전체 작가집단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많이 드린 지식인집단, 작가집단으로 되었다.

우리 작가들 한사람한사람을 선군혁명명도의 대

오에 나란히 세워 주시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할 혁명동지로 믿어 주고 이끌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뢰심이 한없이 뜨겁고 진실하기에 우리 작가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 감정정서를 피와 땀으로 하여 장군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장군님의 문학건설에서 순직할 결의 밑에 당의 선군정치를 보좌하는 작품창작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

모든 작가들은 21세기를 **김정일**문학세기로 되게 하며 선군혁명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새로운 양을 일으켜 나가야 할것이다.

하나의 결정속에

리동후

차마 문손잡이 선뜻 쥘수 없어
선전실토방우에 못 박힌듯 서 있노라
오늘도 못 잇을 감회를 불러 내며
자애로운 어버이 그 영상
눈앞에 삼삼히 어려 와

별빛은 아롱져 창가에 내리는데
당원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수수한 명석에 앉으신 수령님
친히 당세포회의를 지도해 주시니
얼마나 크나큰 격동속에 휩싸였던가

이 한해 농사일에 앞장 서자고
마음 다잡고 모여 앉은 당원들
열기 띤 목소리로 토론도 끝나고
또박또박 랑독되는 결정서
하나같이 엄숙히 비껴 든 주먹들은
풍년나락 이 벌에 안아 올 심장의 맹세

정보당 거름의 톤수와
농기계의 보수정비
모관관리 책임성도 일깨워 주시며
세포총회 결정서가 마음에 든다고

자애 깊으신 어버이 그 음성
동쪽너머 풀송구리 어데선가
뜸부기 구성지게 풍년노래 불러 오는데
선전실뜨락을 내리신 수령님
오늘의 결정서에 나의 땀도 있다시며
나라쌀독 무드기 채워 놓고
다시 만날 기쁨도 약속하신 그 믿음

아, 이 가슴 후더워라
은정 넘친 그 음성, 기쁨의 그 약속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졌건만
사무치게 그리움은 나날이 더해 저
조용히 당세포회의록을 다시 펼치니
눈시울 뜨거이 어려 오는 수령님 영상이여

저 수수한 명석우에 앉으시여
검소한 책상을 마주하신 그날처럼
하나의 결정서에
마음도 지향도 하나로 이어 놓고
수령님은 함께 계시여라
어제도 오늘도 또 래일도...

무쇠마치

10월의 아침.

온 세계의 눈길을 모아 세우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 시대의 기념비로 높이 솟아 빛나는 당창건기념탑!

장장 반세기이상 력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이끌어 온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업적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당창건기념탑에 우뚝 솟아있는 무쇠마치.

당과 수령은 언제나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로동계급은 오직 당과 수령만을 충성으로 받들어 온 위대한 일심단결의 력사, 혼연일체의 력사가 하나의 조형예술적화폭으로 얼마나 뜨겁게 비끼어 있는가.

당창건 55돐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이 세차게 벌어 지고 있던 지난 1월 말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이번에 평안북도안의 인민경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였는데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결의와 정치사상적준비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는 우리는 로동계급을 중시하고 적극 내세우며 로동계급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 로동계급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인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마디마디에 어리어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로동계급을 무쇠마치를 역세계 틀어 쥔 혁명의 핵심부대로 키워 오신 백두산위인들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금 뜨겁게 돌이켜 보았다.

로동계급의 무한대한 힘과 지혜를 굳게 믿고 그들을 혁명의 핵심부대로 키우는 여기에 바로 수령의 비범한 예지가 있고 령도의 현명성이 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이 창건되기 하루 전날인 주체34(1945)년 10월 9일이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림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끝 없는 행복감에 휩싸여 있는 로동자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나라의 주인

은 바로 동무들이라고, 동무들이야말로 조국의 운명을 떠메고 나갈 기둥이며 주춧돌이라고 하시면서 부강한 새 조국건설에서 로동계급이 지닌 사명과 임무를 깊이 심어 주시였다.

그날의 력사적인 현지지도에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앞으로 창건될 조선로동당이 어떤 당이며 어느 계급에게 의거하여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 하는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언제나 로동계급을 믿고 로동계급에 의거하여 새 사회를 일떠세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우리 로동계급의 계급적자각과 력사적 사명감을 끝없이 높여 주었으며 충성의 열정이 활화산처럼 타번지게 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터전을 닦던 이 나날에 우리 수령님과 로동계급사이에는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의紐帶가 뜨겁게 맺어졌다. 전후에 타오른 천리마대고조의 봉화도,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에 룡성과 희천, 검덕에서 타오른 불길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로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 준 백두산위인들의 하늘 같은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력사의 모진 역정을 과감히 이겨 내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총 진격하고 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도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나가는 그 력사의 나날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을 찾으시여 강계정신을 창조하시고 성강의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현지지도자욱이 이것을 웅변으로 확증해 주고 있다.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는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온 나라 로동계급을 찾아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우리 로동계급은 전후 강선을 찾으시여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뵈고있다.

년대와 년대를 넘어 뜨겁게 이어 지는 이 빛나는 계승에서 우리 인민은 이 땅에 즐기치게 흐르는 백두산위인들과 우리 로동계급사이의 혼연일체의 력

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전후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일으키신 천리마대고조의 봉화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와 성강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지펴 주신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이 땅에 강성부흥의 새 역사를 안아 올것이라는것을 확인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억센 무쇠마치로 전후 빈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그 정신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 무쇠마치를 더욱 억세게 틀어 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 혁명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 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

절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고있는 우리 로동계급과 같은 강성대국건설의 핵심부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어떠한 민족도 진정으로 강력하고 행복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혁명의 수령의 손길아래 자라나고 단련된 이러한 로동계급을 가져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태양의 빛발로 키워 주시고 내세워 주신 우리 로동계급의 억센 무쇠마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 자랑스러운 충실성의 역사를 수 놓아 갈것이다.

본사기자 전문해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며

곽명철

억세인 주먹들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세상이 보란듯이
대공을 향해 한껏 고개를 쳐든
당창건기념탑의 마치고 낮과 붓이여!

뿔뿔이 흩어 저
설음에 울던 그날은 언제
어버이수령님 났은 우리의 당기에
하나의 군상으로 빛나게 무어 주신 그날부터
자기식으로 세월을 길들이며
자기식으로 수확을 거두어 들이며
자기식으로 창조의 보폭을 넓히며
내 나라 조선을 변혁해 온 저 마치고 낮과 붓

저기에서 어느 하나를 빼놓아도
그리고 자랑 높은 우리 당의 력사가 되지 못하리
저기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눈 부신 영광이 있지 못하였으리

세상 어디에나
마치고 낮과 붓은 있건만
저렇듯 당기에 보란듯이 자기 진지를 정하고
당과 한숨결 나누는
그런 마치고 낮과 붓이 있던가

오, 자랑차다 위엄차다
보면볼수록
이 나라 민족된 긍지감이 하늘에 닿는구나
공산주의 불언덕을 남 먼저 바라보며
우리 장군님 손길따라
세계를 변혁하며 도도히 서 있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내 조국의 마치고 낮과 붓이여!
불패의 기치 승리의 상징이여!

장군님과 시 《어머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령도실록을 펼쳐 보면 그이께서 시 《어머니》와 관련하여 주신 수많은 가르치심을 접하게 된다.

시 《어머니》를 제일 먼저 보아 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0(1981)년 2월 10일 단천지구광업연합기업소(당시) 로동자 김철이 쓴 시정시 《어머니》를 친히 보아 주시고 《로동신문》과 방송, TV에 내보내도록 배려하여 주시였다.

시 《어머니》는 며칠후 2월 16일에 당보와 방송, TV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온 나라의 독자들과 청취자들, 시청자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시 《어머니》가 불러 일으킨 반향을 두고 제일 기뻐 하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1(1982)년 2월 16일 어느 한 예술소조공연에서 시 《어머니》를 랑송하는것을 보시고 시랑송을 잘한다고, 시 《어머니》가 확실히 좋은 시라고, 시가 좋아야 시랑송도 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9(1990)년 10월 20일 서정시 《어머니》가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이 시가 수많은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고 있다고, 전국의 청년학생들이 이 시를 널리 읽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시 《어머니》의 사상예술적성과에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시를 쓴 시인에 대하여서도 은정 깊은 사랑의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0(1991)년 3월 9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지금 황해제철련합기업소(당시)에서 창작생활을 하고 있는 김철동무를 평양에 올려다 광복거리에 새로 지은 작가예술인 살림집에서 살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가 쓴 시정시 《어머니》는 당에 대한 아주 좋은 시라고,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을 교양하였다고, 인생 체험을 한 시인만이 그런 좋은 시를 쓸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화론》에서 당의 위대성을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서정시 <어머니>를 좋아 하는것도 거기에 소박하고 친근한 생활감정이 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었기때문이다. 당에 대한 송가는 <어머니>에서와 같이 꾸민데도 없고 현란한 표현도 없지만 생활적으로 표상되고 모든 사람에게 지난 날의 체험을 깊이 되살려 주는 진실한 감정을 펼쳐 줄 때 그 어떤 정치적내용도 형상적으로 소화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4(1995)년 4월 1일에도 시 《어머니》는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위대성을 노래한 좋은 시라고 하시면서 그 시를 쓴 김철동무는 순탄치 않은 인생길을 걸어 온 시인이다, 시인은 그 시에서 어머니없이 나는 못 살아라고 격조높이 노래하였는데 그것은 꼭절 많은 인생길에서 그가 얻은 참다운 인생관의 귀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1월 2일 또다시 시 《어머니》가 훌륭한 시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없이 나는 못 살아라는것은 당이 없이 나는 못 살아 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철의 《어머니》, 김상오의 《나의 조국》, 공화국영웅 리수복이 쓴 시들은 참다운 인간세계를 감동깊이 잘 형상한 시들이다, 이런 시들은 사람들을 감화교양하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 좋은 시들을 보급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사상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또다시 김철동무가 《어머니》를 잘 썼다고, 그는 아래에 내려 가 당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어 그런 깊이 있는 시를 쓸수 있었다고 지적하시였다.

서정시 《어머니》가 시대의 명작으로 창작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시인에게 베푸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 자애로운 이끄심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인 김철의 시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가 당의 참된 시인으로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였다.

주체47(1958)년 5월 말 어느 날 수도건설장에서 몸소 몰탈혼합작업을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으며 6월 4일 밤에 진행할 청년학생들의 시랑송모임 준비정형을 알아 보시였다. 랑송할 시들이 모두 서사시 《백두산》에서 한대목씩 선정한것임을 알게 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에서는 한대목만 하고 조기천의 시 《조선은 싸운다》와 그 해 《조선문학》에 실린 김철의 《송가》를 랑송하도록 친히 작품을 선정해 주시고 그 시의 마감부분을 가필까지 하여주시였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김철의 시창작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여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60년대 후반기부터 다년간 문단에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을 료해하여 보시고 그가 파오를 범하고 책벌을 받았다는것을 보고 받으시고 못내 가슴 아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68(1979)년 12월 4일 당시 함경남도 단천지구광업연합기업소 허천청년광산 로동자로 일하고 있던 김철의 서정시 《만수대》, 《금요로동》, 《다시 오리》를 보아 주시고 출판물에 발표하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앞으로도 그의 작품을 발표해 주도록 하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극한 사랑과 배려로 김철의 서정시편들은 《조선문학》 주체69(1980)년 2호에 발표되였다. 하여 독자들은 김철의 시작품을 거의 20년만에 다시 보게 되었으며 시인자신은 시 《어머니》를 창작할수 있는 충격적인 계기를 얻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70(1981)년 6월 4일 김철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현역작가로 복직 복맹시키도록 하여 주시였으며 주체71(1982)년 4월 9일에는 그에게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칭호를 다시 안겨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 동무는 오래동안 당밖에서 생활하였으나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였다고, 그는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면서도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끊임없이 문필활동을 벌려 좋은 시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비록 지난 날에는 엄중한 파오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무처럼 오직 수령님과 당만 믿고 따르

겠다는 신념을 안고 충실하게 일한다면 우리 당은 그를 다시 대오에 받아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정당원으로 복당시키고 당생활년한도 회복시켜 주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에게 크나큰 영광을 거둬 안겨 주시고 그후에도 그의 사업과 생활을 극진히 보살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인이 평양에 올라 와 광복거리 새 살림집에서 살게 하신 후에도 그에게 《김일성상》을 안겨 주시고 문예총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에도 보내 주시였으며 조선지식인대회 대표로 불러 주시고 기념사진까지 함께 찍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2(1993)년 10월 13일에 시인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시 《어머니》를 쓴 시인이라 불러 주시고 그가 읊어 드린 즉흥시 《우리 아버님》을 들으시고는 아주 감명 깊다고 말씀하시였다.

서정시 《어머니》가 창작발표된 때로부터 근 20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서정시 《어머니》는 우리 나라 거의 모든 신문, 잡지, 교과서를 비롯한 출판물들에 거듭거듭 발표소개되었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교포들, 외국의 독자들속에도 널리 알려졌다.

당창건 55돐을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고 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온 나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가슴뜨겁게 새겨 안으며 시 《어머니》를 격조높이 랑송하고 있다.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흠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 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 살아!

전설적인 태양의 존함

박승록

1960년대 초,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사업하고 있던 홍명희선생이 출근하고 있었다. 선생은 중앙홀에 들어서자 왼쪽으로 꺾어 1층 첫방 쪽으로 갔다. 그곳이 새로 꾸린 그의 사무실이였다.

선생이 사무실앞에 거의 다가 섰을 때 한 녀성동무가 지나 갔다. 그러자 선생은 모자를 벗고 두손을 앞섶에 포개어 붙이고 맞은편을 향해 절을 하였다. 지나 가는 녀성동무는 기요원이였다. 기요원은 통신자료들을 매 방에 급히 나르느라 미처 옆에 눈도 돌릴새없이 복도 한켠에 서서 곱게 절하고 있는 선생의 옆을 조심성없이 스쳐 지나 갔다. 이야말로 희귀한 《사건》이였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한 한 젊은 일군은 기요원의 행동이 패썹하게 여겨 저 홍명희선생의 서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방금 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면서 기요원에게 충고도 하고 선생님에게도 말해주어야겠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그러자 서기는 《그런 일을 가지고 말하는건 내가 할 일이 못돼. 선생에게 첫 인사도 할겸 좀 있다가 내려 오게. 그러면 모든걸 알게 될테니.》라고 범상히 받아 넘기였다. 그날 서기동무와 함께 그 일군은 선생의 방을 찾아 갔다. 선생은 소파에 앉아 앞탁에 펼쳐 놓은 《조선봉건왕조실록》(원안)을 읽고 있었는데 돌보기를 두개나 끼고도 그 큰 글자를 가려 보기 힘들어 하였다. 이때에야 젊은 일군은 낮에 있는 일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

시력이 약한 선생은 자기앞에 누가 나타나면 의례히 그가 먼저 인사할것이라 짐작하고 《답례》를 하곤 했다. 그런데다 기요원도 문건을 바빠 방마다 전하느라 결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정전담판장 타자수를 하면서 늘 바빠 뛰어 다니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누가 걸어 오건 걸어 가건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고 지나 가곤 하여 이런 희귀한 《사건》이 자주 일어 나곤 하였다.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 젊은 일군은 홍명희선생이 책 보기 힘들어 하는것을 보며 《선생님, 홍기문선생한테 보내어 번역해 오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애들이 뭘 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날 젊은 일군은 선생과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민군대에서 갓 제대되어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쏟아 놓곤 하던 젊은 일군은 선생에게 해방후 남조선에서 수령님의 품으로 찾아 오게 된 사연을 물어 보았다.

선생은 그 물음에는 관계없이 어버이수령님의 덕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해방후 부수상이 세명이였소. 부수상들중 제일 바쁜 사람이 김책동무였소. 늘 일이 바빠 핑이처럼 돌았지.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좀 쉬곤 하라고 대성산부근에 조용한 집을 한채 마련해 주시였소. 그런데도 김책동무는 그 집에 단 한번도 가보지 못했소. 그는 다른 일군들에게 그 집을 쓰라고 하였소.

그러자 박헌영이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고 신경을 몹시 썼소. 간첩놈이다나니 일할 생각보다도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지.

당시 나는 내부일을 맡아 보면서 수령님의 방에 자주 드나들었소. 그이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였소. 그래서 때로는 별로 보고드릴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이의 방에 찾아가 수령님께서 집무를 보시는데 방해를 주곤 했소.

그때마다 수령님께서서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일을 보시던 문건더미를 밀어 놓고 의자를 권하며 이야기를 해주곤 했소. 그렇게 허물없이 대해 주시는데 습관된 나는 이따금 철없는 질문도 했소. 한번은 내가 <수상님, 선친의 존함도 **김일성**이 아니셨습니까?>하고 물었소.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웃으시며 <허허, 선생님이 룡담두, **김일성**을 앞에 앉혀 놓구 그제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소. 나는 그이께 수령님보다 나이가 훨씬 우인 내가 짜개바지를 입고 다닐 때에 **김일성**이란 이름을 명백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께서 선친의 존함을 그대로 물려 받은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 올렸소.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선생님 같은신분들이 나를 전설적영웅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이름은 김형직입니다.>라고 하셨소.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은 존함에 대한 일화를 그이로부터 듣게 되었소.

어느날 조선의 한 농민이 길림육문중학교에 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결봉에는 <金日成>**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오. 학생들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온것인지 몰라 여기저기 들고 다니었다고

하오.

이때 담임선생이 그 편지를 보더니 <이건 성주학생에게 온거요. 한별을 **김일성**으로 쓴것 같소.>라고 하더라는것이였소. (당시 수령님의 존함은 **김성주**, 한별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학생들은 <아니 잘못 쓴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이름입니다.>라고 하면서 떠들썩했다고 했소. 수령님께서 그 편지를 받으시었는데 그 편지에는 조선농민들의 비참한 처지와 노예의 운명에서 해방될 날을 갈망하는 절절한 목소리가 또박또박 썩여 있었다고 했소.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은 동지들이 지어 주었다고 하시면서 <편지를 보내 온 그 농민처럼 어둡속에서 참된 삶의 밝은 빛을 갈망해 온 사람들의 머리속에 **김일성**이란 이름이 인에 박힌 옛 장수이름으로 된 모양입니다. 아니면 해방직후 내가 하는 공산주의에 현혹된 민족주의자들이 조선의 공산주의가 민족주의전통을 이어 받은것으로 하려고 퍼뜨린 여론에서 온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소.》

전설적인 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홍명희선생은 자기가 어떻게 민족의 태양을 찾아 수령님의 품으

로 오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1921년에 <신간회>를 창건한 다음 제땅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한다면서 발전된 나라에도 가보았고 <황금해안>같은 나라에도 다녀 왔소.

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밝은 빛은 없었소.

일제강점시기 나는 자기 식솔 하나 변변히 먹이지 못했소. 그 많은 식솔을 맡아인 기문의 등에 지워 놓고 나는 출창 떠돌아 다녔소.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식솔을 먹여 살리느라 소설을 썼소. 그것이 장편소설 <림격정>이요.

입에 풀칠이나 하며 겨우 살아오던 나는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을 만나서야 삶의 빛을 보게 되였소. 그이는 나의 운명이시오.

우리 나라와 민족은 수령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기에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였소.

동무들은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일을 잘하여야 하겠소.》

홍명희선생의 말은 진정 우리 수령님을 전설적영웅,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는 심장의 송가였다.

대홍단의 욕심

김선지

첫 아기 낳을 너성에겐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네
숨겨두는 부끄러움
말 못하는 안타까움
진통을 겪게 될 불안도 있네

남편과도
진정 어머니와도
쉬이 주고받기 힘든
그 어려운 말
대홍단 새 각시는
장군님께 서슴없이
귀속말로 아뢰었네
이제 태여날
아기의 이름 지어달라고-

대홍단의 딸이 올린 외람된 청
장군님은 웃으시며 들어 주셨네
남자라면 대홍이
녀자라면 홍단이

장군님 지어주신 그 이름
어느 하나도 놓기 아쉬워
제대군인 새 각시
욕심은 커졌네
아예 쌍둥이였으면
대홍이, 홍단이 다 가지게...

그 누가 들을세라
장군님과 물래 나눈 귀속말
백두산 넓은 벌이 다 들었네

세월이 전하는 이야기

림공식

하얀 살구꽃 구름처럼 피는
화창한 봄날이 오면
이야기한다네
그날의 젊은 세포위원장
아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잊을수 없는 세포총회를 두고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그날의 이야기 모르는 이 없어도
새로운 전설처럼
오늘도 이 가슴을 더웁히며
전하고 전하는 이야기

젊은 세포위원장은
세포총회를 앞두고 생각이 깊었네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돌아 오신 수령님
이번만은 못 오시리라
모시지 못하리라
서운한 마음 금할수 없었네

세포총회때마다 먼저 찾아 오시고
세포당원들과 어김없이 마주 앉으시던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는 총회를 두고
젊은 세포위원장의 마음은 무거웠네

그런데 어이하리
젊은 세포위원장
두눈이 둥그래져
그만 그자리에 굳어 졌네
성정문의 계단을 밟으시며
수령님께서 들어 서고 계시었네
그가 드리는 인사를 받으시며
수령님 조용히 말씀하셨네

-세포총회를 한다지?
나에게는 왜 알리지도 않소

젊은 세포위원장은 머뭇거리며
수령님을 우러러
목 메여 아뢰이지 못하는데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네
-세포위원장동무!
나도 세포에 소속된 당원이요
당원은 높고 낮은 당원이 없습니다
젊은 세포위원장은 떠듬떠듬

말끝을 흐리며
뜨거움에 목이 메었네
그이를 우러러-

세포총회에 참석하신
아버이수령님
수수한 의자에 앉으시여
감격에 젖은 당원들을
돌러보시며 말씀하셨네

-외국방문정형에 대해
정치위원회에는 이직 보고하지 못하였지만
세포에 먼저 보고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젊은 세포위원장의 가슴은 뛰었네
심장이 멎는것 같았네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당을 이끄시는 수령님
어찌하여 세포를 먼저 찾아 오셨는지
수령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의 가슴은 뜨거워

아, 우리 당을 강화하시려
몸소 내각의 한 성의 작은 세포에
《평당원》으로 적을 두시고
그리고 마음을 쓰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젊은 세포위원장은 눈물에 젖는 목소리로
다만 한마디

-수령님!
수령님!

젊은 세포위원장을 바라보시던
아버이수령님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시며
그 마음 다 아시는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네

...
눈물로 시작되고
눈물로 끝난 세포총회
3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도
변함없이 전해 지는 이야기
우리 당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 지리

대홍단의 아침노을

조상호

《엄마, 이젠 자자.》

온종일 얼음판에 나가 썰매를 타다 돌아 온 덕삼은 뜨개질을 하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제는 들을대로 들은 《호랑이가 말을 하고 황소가 담배를 피우던 멀고도 먼 옛날옛적에...》를 또 듣다가 잠내나는 소리로 투정을 했다.

《먼저 자거라. 나야 장갑을 마저 떠야지.》

무명실로 부지런히 장갑을 뜨는 엄마의 눈에도 졸음이 실렸다. 낮에는 샷빨래, 샷바느질로 잠시도 쉴새 없었던 엄마다.

《엄마, 그럼 래일은 나도 장갑이 생기나?》

《생기잖구. 어서 자거라.》

덕삼은 어느새 잠에 쏴아 떨어졌다. 온밤 꿈나라에서 헤매다가 《애 덕삼아, 어서 일어나거라. 순제가 놀자고 찾아 왔다.》 하는 소리여야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났다.

머리맡에는 장갑 한켠레가 놓여 있었고 밥상우에서는 이 빠진 사발에 골숨히 담긴 강낭죽이 김을 문문 피워 올리고 있었다.

《아, 좋네. 내 장갑...》

덕삼은 환성을 올렸다. 그 장갑을 뜨느라 엄마가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것쯤은 알고고도 안했다. 그 수고를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다. 엄마는 응당 그래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된 덕삼이었다.

...

갑자기 승용차가 들추었는지 몸이 들썩하는 느낌에 리덕삼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아득히 흘러가버린 60여년전의 그 젖내풍기는 추억이 어떻게 되어 이 밤 번거로운 상념속으로 불쑥 튀어 들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리덕삼은 시무룩이 웃으며 승용차의 전자시계를 보았다. 밤 한시다. 승용차들은 량강도와 함경남도도 를 련결하는 평길을 달리고 있었다. 아직도 평양까지는 아득히 멀다. 길우에서 교박 밤을 새울것 같다.

리덕삼은 앞차를 바라보았다. 빨간 뒤등을 켜고 달리는 저 앞차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신다.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을 비롯한 량강도의 여러 곳을 현지도도하시고 평양으로 돌아 가시는 길이다.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장군님의 평양길이 이처럼 늦어진것이 바로 대홍단을 자진하여 맡고 내려갔던 자기가 일을 잘못하였기때문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마음을 괴롭혔던것이다. 것처럼 믿고 내세워 주시는 장군님께서 이 전사

를 두고 비록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몹시 실망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능력없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지어 서글프기까지 했다. 어느 책엔가 《인생은 우리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전에 벌써 절반이 지나간다.》고 써 있더니 정말 자기야말로 일군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기도 전에 벌써 인생의 저녁길에 들어선것이 아닌가.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무엇때문에 평양으로 함께 가야겠다고 하시였을가.

아침에 협의회가 있다고 하시더니 그때문은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리덕삼은 두툼한 입술을 꼭 깨물고 앉아 지금까지 대홍단에서 해온 일들을 더듬기 시작했다.

사실 리덕삼은 대홍단에 장군님을 모시기전까지만해도 자기 사업에서 그렇게 빈구석이 많을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것은 장군님을 모시고 제대군인마을로 가던 승용차안에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 《여기 대홍단에 탄원해 온 제대군인들과 처녀들가운데서 지금까지 시집장가 간 동무가 몇명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는데 덕삼은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지금까지》가 아닌 《한달전에 장악한데 의하면》 하고 여물지 못한 대답을 올리였던것이다. 장군님께 드리는 보고는 언제나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이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는 리덕삼은 그렇게밖에 대답할수 없는 자기를 두고 자못 심각해 졌었다. 뻥칠하게 자기 사업을 돌이켜 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과연 그때부터 대홍단에서는 걸음마다 빈 구석이 나타났었다. ...

어둠 덮인 차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는 덕삼의 눈앞에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X

한낮무렵,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아름다리 이깁나무들이 량옆으로 줄을 지어 키높이 솟아 오른 등판의 큰 길을 따라 제대군인마을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길 왼쪽에서는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보리가 파도치며 밀려 오고 오른쪽에서는 하얀 꽃, 보라꽃들을 구름처럼 떠인 푸른 감자밭이 해별에 달아 오른 드넓은 밭을 빈 구석 없이 깔고 앉아 침착하게 감자알들을 살찌우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승용차 뒤좌석에 앉아 차창유리를 내려 놓고 만족한 눈길로 감자밭을 내다보고 계시었다. 승용차의 록음기에서는 흥겨운 민

요가락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

홍단수 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 추네
...

그러나 장군님의 옆자리에 앉은 리덕삼은 방금전에 바로 그런(대홍단에 온 제대군인들과 처녀들이 시집, 장가 간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답을 드린것으로 하여 피로운 마음을 안고 자기 사업을 돌이켜 보고 있었다.

량강도당에서 내부사업만 하다가 감자농사혁명 방침이 나오자 이 어려운 때에 일군들부터 앞장서서 장군님을 받들어야 한다며 자진하여 대홍단을 맡아 나선 리덕삼이었다.

리덕삼이 대홍단으로 떠나려고 배낭을 꾸릴 때 마침 실습차로 내려왔던 손자(그는 지금 평양연극영화대학 촬영과에 다닌다.)는 감심해서 《그러니 대홍단이 할아버지의 <졸업작품>이 될수 있겠구만요. 좋아요. 내 <지원포>를 싸줄게 한번 잘해 보세요.》 하고 고무해 주었다. 아닌게 아니라 손자는 장군님께서 전국의 모범으로 내세워 주신 자강도의 곳곳을 찾아 다니며 대홍단을 꾸리는데 참고로 될 만한것들을 죄다 사진찍어 보내주었다.

리덕삼은 대홍단에 배낭을 내려 놓은 그날부터 사무실에 붙어 있을새가 없이 발전소건설장으로, 감자연구소로, 포전으로 찾아 다니며 걸린 문제를 토론했고 주고 방조도 주었다. 때로는 살림집건설장에 가 몰탈도 이겼고 제대군인들과 함께 거름을 나르기도 했으며 때로는 감자과종기에 올라 손수 온전도 해보았다. 전쟁때 입은 총상자리가 때없이 말썽을 부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기도 모르게 앓음소리가 나가곤 했지만 이른 아침이면 언제 그랬던가 싶게 찬 이슬을 차며 남먼저 포전으로 나가곤 했다. 쓰러져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다가 발고랑에서 순직하겠다는것이 리덕삼의 드림 없는 신조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감자농사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제대군인을 비롯한 이곳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낮을 적게 돌려 왔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여기도 지금까지는 작황이 쎄치 않구만. 다른 분장들보다 못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자꽃이 늠실대는 밭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하시는 말씀이었다.

제 생각에 움해 있던 리덕삼은 그제서야 얼핏 감자밭을 내다보고 나서 어썩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여기 분장에서도 제대군인들이 앞장서서 작년보다 거름을 정보당 열톤씩은 더 냈습니다.》

장군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앞좌석 운전사옆에 앉아 있는 수행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그것 보오, 성국동무. 우리 제대군인들이 그렇

게 일 잘한다는데 아무리 바쁘다 해도 만나보구가야 옳은거야. 더구나 그 동무들이 새 살림을 펴기 시작했다는데 집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아까 장군님께서 제대군인마을에 가보자고 하실때 그러지 않아도 시간을 너무 지체하셨다고, 다음번에 가보시면 어떤가고 간절히 말씀 드렸던 윤성국은 몸을 뒤로 돌리며 또다시 안타까운 소리를 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가셔야 할 길이 2천리도 넘습니다.》

《2천리가 아니라 2만리라 해도 그래... 협의회는 래일 아침 아홉시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도착하겠지?》

《글쎄 그러시면 또 로상에서 밤을... 여기 길은... 승용차가 들추어서 쪽잠도 주무시기 힘듭니다.》

《피곤하면야 차가 들춘다고 못하겠나? 너무 걱정 마오.》

윤성국은 어쩔수 없는듯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다가 리덕삼에게 원망의 눈길을 던졌다. 그 눈길은 끝날처럼 덕삼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찢릿해 짐을 느끼며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역시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기때문이다. 다 나때문이야....)

장군님께서 대홍단에 오신 그 순간부터 8월의 복더위(오늘따라 대홍단이 생겨 보기 드문 무더위였다.)도 마다하지 않고 밀보리밭, 감자밭들을 돌아보시였으며 따가운 해볕속에서 오래동안 포전에 서서 감자과종기며 감자순치는 기계, 감자수확기 등 각종 농기계들의 작업모습까지 일일이 보아주면서 이것은 이걸 고쳐라 저것은 무엇을 고쳐라 하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통알감자를 심은 포기를 뽑아 알수와 크기, 무게를 가늠해보시며 감자농사법도 하나하나 배워 주고 앞으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문제 등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세세히 밝혀주시였다. 그러다나니 예정보다 시간이 퍼그나 더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군인들을 만나보지 않고 가면 되겠는가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제대군인마을로 향하신 것이다.

사실 이 리덕삼이가 일을 잘하였다면 장군님께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체하시지는 않았을것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만 일이라고 뉘여 다니면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대홍단사람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윤성국이 무슨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아니, 이 사실을 알면 그뿐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욕을 할것이다. 머리 허연 사람까지도 일을 제대로 못해 장군님께서 이렇게 로고를 바치시게 하면 어쩌는가고...

손자는 격분해서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어요?》 하고 대들지도 모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장군님께서 덕삼의 손을 따듯이 잡아쥐며 물으시었다. 사실 지금까지 덕삼의 얼굴표정에 은근히 원심을 써오신 장군님이시었다.

덕삼이 당황한듯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뭘 별루...》

《힘이 들지요?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덕삼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떨구며 눈을 슬쩍거렸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바쁘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장군님께서 생각 깊은 눈길로 리덕삼을 바라보시었다. 리덕삼의 주름깊은 얼굴에 자책의 그림자가 짙게 어려 있었던것이다.

문득 왼쪽 눈화가까이에 생긴 팔알만한 검버섯이 눈에 띄었다. 그러자 (덕삼동무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어 장군님께서 가슴이 아릿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몇해전 그의 집에 찾아 가시였을 때에는 이런 검버섯이 없었었다.

그것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 있는 일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량강도당사업을 료해하다가 도당에서 일하던 리덕삼이 처벌을 받고 로동현장에 내려 갔다가 다시 소생하지 못했다는데 주의를 돌리시었다.

리덕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일군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언제인가 량강도의 리덕삼이가 일을 잘한다고 하시였었다. 그런 그가 주석단에만 앉다 보니 점차 교만해져서 군중과 리탈되고 점점 안하무인격으로 놀다가 돌이킬수 없는 파오를 범하게 되였다. 그가 담당했던 군에서 큰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있었는데 나이 많은 주민들속에서 내가에 제방부터 든든히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제품생산이 바쁘다면서 공장건설만 내밀다가 큰물이 나는 통에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것이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인차 년로보장나이가 되어 집에 들어간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운명이 걱정되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윤성국이를 내려 보내시었다. 윤성국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돌아왔다.

리덕삼이 요즈음 낚시질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 간다는것이였다. 고기는 못 잡으면서도 매일 아침 낚시대를 메고 나갔다가 어두워서야 들어온다고 했다.

일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길에서 떨어 져 나가기도 하던 준엄한 시기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가슴이 아프시었다.

그가 고기나 잡으려 낚시대를 메고 다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량강도를 현지도하실 때 시간을 내어 예고도 없이 그의 집을 찾으시었다.

집안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혼자 한되박 되나마나 한 강냉이를 땅에 타개다가 놀라 일어서며 어쩔줄 몰라했다. 인사를 하시는 장군님의 두손을 부여잡고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 배은망덕한 로친을... 꾸짖어주시오다. 이 늙은게...자식하나 똑똑한걸 두지 못해서... 우리같이 불효막심한것들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일찍 가신것만 같아서... 열백번 죽는다 한들 이 죄를...어떻게 씻을수 있겠습니까. 름산에서랑 이 마을에서랑... 수령님을 뵈겠다구 평양으루, 금수산기념궁전으루 갈 때에두... 우리만은...우리만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수령님을 뵈우려두 못가구... 어허이구, 장군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소다?》

장군님께서서는 눈물을 찔찔 흘리는 늙은이의 잔악한 어깨를 꼭 안고 솟구치는 걱정을 애써 누르다가 이윽해서야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우리 꼭 덕삼동무를 수령님앞에 떼뵈이 내세웁시다.》

일군들이 리덕삼이를 데려왔다. 낚시대를 들고 후줄근히 서 있는 그를 보며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었던지 모른다.

남들이 수령님을 뵈오러 갈 때 함께 갈수 없는 자신을 두고 텅 빈 강변에 홀로 앉아 피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을 치는 그의 처절한 모습이 망막을 파고 들어 가슴이 미여지시는듯 했다.

리덕삼은 고개를 들념을 못했다. 수그린, 거뭇게 질린 얼굴에서 쏟아 지는 눈물이 그의 흠물은 로동화교승이에 똑똑 떨어 져 내렸다.

장군님께서서는 솟구쳐 오르는 련민의 정을 애써 누르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시었다.

《덕삼동무, 동무가 왜 이렇게 되였습니까. 동무는 수령님께서 일 잘한다고 치하하신 일군이 아니였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일 잘하는 일군이 되여야지 어찌면 그렇게 배은망덕할수가 있습니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낚시대나 들고 다니는 동무를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리덕삼은 풀썩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저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 이미 죽었어야 할 놈이였습니다. 저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이 땅에서...머리를 들구...》

리덕삼은 종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꺾-하는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떨군채 와들와들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는 아픈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절연히 머리를 가로 저으시었다.

《아니, 동무는 다시 일어나 기어이 수령님께서 아시는 그런 일잘하는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시다. 어서 일어서시오. 수령님께서 아시는 리덕삼인 이런 참회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님!》

리덕삼은 마침내 이렇게 목메여 부르며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리덕삼은 그후 자기가 파오를 범하였던 군에 찾아가 큰물피해를 가시고 제방을 새로 쌓는 일에 뛰어들어 메질도 하고 목도도 하였다. 제방이 완성되는 날 그는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사죄를 하였다. 그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한가마밥을 먹으며 아글타글 노력하는것을 보니 정말 달라졌다고, 그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민들이 당조직을 찾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장군님께서는 정말 기쁘시였었다. 그리하여 리덕삼은 다시 본래의 자기 직무에서 일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리덕삼이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자고 대흥단으로 달려 나와 제대군인들과 함께 거름집까지 진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러면서도 이젠 나이가 적지않은 그가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랴 하는 걱정이 크시였었다.

그런데 리덕삼은 지금 대흥단에서 일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두고 이리도 피로와 하고 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리덕삼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자기 사업에서 결함을 찾을줄 안다는것은 벌써 발전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때 받은 총상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리덕삼은 일도 변변히 못하는 전사의 총상자리까지 잊지 않고 걱정해 주시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에 눈곱이 시큰해 움을 느끼며 물먹은 소리를 했다.

《일없습시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시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덕삼동무는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승용차는 어느덧 제대군인마을로 가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래 아들과 손자에게서는 편지가 자주 옵니까? 손자는 평양연극영화대학에 다닌다고 했던것 같은데...》

리덕삼은 감심한 어조로 전연에서 부대장을 하는 아들한테서는 한달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였었다는 편지를 받았고 손자에게서는 얼마전

에 이런 사진까지 보내왔다면서 품속에서 편지봉투채로 꺼내여 장군님께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사진을 꺼내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이건 자강도의 띄우개식발전소가 아닙니까. 이 건 희천려관... 강계의 뽕밭... 이 건 장강의 살림집...》

리덕삼은 어줍게 웃으며 대흥단으로 떠나올 때 손자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허허허, <졸업작품>에 <지원포>라... 그러니 이제 그 <지원포>로구만. 생각이 기특합니다. 재간도 있고...꼭 예술사진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진을 도로 넘겨주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정말 좋은 인민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의 강행군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이 한가지 생각에만 집념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모두가 다 힘차게 강행군을 하고 있다. 자강도사람들도 대흥단사람들도...온 나라가 다...

하지만 이 리덕삼이만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해야 할 이 리덕삼이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자책감에 저절로 머리가 수그러 졌다.

제대군인마을에서는 또 어떤 결함들이 나타나겠는지 모른다. 그들이 새집들이를 한 다음에는 이젠 한시름 놓았다고 마음 놓으면서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것이다.

승용차는 제대군인마을앞에서 멎어 섰다.

백두대지의 풍치에 맞게 뽕죽지붕을 얹은 알뜰한 살림집들이 나지막한 산기슭에 두줄로 늘어 서있었다. 리덕삼이 직접 설계를 보아 주고 앞장에 서서 지은, 말하자면 그 역시 리덕삼의 《졸업작품》의 한페이지라고도 할수 있는 살림집들이였다.

리덕삼은 이 《졸업작품》에 대해서는 장군님께서 어떤 《점수》를 주시겠는지 하는 조바심을 안고 승용차에서 내렸다.

장군님께서 먼저 2층으로 지은 살림집 마당에 들어 서시는데 포전에서 일하다가 연락을 받았는지 젊은 부부가 땀을 흘리며 뛰어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특무상사 최남철...》

장군님께 손을 번쩍 들어 거수경례를 하던 청년은 그제야 자기가 군복을 벗은 제대군인이라는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꾸벅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덕삼이 민망해서 쳐다보는데 장군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였다.

《괜찮아, 자기를 아직 군인처럼 생각하는데 습관된 그것이 마음에 든단말이요. 허허허...그런데 낮

이 익은것 같다... 이름이 뭐라구?》

그러자 청년이 기름한 얼굴에 벙글벙글 웃음을 가득 담으며 말쑥 드렸다.

《최남철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전대에 오셨을 때 얼굴에 기름이 묻었다고 손수 손수건으로 닦아 주시던...》

《아! 갑판장... 맞아. 함정의 전투준비를 완성하느라 제대를 세번씩이나 미루었다고 했지. 군복을 벗으니 몰라보겠구만. 가만, 그때 좋아하던 처녀가 있다고 했던것 같은데... 어느 장령의 딸이라고 했던가?》

덕삼은 가슴이 몽클해 졌다.

정말 장군님의 기억력은 비상하시였다. 그처럼 수많은 전사들을 매일처럼 만나보시면서도 언제인가 얼핏 만났을 한 전사의 애인까지 잊지 않고 물어 주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 그 처녀가 바로 이 정녀동무입니다.》

최남철이 자기 뒤에 섰던 안해를 앞에 내세웠다. 머리수건을 벗어 쥐고 눈물이 글썽해서 장군님을 우러르던 그의 안해가 한결음 나서며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그처럼 바쁘신데 저의 집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으시였다.

《고맙다는 말이야 내가 해야지. 동무들은 당의 뜻을 받들자고 조국땅 한끝인 여기 대흥단에까지 오지 않았나. 음... 함께 왔구만. 장해...아주 좋아.》

만면에 함뿍 미소를 담으며 대견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장군님께서는 이제 집구경이나 좀 하자면서 부부를 앞세우고 방안으로 향하시였다.

방 정면에는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 그리고 어느 대회에서 찍은듯한 기념사진 한상이 모셔져 있고 그 왼쪽벽에는 해군복이 걸려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기념사진을 더욱더욱 올려다 보다가 남철에게 어디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가고 물으시였다.

남철이 흥분해서 중간어름을 가리켜 드렸다.

《어디? 어디라구? 아, 있구만...》

사진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 볼수 있는것이 기쁘시여 웃으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리덕삼은 가슴이 몽클해 와 얼른 고개를 수그렸다. 자기는 언제 한 번 이들과 그런 기쁨을 나누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엔 벽에 걸어 놓은 해군복의 하얀 가림천을 들고 웃웃에 달아놓은 훈장을 하나 하나 세여 보시였다.

《훈장을 열다섯개나 탔구만. 대단해. 정말 군사복무를 잘했소.》

그러시고는 리덕삼이네를 돌아보며 최남철이를 자랑하시였다.

《이 동무가 바로 제대를 세번씩이나 미루면서 함

정의 싸움준비를 완성한 동무요. 싸움준비를 끝내고는 이번엔 또 당에서 부르는 이 대흥단으로 달려왔소. 얼마나 훌륭한 동무요. 이런 동무들이 이제 여기 대흥단에서 한몫하게 될게요.》

리덕삼이 감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드렸다.

《정말 제대군인동무들이 일을 잘합니다. 금년봄 진눈까비가 너무 내려 수송기체들이 움직일수 없게 되자 병사시절 본때로 붉은기를 날리고 나팔을 불면서 거름을 지구 안구 달려 며칠사이에 천여톤을 모두 밭에 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장한 일을 한 친자식들의 자랑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아주 잘했소. 그런 군인정신이 온 나라에 꼭 차넘치게 하라고 이 동무들을 보낸거요.》 하고 만족해 하시였다.

그러던 장군님께서 벽지문양을 보다가 구석에 얼룩이 간것 같은데 비가 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덕삼은 바짝 긴장해져서 남철을 돌아보았다. 그런것까지는 알아볼 생각도 못했던 덕삼이였다. 남철이 비가 새지 않는다고 하자 장군님께서는 불을 한번 켜보라고 하시였다. 불을 켜고 다시 자세히 보고서야 《비는 새지 않는것 같구만.》 하며 마음을 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바닥을 짚어보며 전기난방이 이런 정도면 대흥단의 추위를 막을수 있겠는가 재삼 알아보고나서 부엌으로 나가시였다. 첫 살림에 부족한것은 없는지 넘겨되어 찬장의 그릇들도 세여보고 가마뚜껑과 단지들까지 일일이 열어 보시였다.

《간장, 된장은 일없는것 같은데... 기름과 소금이 부족한것 같구만. 기름과 소금을 언제 공급했소?》

리덕삼은 또 대답을 못했다.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그것 역시 빈 구석이었던것이다.

《제가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서운한 어조로 나직이 뇌이시였다.

《감자를 많이 먹는곳인데 다른건 몰라도 소금이 부족해서야 안되지.》

《인차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오. 당장 해결하기 힘들면 군대에 정제 소금공장을 세워주었는데 거기서 한 천톤 먼저 돌려 쓰도록 하오.》

장군님께서는 무엇이 더 부족한게 없겠는가 해서 두손을 허리에 얹고 부엌을 둘러보다가 다시 웃방으로 향하시였다.

윤성국이 열린 따라 들어 서며 이제 그만 떠나셔야겠다고 나직이 말씀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민망한 눈길로 그를 돌아 보시였다.

《좀 가만 있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라도 몇마디 나누고 가야지.》

그러시고는 웃방 침대에 걸터앉으며 남철이네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였다.

《어떻소, 남철동무. 집이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듭니다.》 남철의 씩씩한 대답이었다.
《내앞이니까 그저 마음에 든다누만.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웃으며 덕삼을 돌아 보시었다.
《덕삼동무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한방씩만 전기 난방을 하였습니까?》

덕삼은 충구스러운 어조로 아직 전기가 풍족치 못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그러면 추울 때에는 다른 방에서 생활하기 곤란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중소형발전소들을 더 건설 해서 모든 방들을 다 전기난방하여야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수첩에 부지런히 가르치심을 적는 덕삼에게서 남철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남철동무 고향이 평양이라고 했지. 안해는 장령의 딸이구... 부부가 다 농사일은 처음일텐데... 어때, 일이 힘들지?》

《장군님, 힘들어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웁소.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오. 동무들은 이 대흥단을 꾸리구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가 되어야 해. 그래서 동무들을 보낸거요. 그레출퇴근이란은 어떻게 하오?》

최남철이 쭈스려운듯 손을 뒤더수기로 가져가는데 리덕삼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다.

《일하러도 쌍쌍이 나가구 들어올 때도 쌍쌍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모여 섰던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쌍쌍이라.》 하며 웃으시다가 도리머리를 하시었다.

《그렇게 되면 녀성들은 바쁘겠는데... 녀성들은 좀 먼저 들어와야 밥도 짓구 찬도 한가지라도 더 만들수 있을게 아니겠소. 남자들이란 집에 들어서 자마자 밥상을 척 받쳐주어야 제 안해를 더 고와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소? 남철동무.》

남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불을 슬슬 굽었다.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러자 사람들이 또 즐겁게 웃었다.

《그것보란말이요.》 하며 장군님께서도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리덕삼은 더운것을 삼키며 이제부터는 녀성들을 한 30분 먼저 들어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니, 30분은 작소. 한시간은 먼저 들여보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남철을 보며 언제 결혼했는가고 물으시었다.

《여기 대흥단으로 오기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러니 몇달동안은 합숙에서 서로 떨어져 살았겠구만. 잔치한 다음엔 제격 새집에 들어가 첫 살림을 펴야 사는 재미가 있는데... 집이 그리웠겠소.》

장군님의 다심한 념려의 말씀에 남철이 눈굽이 축축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몇 있는 새집이 일떠서고 있는걸 보니 힘이 더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남철을 여겨보다가 정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듯 물으시었다.

《어때, 이젠 애기를 가졌나?》

《예?》

처음엔 미처 영문을 모르고 의아한 눈길을 들었던 정녀는 그제서야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고 《어마어마!》 하며 얼른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순간에 귀밀이 빨개진 정녀는 부끄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정녀가 더욱 사랑스러워 만면에 가득 미소를 담고 보시다가 다시 남들이 듣지 못하게 은근한 어조로

《일없어. 어려워 말구 다 말하라구. 다른 녀동무들도 애기를 가진 동무들이 많지?》 하고 물으시었다.

《예, 우리 분장에만도 한 절반은...》

장군님께서는 수집음과 행복감으로 얼굴전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개진 정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 주시며 리덕삼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잊지 말고 미역도 충분히 실어다 놓아야겠습니까. 꼴과 닭알도 넉넉히 준비해 놓고...당장은 과일과 잉어 같은 물고기를 보내주고 앞으로는 애기옷과 포단, 딸랭이 같은 장난감들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애기들이 많이 태어날텐데 군병원의 산부인과도 크게 확장해야겠습니까. 제대군인만도 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줄잡아도 인차 천명은 태어날텐데...서둘러야겠습니까. 평양산원 못지 않게 설비도 좋은것으로 보내주고...조산원들도 보내주고...당장은 평양산원에서 이동치료봉사대를 보내줍시다.》

덕삼은 그만 가슴이 쿵하고 울리면서 알싸한것이 울컥 목구멍을 지지며 솟구쳐 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세상에 친어머니인들 이보다 더 세심하고 뜨거우랴 싶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고 해온 자기가 왜서 오늘 같은 결함들을 또 범하게 되었는지 어렵듯하게나마 느끼게 되는듯싶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남철이와 정녀에게 눈길을 돌리며 따뜻한 어조로 애로되는것이라던가 부탁할것이 없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남철이와 정녀가 없다고 말씀 드리자 오히려 서운한듯한 안색으로 《자꾸 없다구만 하지 말구...다 말하라구. 동무들의 요구라면 내 다 풀어주겠어. 그 어떤것이라도 다...》 하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최남철이 경건히,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

렸다.

《장군님, 우리의 소원은 장군님의 안녕뿐입니다.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우린…우린 더 바랄게 없습니
다.》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남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고맙소. 그렇다면 내가 좀 부탁을 하자구. 난 수령님의 유훈대로 이 대홍단을 세상에서 제일 살
기 좋은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꾸리자고 하오. 그래
서 온 나라가 대홍단을 따라 배우게 하자는거요.

그러니 동무들은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전선을 담
당한 혁명가들이고 공산주의문어구에 제일 먼저 들
어서야 할 선봉투사들이요. 내 <지원포>를 아낌없
이 광광 쏘출테니 동무들은 병사시절처럼 혁명적군
인정신으로, <일당백>의 그 기백으로 이 땅우에 하
루빨리 공산주의본보기농장을 꾸려놓아야 하오. 어
떻소. 할수 있겠소?》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신임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최남철이 후더운 열기를 뽐으며 힘있게 대답드렸
다.

《좋소, 아주 좋아. 이제 태여날 후대들은 동무들
의 청춘시절을 두고두고 아름답게 추억하게 될것이
요.》

장군님께서는 남철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이
동무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것이 없겠는가 해서 세
심한 눈길로 다시한번 방안을 둘러 보고나서야 자
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그런데 어느새 무랍 없어진
정녀가 친아버지인듯 장군님의 팔을 끼고 계단을
내리다가 응석기 어린 어조로 《장군님, 한가지 청
이 있습니다.》하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말이 반가와 《글쎄 그러면 그렇
겠지 없을수가 있나. 그래 그 청이 뭐요?》하며 대
견해서 정녀를 내려다 보시었다.

《장군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새집들이를
하는데 아직 시부모님도 친정에서도 못 왔습니
다.》

그러던 정녀의 목소리가 급기야 젖어들었다. 그
러자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아릿해움을 느끼시며 그
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이 위로해주시었다.

《섭섭해 말라구. 대신 내가 오지 않았나.》

정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는 그의 크고 검은
눈에 또다시 눈물이 가득 실려오르더니 랑불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녀는 울먹울먹하면서
울음에 꼭 잠긴 젖은 소리로 떠들떠들 말씀드렸다.

《장군님, 섭섭한게 아니라… 너무도 기쁘구…너
무도 행복스러워서…지금두 꼭…꿈을 꾸는것 같습
니다. 시부모님도 저의 어머님도…다 못왔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제일 먼저…이 먼곳까지 오서
서 첫 살림을 편 우리를…축복해주시구 이렇게 살
림살이를 보살펴 주시구…장군님,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한장 찍어 주십시오. 정말…장군님은…우리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고 싶습…》

정녀는 뜨거운것을 삼키다가 끝내 말을 잊지 못
하고 흐옥-하고 흐느끼며 장군님의 팔에 얼굴을 묻
었다.

장군님께서도 가슴이 뜨거워 지시었다. 정말 사
랑이 가고 정이 가는 아들딸 같은 이 청년들과 사
진을 찍고 싶으시었다. 이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기
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주고싶
으시었다.

《그래 찍어야지. 가족사진을 찍자구…가만, 그런
데 정녀는 자꾸 울기만 하누만. 울지 말라구, 울면
사진이 잘 안돼.》

장군님께서 감격과 행복으로 흐느끼는 남철이네
부부를 달래이며 집을 배경으로 마당가에 서시었다.
마당가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행복에 겨워 웃
고 있었다.

리덕삼은 가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우러르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숨소리가
높아졌다. 정녕 저 모습이야말로 친아버이를 모신
한가정, 한식술의 승엄한 화폭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부러웠다. 그에게는 아직 저처럼 장군님
을 직접 옆자리에 모시고 찍은 사진이 한상도 없었
던것이다. 하지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하
는 생각으로 감히 장군님께 청을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만 보던 덕삼은 갑자
기 눈이 동그해졌다.

사진을 찍은 정녀가 장군님의 손을 살며시 자기
쪽으로 잡아끌며 무엇이라 소곤소곤 속삭이기 시작
했던것이다. 그러는 정녀의 얼굴은 익은 고추처럼
활짝 붉어 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귀속말을 들으시는 장군님의 안광
에 대뜸 환한 미소가 피어 올랐다. 정녀는 지어 저
의 남편도 듣지 못하게 장군님의 팔을 더 바싹 잡
아당기고 소곤소곤거린다.

《그래…그래…》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장군님
께서 어정쩡해 서있는 남철을 얼핏 보고 웃으시더
니 정녀에게 다시 귀속말로 무어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정녀는 장군님의 팔을 잡아 흔들기까지
하며 또 무어라 속삭거린다. 마치 친아버지에게 무
엇인가 해내라고 떼를 쓰며 응석을 부리는 친딸같
았다.

사람들은 모두 눈들이 커졌다. 가족사진을 찍느
라 사람들과 거리가 있었던데다가 제 남편도 못들
게 속삭인 귀속말이라 그 내용은 누구도 알수 없었
다.

덕삼이도 그 모습에 어쩐지 가슴이 후더워 지면
서도 호기심이 가득해 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허리를 펴며 호탕하게 웃으시

였다. 그러시고는 부부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나서 곧장 그앞의 단층집으로 향하시였다. 그 집은 땅크병출신네 집이였다.

윤성국이 당황해서 황황히 따라서며 안타까이 말 씀드렸다.

《장군님, 이제 정말 시간이…사실 여기 살림집들은 구조가 다 어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리덕삼이도 그제서야 자기 위치를 새삼스레 자각 하며 간절히 아뢰였다.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동무들은 장군님께서 남 철동무네 집을 찾아주신것을 모두 자기네 집을 찾아 주신것으로 생각할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지만 여기 살림집들은 구조가 다 같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섭섭한 표정을 지으 시였다.

《뭐가 같고 뭐가 엇비슷합니까. 이 집은 2층이고 저집은 단층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군인동무들은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난 다르오. 보고 갑시다. 저런 단층집은 또 어떤지 아무리 바빠도 난 보고 가야 마음이 놓이겠소.》

장군님께서서는 결연히 그 땅크병네 집으로 향하시였다. 이웃해서 서있는 집들인데 옷집만 보고 아래 집에 가보지 않으면 땅크병네가 섭섭해할것 같기도 했고 또 한집만 보고서는 제대군인들의 생활을 다 알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였기때문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땅크병출신네 집에 들어서자 품을 놓고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면서 고향이야기며 군사복무하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트락토르랑 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줄테니 땅크병의 숨씨를 보이라고 고무해 주기도 하시였다. 그리고는 그들과도 가족사진을 찍으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땅크병출신네 집을 나서시며 덕삼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집에 와보기 잘했소. 앞으로는 이 동무네 집 처럼 살림집들을 단층집으로 지어야 하겠소. 대흥단은 바람이 세찬곳이기때문에 2층짜리 집보다 단층짜리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집은 보기에든 좋을뿐아니라 기본은… 살기가 좋게 지어야 합니다.》

덕삼은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깊이 깊이 새겨 넣었다.

정말 장군님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에 대한 환멸이 더더욱 커지는 덕삼이였다.

사실 리덕삼은 1,000명도 넘는 제대군인들과 수백명의 처녀들이 대흥단을 꽃피우자고 달려 왔을때 이들에게 살림집을 잘 지어 주고 하루빨리 새살림을 펴수 있게 해주는것만도 큰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고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내 아들딸이였다면 실지 새

집을 지어 주는것만으로 만족할수 있었겠는가…

덕삼은 아래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나는 역시 일군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슴 한복판을 짝 가르며 밀려 들었다. 오늘 제대군인들의 집을 돌아 보시며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대로 일군 리덕삼, 자기에 대한 준절한 깨우치심이였다.

아, 말로는 어머니심정으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을 들기도 하였지만 왜 자꾸 이렇게 되는것인가. 왜? 왜?

덕삼은 피로왔다.

더구나 무심히 스칠수 없는것은 장군님께서 정네 집을 나서신 그 순간부터 때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었다.

혹시 나의 사업에서 생긴 그 미흡한 점때문은 아닌지…

×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리덕삼은 다시 생각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네시반이다. 차창밖은 벌써 푸름푸름 밝아 오고 있었다.

앞뒤에서 차문 여닫기는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덕삼은 의아해서 앞을 바라보았다. 어렴풋한 젖빛 대기속에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이 보였다. 덕삼이도 차에서 내렸다.

물안개가 굵실대며 피어 오르는 내가에 장군님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 세수를 하고 계시였다.

장군님의 차옆에는 윤성국이 서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속삭이듯 나직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모두 자기 차로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차행군에 피곤하겠는데 잠깐이라도 눈을 좀 붙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런 속도면 능히 자기시간에 평양에 가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는 그의 음성은 펄 갈려 있었다.

수원들은 선뜻 자리를 뜰념을 못했다. 장군님께서 또 한밤을 지새우시였구나 하는 가슴 아픈 생각에서였다.

덕삼은 더욱 그랬다.

더구나 지금껏 궁금했던 문제들중에 자기의 평양행 내막만은 윤성국이 알고 있을것 같아 주춤주춤 그앞으로 다가갔다.

《덕삼동무는 왜 가서 쉬지 않습니까?》

《전 좀…생각되는것이 있어서…성국동무, 내가 알면 안되는일입니까? 장군님께서 저를 보고 왜 함께 가자고 하시였는지. 혹시 회의때문이라면 제가 이제라도 무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겠는지 해서…》

윤성국이 머뭇거리는 덕삼을 흘깃 쳐다보더니 긴숨을 내그었다.

《준비할것은 없습니다. 사실 장군님께서서는 덕삼

동무의 건강이 걱정되시어 평양의 큰 병원에 데리고 종합검진을 해보아야겠다고...

덕삼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 아니 그럼 그때문에 이렇게...》

《장군님께서 얼마나 심려하시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몹시 축갔다고...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덕삼은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쿵 솟아 올라 급기야 입술을 깨물며 황황히 고개를 외로 돌렸다. 한참이나 마음을 다잡다가 와락 윤성국의 손을 움켜쥐며 목 메인 소리를 했다.

《그런걸 모르구 난... 윤성국동무, 난 돌아 가겠소. 난 아무렇지도 않소. 정말이요. 내 이제 이몸이 뭐 아깝겠소. 장군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주. 내야 빛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제발 장군님께...》

윤성국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장군님께서 마음 놓으실것 같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그런 문제에까지 다시는 마음쓰시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 쓰실 일이 많은데...장군님께서 밤새 휴식 한번 하신줄 압니까. 지금껏 문건들을 보시느라구...쫓잡마저두 못 드시구...》

이때 장군님께서 타올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다가오시었다. 꼬박 밤을 새우시었는데도 그의 온몸에서는 새벽대기와 같은 청신한 기운이 풍겼다. 젖빛안개가 그의 아래도리에 휘감기며 따라왔다.

《덕삼동무는 왜 쉬지 않고 나왔습니까?》

덕삼은 코안이 매워움을 느끼며 떠듬떠듬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정말 먼목이...》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의아해서 윤성국이와 덕삼을 갈마보다가 짐작이 되신듯 웃으며 그럼 새벽공기도 좋은데 이야기나 좀 하고 가자고 하시었다.

《그래 무엇때문에 먼목이 없다는겁니까?》

장군님께서는 길옆의 자그마한 돌우에 앉으시며 자리를 권하시었다. 리덕삼은 앉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장군님, 전 확실히 사람들의 생활문제에는 관심을 깊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앉아 말하십시오. 그래 그걸 말하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저...》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덕삼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새벽안개가 굽실대는 내가에 시선을 주시며 생각 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도 어제 대홍단의 그 녀동무가 한 말을 두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살림을 시작했는데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아직 오지 못했다는 말을 말입니다. 예로부터 부모들은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새살

림을 꾸리면 의례히 찾아가 축복해 주구 살림을 보살펴 주는것을 자기의 응당한 의무로, 권리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상한 도덕률이었습시다. 자식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족한것은 무엇인지 당장 도와주어야 할것은 무엇인지... 보고 싶고 알고 싶은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민은 지금 그 모든것을 가슴깊이 묻어두고 오직 시대앞에 지닌 자기 의무를 리행하려고 아글타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따라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자고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귀한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구실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강행군길을 가는 오늘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리덕삼은 고개를 떨군채 자책에 잠겨 말했다.

《저는...그런 심정으로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가늠되시어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사실 부모의 심정을 가진다는게 말처럼 쉬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는 당의 일군들인것만큼 웅당 그것이 체질화되고 본능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까 인민군부대장들에게도 제대군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는가고 물어 보았는데... 사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 어딜 가도 관심이 깊은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얼 하나 색다른게 생겨도 멀리 가있는 자식들부터 생각하고...》

리덕삼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뜨거운 인정의 세계에서 너무도 뒤떨어져 살고 있는 자신을 통절히 느꼈다. 리덕삼은 두주먹을 꼭 움켜쥐며 새로운 맹세가 담긴 어조로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이제 돌아가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정말 일을 잘하겠습니다. 장군님, 전 이길로 대홍단에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의아한 눈길로 덕삼을 돌아보시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오. 동무는 이제 평양에 가 종합검진을 받고 료양을 가야 합니다.》

《장군님!》

리덕삼은 목이 자꾸 메여움을 느끼며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전...제몸은 정말...일없습시다. 제가 이제 몇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장군님, 소원입니다. 전 쓰러져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다가 발머리에 쓰러지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덕삼을 주시하다가

《음...》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뒤짐을 지고 안개가 피어오르는 내가를 잠시 거니시다가 약간 갈린 음성으로 혼자 말씀처럼 뇌이시었다.

《그러니 <졸업작품>이란 소리도 공연한 말이 아니었구만. <졸업>이라...》

어쩐지 허전해하시는듯한 그 말씀에 덕삼은 가슴이 뻘뻘해져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돌아가면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순직하는 그 순간까지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며 일해야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다. 장군님의 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인간이라...

장군님께서 몇걸음 더 거닐다가 멈춰서며 덕삼에게 돌아서시었다.

《덕삼동무가 그렇게 쓰러지겠다는 말을 하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구만요. 덕삼동무는 지금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총상자리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장군님의 뜻밖의 말씀에 덕삼은 눈이 커졌다.

《예? 어머니가...말입니까?》

《놀랄건 없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우리 사람 한명이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덕삼동무가 몇달째 집을 떠나 대흥단에 내려가 사는데 집소식도 들려줄겸 해서...어머니는 아직 정정한데...그저 덕삼동무의 총상자리가 어쩐지 그제 좀 걱정스럽다고 하더랍니다. 우리 사람앞에서 그런 말을 할때에야 어머니의 근심이 어느 정도라는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참...》

리덕삼은 코허리가 시큰해와 얼른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근심했다는 말씀보다 이 불민한 전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에 목이 메었다. 정말 장군님앞에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었다. 리덕삼은 눈을 습벅이면서도 장군님을 안심시켜드리려고 이런 소리를 했다.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잔 근심이 많아서...늙으면 다 그런것 같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내가 이제 나이 70이다 되고 대학에 간 손자까지 있는데도 아직 아이취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처는 물론 손자며느리, 증손자가 옆에 있는데도 피춤에 쫓겨서 건사했던 사랑을 몰래 쥐여주며 <애 덕삼아, 자꾸 담배를 피지 말구 담배생각날 때마다 이 달달한걸 한알씩 입에 넣군 해라. 남보기 전에 얼른 호주머니에 넣어두>...하군 해서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하하.》

장군님께서 덕삼의 말이 어이가 없어 웃음을 뒤로 젖히니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닙니다.》

윤성국이라도 웃고 승용차를 타고 있던 운전사도

병긋거렸다. 누기찬 숲에선 잠을 깬 새들이 활기를 띠고 즐거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정말 덕삼동무가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불려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시샘이 날 정도입니다. 허허허.》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었지만...

덕삼은 그 순간 불뭉치 같은것이 울퉁 목젖을 지지며 솟구쳐 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짙게 어려 있었다.

덕삼은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아 올라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었다. 금시 울음이 터져 나올것만 같았다.

아-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김정숙 어머니, 해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어머님께서 서른두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었고 우리 장군님께서 너무도 어리신 그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하늘 같은 사랑을 잃고...오히려 어린 동생의 《어머니》가 되시여야 했던것이 아닌가.

정말 장군님의 그 아픈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릴수 없는것이다.

《장군님, 제가 그만...》

리덕삼은 눈물에 목이 짙 잠겨 더 말을 못했다.

장군님께서 오히려 그러는 덕삼의 손을 다시금 꼭 잡아주시며 약간 갈린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은 그저 내가 어머니 말만 하면...내가 공연히 그 말을 한것 같습니다. 덕삼동무, 사실 난 그래서 더더욱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덕삼동무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더 근심하지 않도록 건강에도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장군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고 아직도 여기저기 새벽별이 깜박이는 높고도 파르스름한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간곡한 어조로 이으시었다.

《난 이번에 동무의 얼굴이 축간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우기 여기 대흥단은 아버지수령님과 어머니의 발자취가 어린 력사의 땅입니다. 수령님께서 생존시기 지난날 세상에서 제일 못살던 이곳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 사게 해주시려고 그리도 심혈을 기울여 오시였습니다. 때문에 대흥단은 웅당 공산주의의 문어구에 제일 먼저 들어서야 합니다. 우선 대흥단을 종합적기체화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대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난 어제 사진을 찍을 때 동무의 부러워 하는 눈빛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장 사진을 함께 찍고 싶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얼굴에 검버섯이 돋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마음이 편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부터 추켜 세워야겠다고...건강

한 몸으로 일을 더 잘해서 대흥단에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우리 제대군인들에게 문화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었을 때, 갑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고 살 근심걱정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백두산을 배경으로 멋 있게 한장 찍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수령님 앞에 뗏뗏이 설수 있게 해주자고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순간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도는것을 어찌지 못했다. 두눈에 가득 고여 올랐던 눈물이 마침내 랑불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군님의 사랑의 그 폭과 깊이를 자기로서는 도저히 가늠할수가 없었다. 더구나 어제 남철이네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얼핏 자기의 얼굴에 스쳤을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보시며 그처럼 웅심깊은 생각을 하시였을줄은 상상도 못했던 덕삼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나이많은 전사에게 세월을, 청춘을 다시 안겨 주고 계시는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자기를 주체못해 자꾸만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는 리덕삼의 손을 뜨겁게 잡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에게겐 절대로 쓰러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건설해서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로고를 바쳐 오신것은 바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그리도 마음쓰신것도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산에서 싸우실 때 조국땅에 나왔다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신것이 가슴에 맺혀 두고두고 말씀하곤 하시였습니다. 해방된 직후에는 나라살림살이가 펴이지 못하여 사람들이 아직 옷도 변변히 못입고 짚신도 벗지 못하고 있는것이 너무 가슴아프시여 우리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오죽하면 평양방직공장에 나가시였을 때 인민들이 입을 옷감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것을 보면 평생소원이 풀릴것 같다고 그렇게도 절절히 말씀하시였겠습니까. 전우들이 옷감을 가져다 주어도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게 될 때 같이 해입자고 하시면서...도로 인민들에게 돌려 주시고 자신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새옷 한벌 입지 못하시였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인민인데...

정말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까지,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까지 다 합쳐 우리 인민을 사랑해주고 우리 인민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동무들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은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뜨거운 사랑의 세계앞에서 할말도 잇는 모양이었다. 덕삼은 그저 《장군님!》 이 한마디를 목메여 불렀을뿐이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장군님

의 그 사랑이 어디에 시원을 둔것인지 이제야 어렵게나마 알게 되었던것이다. 장군님 사랑의 그 폭과 깊이, 그 뜨거움과 위대함을 알기에는 자기의 심장이 너무도 작았다.

문득 어제 대흥단에서, 이제 가야 할 길이 2천리가 아니라 2만리라 해도 제대군인들을 만나보고 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가슴속으로 파도쳐 들어와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심장을 광광 울려 주었다.

그렇다,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랑을 지닌분이시기에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밤길 수천 수만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몇천 몇만밤을 꼬박 새우시면서도 웃으며 가시는것이 아닌가.

아, 복반은 인민이여! 복반은 조선이여!

덕삼이 심장이 터져 나갈듯한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몸을 궁깃거리는데 장군님께서 다시 손을 꼭 잡아 주시였다.

《덕삼동무, 다른 생각 말고 함께 잡시다.

그리고...참 덕삼동무와 한가지 토론허할것이 있는데...내 어제 정녀동무에게서 아주 심중한 부탁을 하나 받았습시다.》

장군님의 이 뜻밖의 말씀에 덕삼은 놀라서 격정으로 한껏 붉어 진 얼굴을 들었다. 그러는 덕삼의 눈앞에 어제 가족사진을 찍고나서 장군님께 귀속말로 제 남편도 못들게 소곤거리던 정녀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수집어하면서도 행복감으로 빨개졌던 그 얼굴...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도 호탕하게 웃으시였지만... 그 이후부터 장군님께서 때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던 모습도...

그처럼 궁금했던 귀속말사연이 그럼 그렇게도 심중한 부탁이었던 말인가.

어쩌면 무덤하게도 장군님께 그런...

덕삼은 순간에 얼굴빛이 굳어졌다. 바싹 긴장해졌다.

그런데 심중한 부탁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장군님께서서는 긴장해진 덕삼을 보며 빙그레 웃으시였다.

《그렇게 긴장할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제 정녀동무가 부끄러워 하면서 귀속말로 소곤 소곤 하는 말이 글썽 녀달만 있으면 애기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 달라는겁니다. 이름이야 애기아버지가 지어야지 하고 말하니까 눈물까지 글썽해서 조르는데...허허허, 아무래도 하나 지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좀 생각해 보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대흥>이라 짓구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 하는게 어떨가 하구... 좋기는 아들 딸쌍둥이를 낳으면 더 리상적인데...허허허, 덕삼동무생각엔 어떻게습니까? 그 이름이...》

덕삼은 너무도 큰 충격에 아무 말씀도 드릴수가 없었다. 그저 꼭-하는 소리를 내어 고개를 외로 돌리고 말았다. 이럴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할수 있는

말을 그는 70이 다 되도록 아직 배워두지 못했던 것이다. 배워둘수도 없었다. 세상에는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뜨겁고 이처럼 세심한 사랑을 청송할 만한 그런 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그때부터 때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었구나. 어쩌면 한 이름없는 녀성의 그런 무엄한 부탁을 그리도 깊이 새겨 안으시고...하는 생각만이 입안 가득 불물 같은것을 자꾸 퍼올릴뿐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흥분하신듯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몇걸음 거닐다가 두손을 허리에 얹고 멀리 대홍단쪽 하늘을 바라보시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홍단에 우리 애기들이, 우리 대홍단의 미래가 태어난다는게...난 지금 그애들의 캐드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습니다. 덕삼동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도 만족하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순간 덕삼은 자기가 금시 갱소년한듯한 환희의 감정을 억제 못하며 흥분해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저도 막...20년은 젊어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아주 좋습니다. 덕삼동무가 그렇다니 정말 기쁩니다. 덕삼동무, 우리 힘을 합쳐 대홍단을 본때있게 꾸려 봅시다. 백두대지에 기계소리, 노래소리, 웃음

소리가 꼭 차흐르게 합시다. 홍단벌엔 감자가 폭포처럼 쏟아 지게 하고, 산기슭마다엔 멧쟁이 살림집들과... 산원도 짓고, 감자가공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식료공장들과 발전소, 목장들도 더 건설하고 철길도 놓고...세상에서 제일 살기좋은 락원으로 꾸립시다. 그렇게 대홍단을 앞세우면서 온 나라를 대홍단처럼 만듭시다....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바로 그런 공산주의리상촌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아, 아,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우리 수령님과 어머니의 사랑까지 한몸에 다 지니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정녕 얼마나 밝고 창창한 우리의 앞날이 펼쳐 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머지 않아 그런 공산주의리상촌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저에겐 벌써 그날이 보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래일이...)

덕삼은 이렇게 목청껏 웨치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며 장군님께서 바라보시는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덕삼은 그만 황홀경에 휩싸이고 말았다.

저 멀리 백두대지, 대홍단쪽하늘에서 피여 오른 아침노을은 점점 아름답게, 장엄하게 불 타면서 온 누리에 퍼져 가고 있었다.

명언해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이 많이 나올수 있는 바탕으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예술작품은 시대의 산물이다. 위대한 투쟁이 벌어 지는 위대한 시대는 인민대중을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킬수 있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요구한다. 한편 위대한 투쟁, 위대한

시대는 경이적인 사변들로 문학예술의 형상원천을 비상이 풍부히 해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인것으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면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 있게 불러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한다.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

장형준

주체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 모두의 정치적생명의 어머니이다. 이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며 살며 창작하는 여기에 로동당시대 작가들의 무한한 행복과 보람이 있다. 우리 작가들은 누구나 다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살며 창작하고 있지만 한생이 총화될 때 어떤 작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어머니당의 믿음과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받아 안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력적으로 창작하였는가 하는것과 주로 관련된다.

백인준은 50여년의 짧지 않은 작가적생애에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을 누구보다도 심장에 뜨겁게 받아 안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생활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정열적으로 사색하며 분초를 다투어 쓰고 또 써서 기념비적명작들을 수많은 내놓은 세계적인 대문호, 우리 시대의 참된 작가였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작가도 받아 본적 없는 높은 평가를 받아 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8(1999)년 5월 12일 작고한 백인준의 부인이 올린 편지를 받아 보시고 백인준동지는 우리당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인간이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전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높은 영예가 또 있으랴. 평범한 한 작가에게 그렇듯 높은 평가가 주어 진것은 력사에 없는 일이다. 그 은정어린 말씀에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던 백인준의 인간적면모와 세계적인 대문호로서의 작가적면모가 종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짧은 지면에 그의 인간적면모까지 다 서술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그의 창작과 작가적성장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창작의 세계, 작가의 모습

오늘 작가 백인준이 세계적인 대문호로 불리우고 있는것은 그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심오하게 반영한 기념비적명작들을 수많은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우리 수령님께서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김일성시대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시고 혁명하는 여기에 그 시대적본질과 우리 인민

의 끝 없는 영광과 행복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 작가들은 조국이 해방된 직후부터 수령형상작품창작에 충성의 열정을 기울여 왔으며 그 첫 대렬에는 한설야, 리찬, 조기천과 함께 백인준도 서 있었다.

작가 백인준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칭송하며 우리 주체문학의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의 작가적생애는 수령송가창작으로 시작되고 수령송가창작으로 마무리된 영광스러운 한생이었다.

그가 창작한 첫 수령송시는 《김일성장군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그대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이었다. 시인은 이 송시에서 김일성장군을 우리의 태양이라고 높이 칭송하며 그 근거를 시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였다. 그것은 우선 《한여름 작열한 양광을 향하여/온 누리가 생명을 뻗치듯》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향하여 환호하기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저 밀림속 하늘을 덮는 어둠속에서도/해빛은 한결같이 생명을 길러 꽃을 가꾸듯이》 그이는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 투쟁의 해불을 높이 드시고 조국을 지켜 20성상민족의 피출을 이어 오신 장군이시기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창공에 솟은 일륜이/ 압록강 흘러 내리는 길을 밝히고/ 이 땅의 산줄기를 세계에 전하듯이》 수령님께서 3천만의 앞길을 밝히고 세계를 향하여 웨치시기때문이었다. 시인은 이처럼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시는 수령님의 인민적품모, 항일혁명투쟁으로 조국을 해방하신 그이의 력사적공적, 조선혁명을 이끄시며 세계에 그 이름 떨치시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양광》, 《해빛》, 《일륜》등에 비하여 밝고 장엄하게 노래하며 그이를 인민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오늘이 아니라 50여년전의 그때에 우리 수령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노래한 여기에 이 송시의 예술적가치와 빛나는 의의가 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맞으며 창작한 송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에서도 그이를 위대한 태양, 인민조선의 창건자,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 탁월한 령장, 영웅조선의 대표자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며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나의 조국이며
나의 당!
스승이시며
동지!

행복이며
생활!
어버이이시며
수령!
김일성!
그이를 불러
영광을 드리노라
자랑하노라!

이 짧은 시행들과 시구, 그 격정적인 운율과 호흡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수령으로, 스승으로 동지로서,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인민과 시인 자신의 무한한 행복과 영광,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랑이 얼마나 세차게 굽어치고 있는 것인가!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한 송시들도 많이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40돐을 맞으며 창작한 그의 송시 《향도의 별》은 그의 위대한 품도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노래한 작품이다. 시인이 첫 송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노래하였다면 이 송시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대한 주체의 향도성으로 노래하고 있다.

아! 위대한 주체의 향도성
그이 **김정일** 동지 계시여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고
혁명의 미래는 창창하나니

시인은 이처럼 송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랑과 기쁨, 그이 계시기에 태양의 력사, 수령님의 력사는 영원무궁하고 혁명의 미래, **김일성**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확신과 신념을 힘 있게 노래하였다. 이 송시에서 특징적인것은 시의 세계가 숭고하고 웅장하며 그 정서의 열도가 높고 강렬한것이다. 이것은 이 송시뿐만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한 그 거대한 력사적사변을 노래한 《력사의 날에》를 비롯한 그의 모든 송시, 송가들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양상적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돐을 맞이하는 새해 첫 아침에 수령님께 드린 충성의 송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 자신의 개성의 발현으로만 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시인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에 옮기면서 그의 열렬한 충성심과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라시는 그 절절한 감정까지도 그대로 구현하여 시의 세계를 무한히 숭고하고 장엄하게 그리고 그 정서를 비상히 뜨겁고 강렬하게 시화하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사상과 감정, 정서를 빛나게 구현한것으로 하여 이 송가가 것처럼 세상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것이다.

백인준은 이밖에도 인민들이 사랑하는 송가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전사의 념원》, 《오직 한마음》, 《끝 없는 이 행복 노래 부르네》, 《그이 따라 나갈 때》,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등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을 뜨겁게 노래한 명가사들이다.

백인준은 송시, 송가창작에서뿐만아니라 수령형상 영화문학창작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첫 혁명영화 《누리에 붙는 불》의 영화문학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고 혁명영화 《민족의 태양》(제1부, 5부)의 영화문학도 성과적으로 창작하였다.

그는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형상한 영화문학창작에서도 영예로운 선구자가 되었다. 영화문학 《마을사람들속에서》를 비롯하여 《친위전사》,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미래를 꽃피우는 사랑》 등에서 작가는 항일의 녀성영웅을 수령에 대한 열렬한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애를 지니신 공산주의운동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혁명적인 주체형의 혁명가의 최고의 전형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형상한 영화문학 《푸른 소나무》, 《려명》도 창작하여 조선혁명의 새벽길이 어떻게 개척되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 주었다.

백인준의 작가적모습은 수령형상과 함께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그의 업적에서 또한 잘 나타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가지 문학예술형태에 옮기는 방법으로 주체문학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도록 작가, 예술인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그 앞장에 백인준을 내세워 주시었다.

백인준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 안고 그의 지도밑에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영화문학으로 각색하고 《피바다》와 《꽃 파는 처녀》를 가극대본으로 재현하며 혁명연극 《성황당》을 원작 그대로 교증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놀았다.

오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주체시대 혁명적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빛나고 1970년대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 지고 주체적인 혁명영화의 시원과 《피바다》식혁명가극, 《성황당》

식혁명연극의 새로운 장이 펼쳐 지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현명한 정도의 결과이다. 여기에는 그의 사상과 정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창작적열정을 기울인 백인준의 노력도 깃들여 있다.

백인준은 문학의 여러 형태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한 다재다능한 작가였다.

그는 문학에 뜻을 둘 때부터 시인이 될것을 꿈꾸어 왔고 창작의 첫 시작에서부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시창작에 깡그리 심혼을 바쳐 많은 명시, 명가사들을 창작한 관록 있는 시인이었다. 그는 시집만 해도 4권을 내었는데 매 시집에는 시인의 행로와 시세계, 그의 시적재능과 개성적얼굴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해방의 감격과 새 조국 건설에 들끓고 있던 그때 20대의 청년시인은 과연 그 현실에서 무엇을 느끼고 누구를 위하여 시를 썼던가?

주체36(1947)년에 출판된 백인준의 첫 시집 《인민의 노래》는 이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있다. 그 시기에 그는 벌써 혁명적수령관에 확고히 서서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였고 (시 《그대를 불러 우리의 태양이라 노래함은》에서) 우리 당을 인민의 바다라고 노래하며(시 《인민의 바다》에서) 당은 나의 자랑, 당은 나의 행복, 당은 나의 생명이라고 심장으로 웨쳤다. 그때 그는 인민을 위하여 시를 쓰고 시가 인민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투철한 인민적시학관을 가지고 있었다. 시 《나의 노래는 인민의 노래》가 보여 주는바와 같이 그의 노래는 백작부인을 위하여 쓴것도 아니고 시인을 위하여 쓴것도 아닌 인민의 노래였다. 그것은 《기쁨손 칠송이》, 《실 뽕기 잘하는 이쁜이》, 《밭 갈기 좋아하는 복동이》 글을 위하여 쓴 것이었고 그들에게 읽히우는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었다. 이 첫 시집의 모든 시편들은 그가 수령에 대한 숭배심과 정론적기백이 강한 열정적인 송가시인, 열렬한 당의 가수, 참된 인민의 시인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쓴 시들을 묶은 그의 두번째 시집 《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그의 이러한 시인적풍모와 개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전화의 나날에 창작된 백인준의 시문학에서 특징적인것은 우리 인민의 승리의 신심과 락관, 싸우는 전사의 영예와 긍지, 미제에 대한 규탄과 단죄의 기백이었다. 이러한 전투적기백은 《소박한 사람들의 목소리》, 《잊지 말라 그대들이여》를 비롯한 그 모든 시편들에 힘 있게 맥박치고 있다.

침략자 미제에 대한 규탄과 단죄의 기백은 전후에 창작된 그의 시가들에서도 강렬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주체50(1961)년에 출판된 그의 세번째시

집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이것을 웅변적으로 확증하여 준다. 그 시편들가운데서도 풍자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이 시인의 가장 우수한 대표작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걸작이다.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아메리카는
그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미국의 대통령이며 국무장관, 《유엔》연단에서 연설하는 미국대표도, 아메리카 《신사》들도 다 홀딱 벌거벗었다니 이 얼마나 망측하고 우습강스러운 회극적인 불골들인가. 풍자시는 이렇게 미제를 야유하고 조소하면서 미국을 통채로 《라체의 왕국》으로 회화하고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예리한 풍자의 채찍으로 미제의 면상을 신랄하고 통쾌하게 후려 같긴 이 한편의 풍자시만으로도 백인준은 세계적인 시인으로 손 꼽힐만 하다.

이 유명한 풍자시의외에도 그는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 《월가의 <관병식>》과 같이 원썩들을 뽕뽕 때린 사상예술성이 높은 풍자시들을 많이 썼다. 그러므로 그는 풍자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 시대의 명망 높은 풍자시인이었다.

주체82(1993)년에 출판된 백인준의 네번째 시집인 《백인준시선집》은 그의 50년간의 시창작을 총화한 작품집이다. 이 시집을 읽으며 독자들은 누구나 그의 시세계가 대단히 폭 넓고 심오하며 시형식과 양상이 또한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데 경탄하게 된다. 이 시집과 그후의 시작품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그의 시작품들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송가를 비롯하여 조국찬가, 인민군대에 대한 시가와 로동가요도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노래한 시가도 있으며 원썩들을 웃음으로 타매한 뽕뽕 풍자시와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노래한 낭만적인 서정시도 있고 조국산천에 대한 아름다운 서정시와 시의 사명과 시인의 본분을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백인준은 송시, 서정시, 서사시, 장시, 시초, 담시, 산문시, 풍자시, 가사 등 시문학의 모든 형태와 다양한 양상의 시작품들을 능숙하게 창작한 서정이 풍부하고 지성도가 높은 재능있는 시인이었다. 그의 시문학에 대하여 말할 때 첫째로, 당과 수령을 노래한 송시, 송가와 아울러 원썩들을 폭로규탄한 풍자시를 꼽아야 하겠지만 그는 정론적인 시도 잘 쓰고 주옥 같은 서정시들을 창작한 다정다감한 서정시인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시세계는 바다같이 넓고 깊으며 산악같이 웅장하고 숭엄하며 폭포같이 우렁차고 거세차며 비단같이 섬세하고 아름다운것이다.

백인준은 관록 있는 극작가였다. 그가 처음으로 창작한 극작품은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장막희곡 《묘향산맥》이었다. 주체36(1947)년 5월에 국립극장무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당시 관객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50년대 중엽에 장막희곡 《최학신의 일가》와 《금소방울소리 들에 울린다》를 창작한데 이어 1960년대에도 많은 장막희곡을 무대에 올렸다. 이러한 극문학창작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원작 그대로 고증할수 있었던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사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그는 주체의 극문학건설과 연극예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재능 있는 극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백인준은 영화문학창작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낸 저명한 작가이다. 그가 영화문학을 창작하기 시작한것은 1960년대초였다. 그는 예술영화 《새봄》과 《끝없어라 나의 희망》의 영화문학을 성과적으로 창작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영화문학 《성장의 길에서》(1, 2부)와 《최학신의 일가》를 기념비적명작으로 완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그의 창작에서 새로운 전환과 비약을 가져 왔다. 이것은 수령형상영화문학창작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각색 그리고 《금희와 은희의 운명》, 《영원한 전우》 등의 영화문학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그는 이 분야에서 커다란 창작적 성과를 쌓은 세계적인 영화문학작가였다.

백인준은 가극문학창작에서도 뛰어 난 재능을 발휘하였다. 그는 주체51(1962)년에 장막민족가극 《붉게 피는 꽃》의 대본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련이어 장막가극대본 《비단섬의 노래》를 창작하였다. 가극문학작가로서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보람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의 가극대본을 원작 그대로 빛나게 고증한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그는 이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가극 《틸림아 이야기하라》의 대본개작과 민족가극 《춘향전》과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의 대본창작에도 참가하여 작품들을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가극예술발전과 무대예술의 혁신에 힘있게 기여한것으로 하며 그는 가극문학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작가로 되었다.

백인준은 재능있는 시인이고 극작가, 뛰어난 영화문학작가, 가극문학작가였을뿐아니라 전투적인 평론가이기도 하였다. 그는 해방후 맨 선참으로 일제사상잔재와 반동적문예사상을 반대하여 평필을 높이 들고 시집 《응향》의 반동성을 날카롭게 분석비판한 평론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하여야 할것이다》(《로동신문》 주체35(1946)년 12월 25일)를 잘 써서 발표하였다. 또한 일부 작가들과

평론가들속에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터무니없이 헐뜯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을 때 서사시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전면적으로 옹호분석한 평론 《북조선문단의 새로운 수확》을 써서 당보에 발표하였다. 이 평론들은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건결히 옹호하고 문학예술을 옳바로 선도하는 당적평론의 본보기였다. 이처럼 백인준은 당적평론의 앞장에 선 선구자였다.

돌이켜 보면 해방후 당과 수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재능 있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가. 리기영, 한설야, 송영, 박세영, 박팔양, 리찬, 조령출을 비롯한 오랜 작가들과 조기천, 천세봉, 석운기, 변희근, 김상오, 리종순 등 새로 자라난 저명한 작가들의 이름을 꼽자면 끝이 없다. 그들은 모두 문학의 한 형태나 두 형태에서 명작을 창작한 작가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중에 백인준처럼 시, 영화문학, 희곡, 가극문학, 평론 등 문학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명작을 창작한 그런 다재다능한 작가는 없었다.

세계적인 문호가운데는 고리끼나 유고와 같이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희곡도 쓰고 평론도 쓴 다재다능한 작가들이 없지 않으나 백인준처럼 혁명적수령관에 확고히 서서 수령형상을 빛나게 창조하고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문학예술혁명의 선두에 서서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혁신시키며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20세기 문예부흥》을 안아 오는데 이바지한 그런 세계적인 대문호, 이렇게 다재다능한 작가가 언제 어디에 또 있었는가?

작가 백인준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의 운명문제를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한 20세기의 세계적인 대문호이다.

작가 백인준은 세계적인 대문호일뿐아니라 유능한 문학예술지도일군이였다. 해방직후 당중앙위원회 선전부 정치문화과 과원으로 사업할 때부터 그는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주체 35(1946)년 7월초에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선전부의 주관밑에 민족문화건설로선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연구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백인준은 그 준비로부터 진행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역사적인 모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날 모임이 끝난 다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작가, 예술인들이 찍은 기념사진, 그들이 받아 안은 이 영광스러운 첫 사진도 그가 가보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서 력사에 남아 있는것이다.

해방직후 문단에 아직 이름도 없던 그가 평론의 앞장에 섰던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문예정책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도일군으로서의 높은 책임감때문이었다. 시 《시인들에게 보내는 전투명령 제1호》(1948년)를 보아도 그가 당시 당과 수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시문학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심장을 뜨겁게 불태웠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백인준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특히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 나자 서울에 나가 전선지구 경비사령부에서 문화선전사업을 맡아 보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300여명의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을 집결시켜 전선지구 경비사령부협주단을 조직하여 그들의 공연을 잘 도와 주었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자 그들이 다 38선을 넘어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가게 하였다.

남조선에서 온 작가, 예술인들이 오늘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며 창조사업을 보람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인준의 전시활동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백인준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 앞장 섰다.

이 시기 책임적지위에 앉아 있던 반당분자들은 영화예술에 대한 지도권을 쥐려는 음흉한 기도밑에 영화창조과정에 분수없이 간섭하며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에 작가가 쓴 주제가 대신 자기가 쓴 가사를 넣으라고 강박하기도 하고 동훈을 죽이는 문제를 놓고 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때 백인준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쓴 주제를 그냥 두고 동훈이 죽는것으로 처리하였다. 만일 그때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가 없었더라면 창작가, 예술인들은 반당분자들의 간섭에 말려들어 영화를 완성하지 못하였을것이며 설사 완성한다고 하여도 성과작으로는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백인준은 실지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하면 그것이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길이고 우리 당을 따라 나가는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앞장에 섰던것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는 자기의 실천적모범으로 백두산창작단을 당의 유일사상체제가 확고히 선 창작가, 예술인들의 집단으로 튼튼히 꾸려 나갔다. 그리고 그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학예술운동을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힘 있게 밀고 나가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안아 오고 빛내이는데 힘 있게 이바지하

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붓으로, 실력으로 받들고 《20세기 문예부흥》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작가, 일군이 바로 백인준이었다.

작가 백인준은 문학예술부문의 유능한 지도일군인 동시에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이기도 하였다. 백인준은 주체35(1946)년 여름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였으니 그는 작가이기전에 당일군이였다. 그러므로 그는 당일군경력으로서도 가장 오랜 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과장, 문화선전성 선전국장을 할 때 그는 강연제강과 교양자료도 잘 쓰고 고사론설들도 하루밤사이에 솜씨 있게 쓴 쟁쟁한 선전일군이였다. 그가 문학적으로는 물론 정치사상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일군이였기에 당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으로서 사회정치활동을 힘 있게 벌려 나라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문학예술지도일군, 사회정치활동가로서도 그는 어느 작가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실적을 많이 낸 정력적이고 헌신적인 일군이였다.

래양의 품, 스승의 손길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백인준은 아직 작가가 아니였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되여 세계적인 대문호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에게 남다른 선전적재능이나 뛰어난 작가적기질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두분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 현명한 지도를 받았기때문이었다.

백인준은 이에 대하여 어느 한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를 당의 작가로 키워 주고 자라게 해준 따뜻한 햇빛과 풍요한 대지, 맑은 물, 갖가지 영양소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품이였고 영명하신 지도와 사랑의 손길이였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과 따뜻한 지도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는 어떤 운명에 처했을지 모를 그러한 인간이였다. 백인준은 평북도와 자강도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깊은 산간지대인 운산군 위연면 우산동(오늘의 영웅리)에서 주체9(1920)년 10월 27일 화전민 백남훈의 아들로 태어난 시골동이였다. 고향에서 사립학교를 마친 그는 친척들의 도움으로 평양에 중학교를 다니고 후에 안해가 된 조복녀의 경제적방조로 서울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릿교대학에서 철학공부를 하며 문학도 공부하였다. 이 시기 그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문학에 비한 열망은 높았으나 계

급과 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부르조아적민족주의와 예술지상주의, 막연한 인도주의와 관념론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었다. 대학을 마치고 장차 작가가 되려던 그의 푸른 꿈은 일제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 그는 《학도병》으로 중국 서주지방에 끌려 나가 왜놈들의 총알받이노릇을 강요 당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4월말에야 그리운 조국땅에 돌아올수 있었다. 그가 상해에서 귀국선을 타고 부산에 올라 서울에 이르렀을 때 미군이 강점한 그곳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험악하였으며 북에 대한 악선전도 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인테리는 북에 가면 마구 죽인다고까지 하면서 서울에 그냥 남아있을것을 권고하고 회유와 강박도 하였다. 그때 그에게는 아무런 정치적신견과 신념도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운명의 기로에선 그에게 힘이 된것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어 민주정치를 펴신다는 격동적인 소식이었다. 그 소식을 듣자 그에게는 문득 잡지 《삼천리》(1937년 10월호)에서 보았던 **《김일성 회견》**이라는 실화기사가 생각났고 보천보 전투소식에 피가 끓던 그 벽찬 감격이 되살아 났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 남으라는 권고와 회유, 협박까지도 다 물리치고 결연히 북행길을 택하였다.

38선을 넘어 5월 1일 평양에 온 그는 인차 고향에 가서 그리운 부모처자와 만났다. 그가 새 생활이 약속하는 북반부에 온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썩도 티우지 못할 연약한 씨앗, 그것도 관념철학과 예술지상주의의 진흙탕속에 파묻혀 영영 썩고 말 운명이었던 그 생명이 다행히도 위대한 태양의 품, 북반부의 대지에 안겨 푸르싱싱하게 자라날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욱 다행스러웠던것은 그가 북반부에 온지 두달도 못되어 북조선공산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정치문화과 과원이 된것이었다.

서주에 있을 때 백인준은 그곳에 온 《상해임시정부》계통의 《광복군》이 사람들을 마구 테로하고 거류민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부화방랑한 생활을 하는것을 목격하고 끓어 오르는 분노와 의분을 참을길 없었다. 그러기에는 그는 귀국하자 곧 《광복군》의 정체를 폭로하는 장문의 시사론평을 써서 《박춘일》이라는 가명으로 당기관지 《정로》에 기고하였다. 풍부한 사실자료와 그에 대한 예리한 분석, 강렬한 정론적기백으로 《광복군》의 죄상을 여러모로 적라라하게 발가 낸 이 글은 당보에 련재되어 사회적주목을 끌었다. 그후 당의 사상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으로 아직 무장하지 못하였던 그에게 커다란 행운이 차레졌다. 그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면서 그의 위대성을 직접 체득할수 있는 남다른 특전을 지니게 되었다.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기 시작한지 며칠 안되던 그해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천막을 친 청사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식사가 매우 소박한데 놀랐다. 납작보리밥에 짬 고등어 한토막과 국 한그릇이 전부였던것이다. 식량사정이 곤란한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중앙위원회 식당인데 식사가 너무 간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저쪽 식탁에서 일군들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도 자기들과 꼭 같은데 더욱 놀랐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고 생각하면서 그는 수령님께 이런 식사를 올리 는 일군들에 대하여 고깝게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식사후에 이런 심정을 동무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수령님께서 식사를 따로 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댁에서도 그와 같이 검소한 잡곡밥식사를 하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날 그는 강한 충격과 깊은 감명을 받았다. 새 조국 건설의 첫날부터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건국사업에 헌신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품모는 그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이렇게 그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며 비로소 민족의 진로와 애국의 길을 찾고 혁명적세계관으로 점차 무장하게 되었다.

백인준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사상이나 리론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알아서 이 길을 따라 선것이 아니라 먼저 **김일성**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에 인간적으로 매혹되어 우러러 흠모하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을 따르려는 결심이 생겼던것이다. 그리하여 오로지 한분 경애하는 수령님만을 믿고 모시고 사업하는 과정에 수령님의 위대성을 자신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주체적인 건국로선과 당정책을 연구학습하면서 혁명리론도 배우고 점차 혁명적세계관도 서게 되었다.》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사업한것은 그의 정치사상생활에서는 물론 문학창작에서도 새로운 출발로 되었다. 그에게는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 전문학교때부터 한편한편 창작해 둔 수십편의 시원고가 있었다. 그는 이 시들을 한권의 시집으로 출판할 그날을 기다리며 삼엄한 일제의 눈을 피해 소중히 간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터득하면서 그는 그 시들이 새 시대의 시대감정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통절히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낡은 사회의 시대감정과 단호히 결별하고 백지상태에서 수령님을 따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그 원고몽치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불살라 버렸다.

이때부터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당적안목으로 우리 인민의 기상과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한 새로운 시들을 창작하였으며 그리하여 한편의 시집을 묶을수 있게 되었다. 그가 조국해방 2돐을 맞이하면서 시집을 출판하려고 출판사에 원고를 가져 갔으나 개인시집을 낼만한 차례가 못된다는 리유로 거절당하였다. 사실 그때에는 기성시인들도 아직 개인시집을 다 내지 못하고 있었으니 20대의 무명시인의 개인시집을 내어 주려고 할리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시집을 당출판사에서 내어 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 당문헌과 정치도서만을 발간하는 당출판사에서 시집을 출판한다는것은 출판력사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성판례에 조금도 구애되지 않으시고 문학의 새싹들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무해 주시기 위하여 백인준의 시집 《인민의 노래》와 청년학생들이 쓴 시집 《꽃피는 조국》을 당출판사에서 내도록 하여 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인준의 첫 시집을 출판하도록 배려하여 주시였을뿐아니라 그 시집이 나오자 친히 읽어 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교시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백인준의 가슴은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용암처럼 끓어번졌다. 이런 대해 같은 믿음과 사랑에 고무되어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유일한 창작적지침으로, 철석 같은 신념으로 삼고 더욱 신심과 열정에 넘쳐 작품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므로 해방당시 갈 길조차 모르던 한 지식청년이 당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재능 있는 시인으로, 세계적인 대문호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첫 출발에서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 안았기때문이었다.

백인준에게 있어서 행운중의 행운은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또 한분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품에 안겨 그이의 극진한 믿음과 사랑, 천재적 예지와 현명한 지도를 받으며 살며 창작한것이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을 지도하시면서 백인준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그의 창작을 지도하여 주시였다.

창작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고 백인준의 행로에도 곡절이 있었다. 그는 문화선전성 국장으로 사업할 때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본의 아닌 파오도 범하였다. 이것은 너그럽게 용서 받았으나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된것은 그가 창작한 희곡이 무대에 오른 연극 《최학신의 일가》가 《반동작품》으로 낙인된것이었다. 주체44(1955)년에 공연된 이 작품은 관객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작가동맹의 일부 지도일꾼들은 긍정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할 사회주의적사실주

의문학에서 부정인물인 반동목사를 기본주인공으로 내세운것은 매우 엄중하다고 하면서 계급투쟁을 《부인》하고 《자본주의자멸설》을 선전한 《반동작품》이라고 하며 공연을 중지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백인준은 《반동작품》을 쓴 작가라는 루명을 쓰고 지방에 내려가 10년세월을 우울하게 지냈다.

이러한 그에게 변함 없는 믿음과 사랑을 주신 분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작가, 예술인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신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영화부문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를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1, 2부)에 대한 지도로부터 시작하시였다. 그래서 백인준은 그이께서 지도하신 첫 예술영화의 영화문학을 창작하는 커다란 영광과 행복을 받아 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반동작품》을 썼다는 작가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와 직접 무릎을 마주 하시고 영화문학과 영화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시였다. 그리하여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1, 2부)를 사상예술성이 높은 시대의 걸작으로 완성시켜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작가의 마음속 고민과 고충까지도 헤아리시여 10년전에 매장되었던 연극 《최학신의 일가》를 자신께서는 좋게 보았다고 하시며 영화문학으로 다시 써보라는 꿈에도 생각 못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시였다. 《반동작품》으로 낙인되어 있던 작품을 되살릴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으니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데 있겠는가!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낮에 밤을 이어 영화문학을 썼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부피 두터운 영화문학을 친히 보아 주시고 영화형상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였으며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영화를 만점짜리로 완성시켜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지도에 의하여 10년전에 매장되었던 작품이 되살아나 만사람의 찬탄을 받게 되자 연극에 붙었던 《반동작품》의 딱지와 작가에게 들썩워 졌던 루명도 벗겨지고 잃었던 작가의 명예까지도 회복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백인준을 재생시켜 주시였을뿐아니라 그후에도 정치적생명의 보호자가 되시여 늘 극진히 돌보아 주시였다.

백두산창작단이 조직될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영화문학창작사 작가였던 백인준은 백두산창작단에 가서 창작하라는 과업을 받고 거기에 갔다

가 한달도 못되어 되돌아 왔다. 그것은 그가 《학도병》출신이라는 리유에서였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편협한 일군의 처사를 되게 나무라시며 백인준을 친히 백두산창작단 작가로 임명해 주시고 얼마후에는 그에게 부단장, 단장의 중책까지도 맡겨 주시었다.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마음속에 한점 그늘도 없이 창작에 정진하며 활기있게 사업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인준을 문학예술혁명의 선두에 세워 주시고 영화혁명, 가극혁명, 연극혁명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놀도록 하시면서 기념비적명작들을 빛나게 창작하도록 손 잡아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속에서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백인준의 그 모든 작품은 어느 하나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것이 없다. 그가 시문학, 영화문학, 가극문학, 극문학에서 그처럼 커다란 창작적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어느 한 책에 이렇게 썼다.

《내가 쓴 모든 작품들, 시와 영화문학, 희곡과 가극, 가사들의 창작의 원동력, 그 매개 작품속에 담겨진 환상과 열정과 지혜의 원천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고매한 덕성과 현명한 령도에 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재적예지와 환상으로 작

품을 세계적인 걸작으로 만들어 주시고도 그 모든 성과와 영예를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려 주시었다. 그래서 백인준은 작가, 예술인들가운데서 첫 로력영웅, 첫 《김일성상》제관인, 첫 김일성훈장 수훈자로 되고 《조국통일상》을 수여받는 영광도 지니었다.

백인준의 심장은 자기에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었으며 그 크나큰 믿음과 은혜에 보답할 일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책상에서 글을 쓰다가 순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창작으로 보답하려고 몸을 운신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서도 사무실에 나가 시를 썼다. 그가 운명직전까지 쓰고 다듬어서 책상우에 유고로 남겨 놓은 작품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충성의 송가 《인민은 그품에 길이 살리라》였다.

이처럼 작가 백인준의 모든 사색, 모든 활동이다 장군님의 위대한 념, 그이의 아름다운 감정정서로 일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당대에 그처럼 기념비적명작의 탐을 높이 쌓아 올릴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작가들도 모두 백인준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직한 작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영광스러운 김정일시대에 우리 문학을 세계문학의 상상봉에 높이 올려 세워 강성대국건설에 돌진하는 우리 인민을 더욱 힘 있게 고무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 작가 백인준을 추억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또한 그가 우리에게 바라던것이라.

가사

고향과 병사

박두전

어릴적 뛰놀던 앞뜰의 시내물
추억의 물결로 이 가슴 적시네
초소에서 못잊어 그려 보는 내 고향
아 맑고맑은 시내물 이 가슴에 흐르네

집 떠날 때 프락가에 내가 심은 감나무
이제는 아지마다 열매가 주렁지리

초소에서 못잊어 그려 보는 내 고향
아 잎새 푸른 감나무 이 가슴에 설레네

언제나 못잊어 그리는 고향은
내 심장에 간직한 조국의 정든 모습
마음속에 고향을 안고 사는 병사는
아 조국의 한치 땅도 목숨 바쳐 지키리

달리고 또 달리자

백의선

《숨가쁘게 달리며 살자!》 이것은 내가 《문학》이 신기루처럼 보이던 시절, 그러니 결코 《탄탄한 대로가 아》 님을 자각하며 그 길을 지향해 나서던 애절한 시절에 마음속에 새겨부르던 말이다.

하루 4~5시간 자면 전진이요 그 이상 더 자면 후퇴라는 일과표를 팽팽히 짜놓고 문학수업에 미친듯이 열중하던 때였다.

아직도 내 마음은 시문학대오의 막내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덧 내 나이 50고개를 넘어 60나이의 중턱으로 오르고 있다.

나의 주위에는 선배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다.

요즘 나는 그날의 그 말을 자주 다시 새겨 부르는 한다. 그 의미와 뜻의 샘줄기는 다르다 할수 있겠지만 좋은 작품을 써보려고 인생마차에 채찍을 없는데서는 동일점이 있다.

90년대에 들어 와 나의 창작생활에 충격적인 사변이 크게 세번 있었다.

그 첫번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전체 작가들에게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신 때였고 두번째로는 나라의 최대 국상을 당하던 때이며 세번째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돌파하던 때였다.

시인들이 자기의 모든 심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향해 쏟아 부으며 창작의 붓을 달리던 시기였다.

나는 이 시기를 창작행정사업의 무거운 부담을 견머지고 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원고지우에 내 이름 석자를 쓰는 때의 그 《맞》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숨가쁘게 달리며 살았다는 그것으로 하여 시대앞에 랑심은 깨끗하다. 후회하지 않는다.

행정사업의 배낭을 벗어 놓고 주위를 살펴 보니 시문학의 1선 병사들이 렬을 지어 섰다. 모두다 젊고 생기발랄한 전우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실록을 이땅에 수놓아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붓을 총창처럼 비껴들고 따르며 혁명의 나팔소리를 울리는 그 1선에 나도 서고싶고 또 서야 한다는 그 책임감은 자신의 마음에 쉬임없이 채찍을 없게 한다.

《숨 가쁘게 달리며 살자!》...

그래서 시대의 명작으로 공인된 송년시 《잊을수 없어라 1998년이여》의 집제작에도 뛰여 들었고 장군님의 평가작들인 장시 《6월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송년시 《아름다운 추억의 해 1999년이여》 들을 써냈으며 숨 돌릴 틈도 없이 배낭을 지고 평양-남포 고속도로 청년건설자들속에 들어 가 류동호동무와 같이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를 창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서사시에 대해 문학사에 특기할 가장 높은 평가를 주시고 나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니 감개무량함은 말할수 없이 크고 어깨가 무거워 진다. 가슴속에는 창작적열정이 그냥 솟구쳐 오른다.

창작은 숨 가빠 달릴수록 힘이 점점 쇠진해 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왕성해 지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장군님께서 걸음걸음 손 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며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선군시대 문학의 첫 창조자의 대오속에 나도 서 있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과 행복이 또한 힘과 열정의 샘줄기로 되고 있다.

령도자와 작가가 오늘 우리처럼 그렇게 심장과 심장이 이어 지고 믿음과 의리로 가깝던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고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는가.

이것은 작가로서의 행운이며 인간으로서의 행운이 아닐수 없다.

30년이 가가와 오는 저의 변변치 못한 전문 창작생활을 돌켜 보면 얼굴이 뜨거워 짐을 금할수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의 명작으로 내세워준 저의 작품들을 보면 장시나 서사시이지 짧은 서정시는 없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신통한 서정시를 쓰지도 못하면서 20대 30대에 저는 장시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시인은 서정시를 쓰는 시인이려야 진짜 시인이라고만 인정하면서 또 시는 정교한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쏟아져 나오던 장시들을 력사개괄적인것, 사실라렬적인것, 산문적인것으로만 몰아 붙이면서 도외시 하거나 외면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 나가는 력사적과업을 수행해 나가던 그 시기 혁명앞에 심장을 내대고 시

대의 벽찬 숨결을 호흡하던 백인준, 정서춘, 오영재, 박호범 등 선배 시인들이 내놓은 좋은 장시와 서사시들에 눌리는 심장의 박동과 뜨거운 숨결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박동과 숨결이 없이는 좋은 서정시도 쓸수 없다는것이 나의 《시 체질》에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내가 발표한 작품들을 놓고 많은 시인들이 《손 재간을 부린다》, 《매끈은 한데 호흡이 크지 못하다》는 옳은 평가를 내렸다.

당시 나는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열정이 없이 《기교주의》로 나가고 있었다.

나는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쳤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려면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깊이있게 담아야 한다.》

위대한 스승의 품, 장군님의 품에서 나는 시를 다시 배웠으며 한걸음 두걸음 다시 걸음마를 떼었다. 그렇게 새 걸음을 옮기면서 쓴 장시 《우리의 궁지》가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편이여 장시 《하나의 대가정》이 또 장군님의 평가를 받는 작품이 되었다.

그때 나에게 용기를 주고 고임돌이 되어 주던 선배시인들을 잊을수 없다. 그들중 지금은 우리곁에 없는 시인들도 있고 한 창작실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시인들도 있다.

나는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과 피줄을 이은 심장에서만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담은 시, 시대를 선도하는 우렁찬 혁명의 나팔소리가 울려 나올수 있다는 진리를 새기게 되었으며 그것이 나의 시창작의 신념으로 억척같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선군시대문학의 첫 창조자의 한 성원이다.

가장 행복한 장군님의 시인이다.

시인들은 자신들을 《최고사령부의 종군시인》이라고 긍지높이 부르고 있다.

나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자격을 지닌다는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 사명을 다한다는것은 더더욱 수월치 않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어깨에 떠메시고 꼭잡

마져 제대로 쥐지 못하시면서 전선길을 가고 가시는 우리의 령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걸음걸음을 나도 꼭잡자며 숨가쁘게 따라 걸었는가?

심장이여, 네가 대답하라.

《종군시인》이라는 그 말을 너무 가볍게 부르지 말자.

못한 일은 너무도 많다.

해야 할 일로 어깨는 무겁다.

나는 두해전에 행정사업의 배낭을 벗어 놓고 현역시인의 배낭을 다시 걸머질 때 어느 한해를 서정시 창작의 해로 정하고 《나의 조국》과 《어머니》와 같은 명작을 써보리라는 결심도 있었다.

지상에 발표되는 서정시들중 《정치 직선적인것》, 《사실 라렬적인것》, 《설명적인것》들이 너무 많아 장군님의 뜻에 가닿지 못하고 또 서정시의 제 본도를 잃고 있는것만 같아 풍만한 결실로만 설레이어야 할 우리 시문학의 과원에 나의 땀이라도 짙그리, 진하게 바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한번은 우산장창작실에서 세계명시들과 우리 나라의 근대, 현대의 명시들을 독파하면서 특히는 조기천, 백인준, 리용악, 김순석, 김상오, 김조규... 등 선배 시인들의 열정, 감정, 사색과 기교를 우리 시대의 시문학 창조에서 더욱 승화시키고 발전시켜 봐야겠다는 저 하나의 훈수에는 맞지 않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찌 제 훈수에 맞지 않는다고만 할수있으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그 선배 시인들이야 다시 불러 올수 없지 않는가.

우리 시인들모두가 힘과 열정과 재능을 다 모아 그렇게 꼭 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새 세기가 시작된다.

백두산의 해돋이를 안고 들어설 21세기 새 행군길, 장군님의 걸음걸음을 따르는 그 길에서 심장이 뛰여라, 숨 가빠 달리고 또 달리자.

그렇게 뛰여 달리는 나의 인생에는 세월도 이끼를 엮지 못하리라. 주름살을 남기지 못하리라.

나는 반세기 나이가 넘어 섰지만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멀다.

열정은 샘 솟는다.

젊음은 넘친다.

시간이여, 앞으로!

나는 급보로!

당일군들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모두가 혁명전사의 값 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는 어머니당일군이 되자!

단편소설

결석대표

양해모

1

밤, 책임비서의 일과를 마감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김길천은 사무실에 돌아 와 하루동안에 제기된 문건들을 수표하기도 하고 자기의 하루 일을 돌이켜 보면서 새 결심을 다지기도 했다.

사색을 오래 할수 있는 시간, 찾아 오는 사람들도, 걸려 오는 전화들도 드물어 지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드바쁘게 보낸 하루의 피로를 풀며 래일의 새 일과를 위하여 정력을 가다듬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김길천은 한 문건을 앞에 놓고 격해 지는 마음을 스스로 다잡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참가시킬 대표들의 명단에 시공조직설계사업소의 한인국의 이름이 빠진것이었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주파유도로를 설계하고 그 시공을 책임졌던 기술자, 기업소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으면 첫번째로 불러 대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입원하고 있었다.

장흥발전소에 설치할 발전기를 설계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진 그를 기업소 병원에 실어 갔을 때에야 그의 몸에 중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너무나 믿고 싶지 않아 전화를 놓자마자 병원으로 달려 갔던 김길천이었다.

한인국, 그 무쇠 같은 사람의 몸에 어쩌면 그런 몸쓸 병이 생길수가 있는가고 흥분을 못 이기며 말하는 책임비서앞에 기술부원장 고승환은 두툼한 병력서를 펼치고 렌트겐투시와 초음파검진, 피검사결과들을 말해 주는 여러 장의 문서들을 침착하게 내보이는것이었다.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과학적인 검진결과앞에서는 김길천도 어쩔수가 없었다.

한인국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손이 잡히지 않아 때없이 전화를 걸기도 하고 퇴근길에 들러 보군 하던 그였다.

온 기업소적인 관심속에 있는 한인국이였지만 병은 나날이 악화되어 며칠전부터는 정신을 잃는 때가 잦아 졌다. 그럴수록 한인국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더 강렬해 졌다.

이런 생각을 더듬던 김길천은 송수화기를 들어

조직비서를 찾았다.

잠시후 조직비서 림승일이 책임비서의 방에 들어섰다. 김길천보다 나이가 10년 아래인 그는 모든 일을 리지적인 눈으로 보고 침착하게 처리하여 감성적이며 열정가인 책임비서와는 대조적인 일군이였다.

지금도 림승일은 책임비서가 권한의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직비서동무.》

단둘이 마주 앉아서는 늘 《림동무》라고 허물없이 부르던 김길천이 이렇게 지명을 앞에 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만이 있다는것을 예고해 주고있었다.

름름한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 이목구비가 준수하여 어느 예술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해도 손색이 없을 림승일은 술진 눈섭을 약간 쫓깃거리며 김길천에게 묻는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 추천할 대표들의 명단에 어떻게 되어 한인국동무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김길천의 이 물음에 림승일은 첫 순간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이였다.

《책임비서동지, 한인국의 병세가 매우 심합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생명이 이제 열흘을 더 넘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비서동무!》

김길천이 격한 어조로 림승일의 말을 중간에 끊어 버렸다. 그 전날에는 이런 일이 있어 본적이 없었다.

《한인국동무의 병이 심하다는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조직비서동무가 어쩌면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할수가 있습니까? 열흘... 아니요! 그럴수 없소. 한인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험하게 우리가 그를 잃어 버릴수 있단 말ियो?...》

김길천은 목이 메여서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마디만 더 하여도 터져 나오는 오열을 참을수가 없을것 같아서였다. 언제나 상대방을 면바로 보던 예리한 눈길이 초점을 잃고 갱빳한 얼굴 전체에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 졌다.

(아니 내가 왜 이다지도 마음이 여리어 지는가. 안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된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렸지만 조직비서의 입에서 나온 《열흘》이라는 그 불길한 수자와 함께 착잡하게 떠오르는 무서운 환영들을 털어 버리며 송수화기를 들어 병원을 찾았다.

기술부원장 고승환이 전화를 받았다.

《...환자에 대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란 진통제로 동통을 덜어 주며 생명을 하루이를 연장시키는것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들에게도 이제는 그대로 말해 주어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수화기에서 들려 오는 고승환의 말 역시 한민국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김길천은 그말을 끝까지 들을수 없었다.

《동무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소? 귀중한 동지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게 무슨 의사이고 당원인가 말이요?》

김길천의 목소리는 높아 졌다.

수화기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고승환은 침묵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로서의 견해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하고 있었다.

《한민국동무의 기분은 지금 어쨌소?》

침묵속에서 다시 자신을 다잡은 김길천이 송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물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면용지를 가져다 달라더니 기술원서들을 보겠단니 하며 요구가 많았는데 병이 위중해 진 오늘에는 모든것을 포기한것 같습니다.》

고승환의 대답이었다.

김길천은 송수화기를 든채 생각에 잠겼다. 한민국을 기어이 살려 내겠다고 나와야 할 고승환이까지 이제는 신심을 잃었던 말인가. 고승환은 기술부원장으로서의 비교적 나이가 젊은 40대이지만 탐구심이 높고 진단에서 실수가 없어 사람들의 한결같은 존경을 받을뿐아니라 김길천자신이 기업소의 자랑으로 여겨 오는 기술자, 전문가들중의 한 사람이었다.

얼마전 그의 소논문이 의학잡지에 실려 도안의 보건일군들속에서 그의 명성이 두드러졌을 때의 일을 김길천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논문이 학위론문의 수준이라고까지 격찬하였지만 김길천은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지 않았다. 더 좋게 얼마든지 쓸수 있는 고승환이 아닌가.

《동무는 논문에서 세계 최첨단 의학과학과 립상경험에 대한 실례를 지나치게 많이 열거하였는데 그에 비하여 필자가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해명은 빈약하오. 더우기 논문에서 언급된 소아과질병에 대한 고려의학치료경험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딱지만 떼다 말았소. 이젠 물론 전문가가 아닌 나의 의견이요.》

김길천의 말에 고승환은 아무 말도 못했다. 자기

론문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뜻밖이었던것이다.

《고승환동무,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있소. 동무도 알고 있지만 우리 합숙에서 생활하는 부모 없는 아이들중에는 일부 영양상태가 허약한 아이들이 지금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소.

우리 병원에 이미 기초가 마련되어 있는 고려약생산기지과 비타민생산설비들을 완비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양부족을 하루 빨리 극복 타개할수 없겠는가? 동무들이 지난 날에 하다가 그만 둔 항생제 제조소를 완성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치료에서 나라의 부담을 덜면서도 비약을 일으킬수 없겠는가.

나는 고동무가 현실이 해결을 기다리는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안고 치료와 연구사업도 이런 각도에서 심화시켰으면 하오.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지식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서 바라시는 문제가 아니겠소.》

책임비서의 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후 고승환은 고려약생산기지과 비타민생산설비, 항생제제조소를 완성하는데서 큰 몫을 하였다.

김길천은 고승환의 정열과 능력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였지만 그 앞에서는 만족을 표하지 않았다. 높은 요구성만이 고승환에게 유익한것이라고 인정해 왔기때문이었다.

지금도 김길천은 한민국의 건강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확신에 넘친 어조로 힘 주어 말하고 있다.

《고승환동무, 한민국동무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것은 당위원회가 동무와 병원의료집단에 주는 당적인 분공입니다. 기술부원장동무자신이 신심을 잃는다면 난 동무를 용서하지 못하겠소.》

김길천은 송수화기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 났다.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창문가로 다가서 철의 기지가 펼쳐 진 창밖에 눈길을 보냈다. 그의 머리속에서 지나간 나날의 일들이 생생히 되살아 오는것이였다.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첫 시기만 하여도 기업소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지난 날 나라의 크고 중요한 대상들을 건설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방척후대》, 《힘 있는 건설부대》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기업소였지만 사정이 달라 졌다.

자력갱생기지들이 돌아 가지 못하고 식량난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었다.

김길천은 기업소안의 기술자들이 모인데서 말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경제적<봉쇄>로 우리를 질식시킬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까지 몇해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하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동무들도 어제 밤 TV 화면에서 전연구분대를 찾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 지고 배짱이 생깁니까. 인민군전사들이 총대로 지키고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우리는 경제건설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기술자동무들, 열쇠는 동무들에게 있습니다...》

기술자들속에서는 수십가지 혁신안들이 나왔다.

그중의 하나가 한민국이 설계하고 그 시공을 책임진 저주파유도로였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숨 죽었던 자력갱생기지들이 되살아 나고 종업원들의 식량공급도 자체로 해결할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설계에 반영된 철심자재인 0.3mm 규격계 구조강판은 그 어데도 없었다. 자재상사일군들이 온 나라를 찾아 헤매이면서도 빈손으로 돌아 오지 않을수 없었다.

한민국이 책임비서의 방에 뛰어 들어 울분을 토한것이 이때였다. 한밤중, 평시라면 퇴근후 시간이었지만 김길천은 자기 방을 떠나지 않았다.

《책임비서동지, 구조강판 1t 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재일군들이 어디에 필요하며 지배인동지나 책임비서동지는 도대체 무슨 일군들입니까?

<고난의 행군>이 아닌가. 자력갱생해야 한다. 책임일군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그래 이런 말뿐이란 말입니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책임비서의 방에서 이렇게 어성을 높여 본적 없었지만 김길천은 한민국의 충혈된 눈과 보풀이 일은 입술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한민국동무, 자리에 앉으시오.》

한참만에 김길천은 한민국을 의자에 앉혔다.

김길천으로서는 할 말이 많았다. 나라가 처한 사정, 우리앞에 부닥친 준엄한 정세... 그러나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한민국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어느 책임일군보다도 사회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깊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 아닌가.

그가 책임비서앞에서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불만을 토하는것은 그 누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맡은 일을 마음 먹은대로 내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부터 오는 모대김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그 누구나 이렇게 모대겨야 할 때였다. 이런 모대김끝에는 반드시 출로가 열리는 법이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김길천이었다.

《한민국동무의 말이 옳소. 내가 지금 동무에게 할수 있는 일이란 자력갱생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없소.》

이 말 역시 책임비서의 심중에서 벌여 지고 있는 피로운 모대김의 표현이었다.

방금전까지 펄펄 뛰면서 책임비서에게 그 어떤 다른 답변을 강요하는것 같던 한민국이 뜻밖에도 그 말에 진정되었다.

한민국은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긴 숨을 내뿜었

다. 그 바람에 장대한 체구를 실은 의자가 삐걱소리를 냈다. 너부죽한 철색얼굴에는 마음속의 고뇌가 그대로 비친듯 때 이른 주름살들이 이마를 건너 갔다. 잠시후 그는 들어 올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인사를 남기고 책임비서의 방을 나섰다.

이때부터 김길천은 저주파유도로에 대한 기술도서들을 빌려다가 째짤이 읽어 보기 시작했다. 상급당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해서도 휴식시간이면 책을 들었고 잠자리에 누워야 할 밤중이나 새벽시간도 리용하였다.

전문기술용어사전이 없이는 리해하기 힘든 대목들이 많았지만 마음속 피로움을 이겨 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이든지 힘겹고 어려운 일에 부딪쳐 버릴 바치고 땀이라도 맘껏 흘리고 싶었다. 대학교원이나 전문가들을 만나는 기회도 놓치지 않고 독서에서 리해하기 힘든 대목을 풀어 가군했다. 그 덕분에 김길천은 저주파유도로와 관련한 기술실무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깊이 인식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며칠후 한민국이 값 비싼 구조강판대신에 기업소에서 폐기된 변압기, 용접기들의 작은 철심들을 무어 유도로철심을 조립할수 있다는 착상을 안고 달려 왔을 때 김길천은 누구보다도 그 가능성과 의의를 먼저 리해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눌수 있었다.

It 이 넘는 유도로의 결심을 만여개의 작은 조박철심들로 만든다는것은 험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도 한민국은 더는 책임비서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그를 김길천이 불러들인 일이 있었다.

그것은 어느 봄날, 농포산에 진달래꽃이 만발하던 때였다. 그때 은정인민학교에서는 원족을 가게 되었다. 그 원족에는 기업소합숙에서 생활하는 부모없는 아이들도 가게 되었다.

김길천은 합숙아이들의 원족음식이 다른 애들보다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한가지 생각에 골몰하였다. 후방공급과에 알아보니 식량창고에는 종업원들에게 당장 공급해야 할 식량도 얼마 되지 않았다.

《기업소 책임일군들 가족에게 줄 식량중에서 닷새분씩만 떼어냅시다.》

김길천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끝냈다. 모두가 어렵게 사는 때에 책임일군들의 가족이라고 무슨 다른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리해할것이다. 오늘의 이 어려움을 더 무겁게 받아 안는것이 혁명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보좌해드리는 길이 아닌가...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이란 아직은 이런것밖에 없다는것이 더없이 서글펐다.

그래도 책임비서를 《큰아버지》로 부르는 아이들은 김길천에게 자기들과 같이 가야 한다고 응석을 부렸다.

김길천은 아이들에게 점심시간까지는 꼭 원족장소에 가겠다는 약속으로 애들을 달래었다.

다음날, 그 약속을 지켜 그가 농포산마루에 올랐을 때는 모두들 금잔디우에 음식을 펼쳐 놓고 있었다.

《큰아버지》도 아이들의 포위속에서 합숙에서 준비한 음식들과 함께 집에서 해온 점심을 내놓았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집집마다에서는 자기 아이들에게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해 주었다.

흰쌀밥과 강낭쌀이 섞인 반지밥, 당콩을 두어 빛갈을 돌군 강낭밥... 반찬도 가지각색이어서 겹소한 대로 먹음직스러운 원족음식들이었다.

애들이 싸온 점심밥들을 하나하나 둘러 보던 김길천은 유독 뚜껑을 열지 않는 처녀아이에게서 눈길을 멈추었다.

무엇을 주저하는지, 그 누구를 기다리는지 다른 애들의 밥판들을 둘러 보기만 하는 그 아이에게 자연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게 되었다.

《은경아, 빨리 밥을 먹자!》

옆에 앉은 아이가 독촉했을 때에야 그 애는 마지못해 밥판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냄새를 썰어넣은 강낭가루범벅이 드러났다.

원족음식으로서의 너무나 생각밖의 일이었어서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 저서 그 점심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길앞에서 은경이라고 불리운 처녀애의 얼굴은 붉어 지다 못해 창백해 졌다.

김길천은 이 순간부터 동심이 되어 그애의 거동을 불안과 초조속에 지켜 보고 있었다.

차라리 그 누구의 눈길도 은경이의 남새범벅을 못 본척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우랴.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애들의 동정어린 눈길이 은경이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 맨 먼저 옆에 앉은 아이가 자기의 밥판에서 흰쌀밥 절반을 덜어 은경의 남새범벅우에 놓아 주면서 말했다.

《내 밥을 같이 먹자!》

뒤이어 너도나도 은경에게 다가와 자기 밥판들에서 색 다른것들을 덜어 놓았다. 남새범벅우에 쌓이는 가지각색 음식들을 앞에 놓고 은경이는 갑자기 머리를 떨구었다.

김길천은 그 애가 울고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다. 더우기 그 애가 한민국의 딸애이며 공부에서는 학교적으로도 첫 손가락에 꼽히는 최우등생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슴아픔은 배개로 커졌다.

김길천이 한민국의 집을 찾아 간것은 이때의 일이었다. 기업소에서 머지 않은 농포산기슭에 한동에 두 세대씩 사는 단층살림집들이 있다. 그 집들중

에서 《한민국》이란 수수한 문패가 붙어 있는 앞에서 김길천은 주인을 찾았다.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는 한민국이 집에 있을리가 없었다.

문이 열리며 얼굴에 멍색이 짙은 중년녀인이 나타났다. 오랜 병환으로 쇠약해 진 녀인은 김길천이 자기를 소개할 때까지도 간신히 자기 몸을 지탱하는상 싶었다.

녀인을 앞세우고 방안에 들어 선 첫 순간부터 그는 자기가 좀 더 일찌기 이 집을 찾아 왔어야 했다는 뒤늦은 자책으로 하여 마음이 무거웠다.

행당그레한 방안에는 봄철이지만 얼음장우와 같이 랭기가 돌았다. 아래목에는 환자의 잠자리가 펼쳐진채로 있었다. 기술서적으로 짝 들어 찬 책장을 내놓고는 퇴색한 이불장과 옷장, 오래전에 놓은것이 분명한 구식 TV... 이것이 가구의 전부였다.

김길천은 가져 온 쌀자루를 한쪽 구석에 조심히 내려 놓았다. 기업소에서 공급 받은 열흘분 식량중에서 절반을 덜어 온것이였다. 의아해 하는 가족들에게 김길천은 공장의 생명이며 나라의 재사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당분간 남들보다 좀 더 어려움을 겪는것은 당일군가족으로서는 웅당한 일이라는것을 강조하였었다.

잠시후 학교에 갔던 한민국의 세 딸애가 집으로 들어 왔다. 농포산원족매에 낫을 익힌 은경이가 그때 일을 생각해서인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했다.

은경의 한쪽 손에는 책가방이, 다른쪽 손에는 파란 썩이 가득찬 비닐구렁이 들려 있었다. 공부를 끝낸 세 아이들이 산에서 뜰어 오는 모양이였다.

알고 보니 은경이는 앓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주부노릇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동무들이 사랑한 알을 주어도 병자인 어머니를 위하여 들고 온다는 것이였다.

그후 한민국의 집에 정상적인 왕진을 하게 하고 기술자들의 매 가정을 책임일군들이 계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문제를 당위원회에서 결정한것도 그때의 일이었다.

하지만 원족날에 받은 가슴 아픈 충격은 가시여 지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몹시 바쁘게 보내는 한민국이었지만 책임비서의 방으로 불렀다.

이때는 저주파유도로의 철심공정을 하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게 보내던 때였다.

It 이 넘는 만여개의 결심을 하나하나 쇠목을 벗기고 도색을 입혀 조립해야 하는 까다롭고 일손이 많이 먹는 이 공정을 온 기업소가 펼쳐 나 도와나섰지만 그 때 공정을 기술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한민국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었다.

불꽃으로 구멍이 송송한 작업복을 걸친 한민국이 땀과 기계기름으로 검붉어 진 얼굴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김길천은 수척해 진 그를 푸짐히 먹이고

단 몇시간이래도 잠 채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어쩌면 동무는 그럴수가 있소? 그래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모든 곤난을 웃으며 이겨 내는가 말지요?》

아무리 살림이 어려운 때라 해도 어찌다 하는 애들의 왼쪽에 우리가 점심과 하나 남과 같이 싸줄수 없단 말지요?》

느닷없이 쏟아 붓는 이 말에 한민국은 어리둥절한채 대답을 못했다.

김길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 졌다.

《은경이는 학교적으로도 손 꼽히는 당당한 최우등생이요. 그 무슨 일에서나 첫 자리에 나서는데 습관되어 왔고 마음의 그늘을 모르고 자라온 애요!

우리가 관심만 돌렸으면 얼마든지 해줄수 있는 그 하찮은것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겼는가 말지요.》

한민국에게 하는 이 추궁은 사실상 김길천이 자신을 타매하는 량심의 몸부림이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합숙에서 거두어 주는것으로 책임비서의 구실을 했노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런데 한민국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책임비서동지, 그제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십니까. 남새범벅을 싸들고 왼쪽을 가야 하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 아이들보다 비할바 없이 가장 역세고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것입니다.

우리가 뭐 늘 이렇게 살겠습니까. 물론 그 애들이 지금은 아버지를 탓할수도 있겠지만 먼 후날에는 자기네 아버지, 어머니들을 자랑스럽게 추억할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한다면 책임비서동지나 저나 오늘의 이 어려운 나날을 이겨 내지 못할것입니다.》

《!》

김길천은 가슴이 뜨거워 저서 아무 말도 못했다. 한민국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왔는지 몰랐다.

그렇다! 우리가 겪는 곤난은 일시적인것이다. 보다 휘황한 래일, 강성대국의 래일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도 역세게 오늘을 이겨 낼것이다!

그는 가슴속에서 새힘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형의 지식인들이 우리 당의 동행자로 래일을 앞당겨 가고 있는것이다.

기업소 야간정양소에 전병로병들과 기술자들을 넣고 허약해 진 사람들을 추켜 세운것도 그때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창가에 서 있던 김길천은 그제야 조직비서 림승일이 자기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자세를 바꾸어 조직비서에게 말하였다.

《대회에 보낼 대표들을 추천하는 종업원모임을 래일로 앞당겨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림승일은 아직도 김길천의 견해를 채 받아 들이지 못한채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전부에는 따로 과업을 주겠습니다.》

김길천은 이렇게 조직비서와의 담화를 끝내었다.

2

다음날 저녁녁에 진행된 기업소종업원모임에서는 대회에 파견할 대표들을 추천하였다.

김길천자신이 맨 첫번째로 한민국을 제의하였다. 장내에서는 박수가 일어 났다. 박수는 오래동안 그칠줄 몰랐다.

김길천은 후더워 지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민국동무가 지금 병중에 있지만 머지 않아 완치되어 영광의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 우렁찬 박수가 계속되었다.

이날 모임을 끝내고 날이 저물었을 때 조직비서 림승일이 책임비서를 찾아 왔다.

《책임비서동지의 견해가 옳았다는것을 저는 오늘 종업원모임에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과묵한 조직비서가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것은 마음속의 충격이 컸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림승일은 다시 말을 이었다.

《모임이 끝났을 때 시공조직설계사업소동무들이 저를 찾아 왔더군요. 한민국동무를 추천해 주어 고맙다고, 사업소의 모든 당원들이 한결같이 바라던 걸 당위원회가 풀어 주었다고 거듭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책임비서동지, 래일이라도 병원에 찾아 가서 제가 한동무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것 같습니다.》

《용서까지야 뭘 빌겠습니까. 하지만 경사로운 소식을 본인에게 알려 주지 않고는 나나 림동무나 잠을 자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 길로 병원에 갑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간 후 김길천은 조직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술부원장의 안내로 《구급소생실》이란 패쪽이 붙은 호실에 들어 선 그들은 죽은듯이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한민국의 침대앞에 잠시 서 있었다.

장대하던 한민국의 몸은 반쪽이 되었고 늘 건강미가 흐르던 너부죽한 얼굴은 완골이 두드러지고 창백해져서 첫 순간에는 누군지 가려 보기 힘들었다.

김길천은 한민국의 두손을 잡으며 조용히 불렀다.

《한민국동무!》

환자는 눈을 떴다. 잠시 후에야 책임비서를 알아본 한민국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책임비서동지!》

한민국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억양에는 절절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이 바쁜 때에 어떻게 또 오셨습니까?》

상체를 일으키려고 몸을 움직이는 한민국을 김길천은 가볍게 제지시켰다.

《한동무가 너무 오래 병석에서 일어 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왔소. 나와 함께 조직비서동무도 왔소.》

김길천이 이렇게 말하자 뒤에 서 있던 조직비서에게 눈인사를 보낸 한민국은 어느새 기력이 진했는지 두눈을 지그시 감으며 힘없이 말했다.

《책임비서동지, 미안합니다. 장흥발전소 발전기 설계까지 끝내야 했는데 이렇게...》

한민국은 말끝을 채 맺지 못했다.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소? 한민국동무답지 못하구만.》

김길천의 말에 한민국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한옆에서 있는 기술부원장에게 눈길을 보내며 힘없이 말했다.

《안됩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의학과학이야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한민국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길천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왔다. 과연 한민국의 말대로 이제 늦었던 말인가.

그렇게도 강하던 사람, 현실이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는 가장 어려운 기술문제들을 한몸으로 맡아나서 가정도 자기 몸도 돌볼새없이 밤낮을 이어 끝장을 보고야 말던 불 같은 정열의 소유자, 파업이 아무리 벽차고 조건이 엄혹해도 우는 소리를 모르고 강의한 의지와 철석 같은 신념, 지칠줄 모르는 락관으로 책임비서자신에게 힘을 주던 이 불같은 인간도 생명을 쫓 먹어 들어 가는 병마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로 되었던 말인가.

아니, 그럴수 없다!

김길천은 소스라쳐 놀라며 한 순간이나마 동요한 자신을 완강히 부정하였다.

어떻게 하면 한민국의 가슴속에서 스러져 가는 생에 대한 활력을 되살려 낼수가 있을가.

《아니요! 한민국동무, 동무는 동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아직은 모르고 있소.》

김길천은 절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의 일들이 가슴 뜨겁게 되살아 왔다.

《우리가 저주파유도로를 할 때 18mm 동관이 없어서 모두가 맥을 놓았을 때의 일을 동무가 잊지 않았겠지?》

김길천은 한민국의 얼굴을 훑어 내듯이 마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한민국의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였다.

김길천은 말을 이어 나갔다.

《우리에겐 낡은 보이라를 해체하면서 나온 40mm 동관이 있을뿐이었지. 그때 동무가 그걸 연신하여 18mm 내경으로 만들수 없겠는가고 의견을 제기했을 때 누가 지지했겠소?》

갑자기 한민국이 김길천의 말을 받았다.

《터무니 없는 망상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내 귀에까지 들려 오자 처음엔 분격하였지요. 기술자로서 이보다 더한 모욕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그 모욕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자에겐 실천만이 자기의 정당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것이니까요.》

한민국은 활기를 띠었다. 방금전에 두눈을 감고 한숨을 짓던 그가 아니었다.

김길천 역시 활기에 넘쳐 한민국의 말을 받았다.

《옳은 말이요. 실천만이 우리의 정당성을 증명해줄수가 있소. 우리는 저주파유도로를 그렇게 해냈던거요. 그래서 자력경쟁기지들에 소재를 대주게 되었소.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여섯차례나 받게 된것도 다 동무들, 기술자들의 공로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지. 버섯재배장과 양어장, 태양열온실, 수산기지와 자체 탄광, 농목장...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빨리 해냈소.》

나는 저주파유도로의 18mm 동관을 연신하던 때의 그 간고분투의 정신을 언제나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두 사람은 동시에 그때 일을 더듬어 보았다. 장작불에 달군 동관을 한민국이 창안한 지구에 물려 조심히 잡아 당기면 관이 늘어 나면서 한번에 0.5mm 씩 내경이 줄어 들었다. 그 사이에 식어든 관을 또 달구어 당겨야 했다. 이렇게 40mm 내경이 18mm 로 줄어 들 때까지 단조로운 공정을 반복하느라 하면 하루해가 언제 지나가고 밤이 언제 새벽으로 바뀌어 지는지도 몰랐다. 그러다가도 관이 터져 나가면 다른 관으로 또 첫 공정부터 시작해야 했다. ...

《만일 우리에게 제국주의자들의 봉쇄가 없었고 모든것이 구비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누가 그런 방법으로 40mm 동관을 18mm 내경으로 만든다고 했다면 나 자신도 그걸 터무니 없는 망상이라고 말했을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느 책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민국이 김길천에게 하는 말이였다.

《앞으로 우리가 이 강행군을 승리로 결속하고 모든것을 우리 손으로 책에 써넣읍시다.》

하지만 지금 당면하게는 한민국동무가 하루 빨리 병을 이겨 내고 일어 서는것입니다.》

《책임비서동지는 정말 제가 일어 날것 같습니까?》

한인국은 김길천에게 물었다.

《한인국동무!》

김길천은 승엄한 표정이 되어 이렇게 불렀다.

한인국은 자기 신상에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 나고 있다는것을 예감하며 김길천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평양에서 전국자력갱생도범일군대회를 소집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 주시였습니다. 우리 기업소 당위원회와 종업원들은 이 대회에 대표로 참가할 기술자들속에 한인국동무를 추천하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한인국은 너무나 꿈 같은 소식이어서 처음에는 믿어 지지 않는지 이렇게 되물으며 다시 자리에서 일어 나려고 상체를 비틀었다. 고승환이 부축해 주려고 다가서자 한인국은 거기에 도전하듯이 놀랍게도 벌떡 일어 나 앉았다.

《기술부원장동무, 우리는 한동무를 영광의 대회에 보내야 합니다. 우리 기업소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가 당에 보고되었습니다. 한인국동무는 오늘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토론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한인국은 김길천의 말에 대답을 못한채 잠시 한 자리에 굳어 저 움직일줄 몰랐다. 그는 머리를 수그린채 허끝을 지그시 깨물고 목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씹어 삼키고 있었다.

《기술부원장선생, 이 호실 출입문우에 붙은 <구급소생실>이란 패쪽을 당장 떼여 버리시오.

이 호실에는 구급소생환자가 아니라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해야 할 우리 기업소 대표들중의 한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국은 심장이 터져 나갈것 같은 충격을 느끼며 얼굴을 창밖으로 돌려 버렸다. 더는 자신을 건잡을수 없었다. 꿈에도 바랄수 없었던 행복의 절정우에 자신이 올라 선것이 아닌가.

창밖으로 땅거미 진 대지에 어둠이 짙어 가고있었지만 그에게는 새벽이 밝아 오는듯한 착각이 일어 났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한인국은 자기 체내에서 생명을 좀먹어 가던 악착한 동통의 근원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걱정외 불길에 휩싸여 한순간에 재로 타버리는 것만 같았다.

그는 온몸에서 새힘이 솟구치는것을 느끼며 자기가 절대로 죽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이 동지들의 곁을 내가 어떻게 떠나간단 말인가.)

아, 정말 살고 싶구나! 이 좋은 사람들속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도면앞에서 몇밤을 밝히기도 하고 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를 놓고 또다시 목이 쉬도

록 언쟁이라도 벌리고 싶구나!

그는 이날까지 살아 오면서 생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이때처럼 느껴 보기는 처음이었다.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로 하여 앞이 뿌옇게 흐려 왔다.

눈물 고인 그의 눈앞으로 전국자력갱생도범일군대회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석단에 나오신다. 《만세!》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한다.

한인국은 그제야 자기가 울고 있다는것을 느꼈다. 책임비서도 조직비서와 기술부원장도 자기의 이 눈물을 이해할뿐아니라 뜨겁게 공감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다.

(오직 일로써만, 더 많은 일을 하는것으로써만 만아 안고 있는 이 은덕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나 마 보답할수가 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그의 머리속에서 만가지 환상이 나래쳤다. 아직은 씨앗으로 있지만 머지않아 싹이 터서 줄기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만가지 혁신안들이 도면우의 점과 선으로 생생히 떠올랐다.

이미 조업의 고고성을 울린 저주파유도로의 동음이 그의 가슴을 울리며 자기 심장의 박동으로 들려오는것이였다.

그렇다. 나의 심장은 저주파유도로와 함께 련이어 태어날 기술혁신안들과 함께 오늘의 강행군을 승리로 결속하고 세계반동들이 우리앞에 무릎을 꿇는 때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영원히 고동을 멈추지 않으리라!

환희와 걱정속에 기분이 양양되고 스러져 가던 생의 활력을 되찾은 한인국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김길천은 그것이 결정적인 건강회복에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입원실을 떠났다.

그후 김길천이 바라던 기쁜 소식들이 병원으로부터 수시로 날아 왔다. 한인국의 병이 대단한 차도를 보인다는것이였다.

식사량이 늘어 나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맛아야 했던 진통제주사를 본인이 단호히 거절하였다고 했다. 책임비서가 그리도 바빴고 의료집단이 그것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의학상의 기적이 일어 난것이 아닌가.

기업소적인 큰 기대속에 한인국의 종합검진이 다시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애 타게 기다리는 책임비서에게 기술부원장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다.

《책임비서동지!》

고승환은 이렇게 불려 놓고 인차 뒤말을 잊지 못하였다. 김길천이 바라고 기다리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기술부원장의 목소리는 저르기 떨리고 있었다.

《어서 말해 주오. 한인국동무의 검진결과를...》

지나친 긴장과 초조, 불안으로 하여 김길천은 목

안이 말라 들어 간신히 말을 하였다.

《...검진결과 나온 수치들앞에서 우리는 놀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민국동무가 살아 있다는 자체가 정말 믿기 힘든 기적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병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었단 말이요?》

김길천은 고승환의 말허리를 꺾었다. 너무나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기때문이었다. 제발 그것이 자기 귀의 착각으로부터 오는 잘못이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기술부원장이 부정해 주기를 바라며 자기 가 입에 올린 그것은 슬프게도 사실이었다.

고승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 왔다.

《...죽음의 계선을 오래전에 넘어 선 환자가 오히려 병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대회에 올라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쨌으면 좋습니까, 책임비서동지!》

고승환은 책임비서의 지시를 기다렸다. 환자치료와 관련된 일에서는 언제나 확고부동한 자기 견해와 주장을 가지고 한결음도 양보할줄 모르던 기술부원장으로서의 레외적인 일이었다.

김길천은 송수화기를 든채 아무 말도 못했다. 과연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한민국의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다는것은 이제 더는 부정할수 없는 현실로 되었다.

인류가 도달한 의학과학의 힘이 한민국에게는 이미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하게 된 오늘에 와서 그를 병원에 억지로 잡아 둔다는것은 그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생에 대한 확신과 열망, 오래간만에 찾아 온 정신적양양, 그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것으로 될것이었다.

그러나... 《요구대로 그를 퇴원시키시오.》라고 김길천은 가볍게 말할수 없었다.

인간의 육체적생명에 대해서야 의사들만이 끝까지 책임질수 있지 않는가. 《인간생명의 기사》들이 달라 붙어 온갖 정성과 지혜를 다하느라하면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두번 다시 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환상이었다. 그러면 한민국을 위하여 자기가 해줄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한민국에게는 길지 못한 삶이었지만 참답게 살아온 인생을 결속해야 할 마지막시기가 도래하였다.

그 누구에게나 피할수 없이 차례지는 이 생의 마감을 빛나게 결속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심장이 고동치는 마지막순간까지 집단과 동지들 그리고 자기가 한생을 바쳐 온 숭고한 위업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침으로써 몸은 비록 죽어도 그 고결한 정신만은 사람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남게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한민국이야말로 그런 영생의 행복을 지닐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김길천은 드디어 힘든 결심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 고승환에게 다시 한번 여유를 주었다.

《기술부원장동무, 환자를 퇴원시키는가 마는가 하는 문제야 의료일군들이 스스로 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요?》

그러자 고승환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한민국동무의 요구를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하오. 하지만 퇴원후에 병원적인 관심은 더 높여 주어야겠소.》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신이 왕진을 자주 하면서 담당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결심을 잘한것 같소!》

김길천은 이마에 내뺨 땀을 씻으며 긴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전화는 끝나도 되었으나 고승환은 《책임비서동지!》라고 불렀다. 그리고는 김길천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말을 이어 나가는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억세고 강한 우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하여 의학과학의 기성리론은 너무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부원장동무, 그 빈 공간도 바로 우리 손으로 메꾸게 되리라것을 나는 믿고 싶소!》

김길천의 이 말에 고승환은 뜻밖에도 《책임비서동지,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전화를 끝맺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하던 한민국의 생명은 한달이 지나고 두달째 접어 들었다. 집에 돌아 온 그는 일과표대로 기타도 타고 음악도 감상하였으며 앓은 책상에 도면지를 놓고 도면을 그리기도 했다.

이렇게 두달도 지나고 석달째 들어 서면서 전국 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로 대표들이 떠나가야 할 한 주일을 앞두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구급소생을 위한 전투를 벌였으나 그는 끝내 깨여 나지 못했다. 인간생명에 대하여 의학과학이 장구한 세월 정해 놓은 기준을 엄청나게 뛰어 넘은 그 불사신 같은 심장도 고동을 멈추었던것이다.

고인의 머리맡에서 설계도면이 발견되었고 배개 밑에서는 두툼한 일기장이 나왔다.

기업소가 하게 될 장흥발전소의 발전기의 완성된 도면이었다.

건강한 사람도 반년이상 걸린다는 그 복잡한 도면을 림종을 앞둔 환자가 어떻게 두달동안에 끝낼수 있었던 말인가?

김길천은 이런 의문을 안은채 한민국의 일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종합검진은 나에게 죽음을 선언하였다.

검진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길들에서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것은 점점 더 자주 나의 체내에서 발작하는 참기 힘든 아픔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오늘까지 병을 이겨 온 나의 정신력도 이제는 한계점에 가까와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끝없이 고마운 사람들, 그들은 나를 위하여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것을 다 바쳐 주었다. 천백번 죽어도 다 갚을수 없는 이 고마운 사람들의 뒤에는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당일군 김길천책임비서가 있다. 그를 통하여 나는 끝없이 은혜로운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도 심장깊이 새겨넣게 되었고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벌써 나의 육체적생명은 종착점에 이르렀단 말인가. 동지들이 추천해 준 영광의 대회, 그 높은 연단에 끝내 오르지 못하고 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그 대회의 높은 연단에 한순간이라도 설수 있는 영광을 누릴수만 있다면! 그때까지만 내 심장이 멎지 말아 준다면!

아, 천년, 만년을 더 산다 한들 그 영광의 한순간과 어떻게 바꿀수가 있으랴.

나는 분명 행복한 사람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나에게 영광의 그 순간을 안겨 주시지 않았는가. 몸은 비록 가당치 못하더라도 내 마음, 온몸이 경애하는 장군님곁에 가 있다면 나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다!

내 마음이, 온몸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곁으로 간다는것은 자신의 모든것을 남김없이 바치는것이 아니겠는가.

종합검진이 나의 육체적생명에 죽음을 선고한 이 운명적인 날에 나는 결심한다...

한민국의 일기는 병과의 초인간적인 투쟁속에서 설계를 다그치던 나날들을 걸쳐 드디어 마지막페이지에 이르렀다.

《...발전기의 도면을 드디어 완성하였다.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의 날도 박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이 다시 더는 지령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다.

고마운 동지들, 나의 죽음을 슬퍼 마시라! 너무나 많이 할 일을 앞에 두고 이렇게 일찌기 가지만 정신만은 동지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장흥발전소 발전기의 설계도면을 받아 달라.

이 발전기의 세찬 동음을 내 심장의 고동소리로 들어 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실현에 나의 몫까지 더해 달라!...》

김길천은 이윽고 일기장의 마지막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충격을 남긴 글줄들은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나 큰것을 한민국은 우리에게 남기고 갔는가.

림종을 앞둔 그가 참기 힘든 동통을 이겨 내며 남긴 발전기의 설계도면도 귀중하다. 그러나 일기에 펼쳐진 세계, 죽어서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서 참다운 인생을 누리는 한민국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더없이 귀중한것이였다.

김길천은 그 정신세계에 비낀 자기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얼굴이 달아 올랐다.

당일군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도 많이 하였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해 온 김길천이였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솟구쳐 오르는 샘물처럼 한생을 티없이 깨끗이 살아왔고 심장이 고동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한민국의 그 건인불발의 투지와 신념앞에 깊이 머리가 숙어지는것이였다.

김길천은 한민국이 량심으로 새겨 놓은 일기장의 글줄들을 되새겨 보며 그가 남긴 인생의 자욱자욱을 따라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한 그의 공로들을 귀중한 보물을 캐듯이 하나하나 찾아 내어 자료를 만들었다. 대회참가자들의 명단과 함께 그 참가자의 한사람인 한민국의 공로자료는 당중앙위원회에 제출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그 자료를 보아 주시고 한민국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해 주시였다.

×

...세월은 그 모든 일을 추억으로 남기고 또 몇해가 흘렀다.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가 타올라 시대의 영웅들, 제2의 천리마선구자들이 도처에서 태어나는 벅찬 나날이였다.

우리 조국의 위대한 력사에서 레사롭게 흘러가는 평범한 어느날, 시 교외의 양지바른 산등성이에 자리 잡은 한민국의 분묘앞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 왔다.

제2의 천리마선구자대회에 참가했던 김길천과 로력영웅들, 기술자들, 혁신자들 그리고 한민국의 안해와 세 딸들이였다.

김길천은 목상하면서 고인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인국이! 장흥발전소의 조업식이 진행되였소. 동무가 설계한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 가고 있소.

저 수성천의 흐름을 따라 편편히 일어 선 발전소들이 련이어 조업식을 하게 되였소.

우리의 신념, 우리의 의지가 모든 난관을 타승하였소. 우리모두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큰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고 있소. 동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걸어 가고 있소.)

생각이 여기까지 이른 그는 눈곱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훔치고 그옆에 나란히 서 있는 한민국의 세 딸애를 두팔로 얼싸안았다.

《너의 아버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는 죽음까지도 이겨 낸 불사신 같은
사람이었다.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전사

허수산

보람찬 학창시절
학과토론시간이면
얼굴부터 붉히던 전사였다
군복입고 고향 떠날 땐
말보다 손짓부터 앞서던 전사

오늘은 한개 중대를 책임진
어엿한 정치지도원으로 자라나
한생애 더 없을
영광의 순간 맞이하였구나

초소에 찾아 오신 최고사령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치상학에도 참가하실 줄
어이 알았으랴
전사들과 나란히
교양실 맨 앞자리에 앉으실줄이야

가슴은 널뛰듯 하였건만
어데서 솟아 난 담력이며
누가 준 지혜이더냐
온갖 어려움도 잊고
전사는 불 같은 강의를 하였나니

아 그 순간
맨 먼저 크게 박수를 쳐 주시며
강의를 참 잘 하였다고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환하신 그 모습

전사는 꿈을 꾸는것 같아
눈시울 뜨겁게 젖어 왔다
말 못할 감격의 파도
온몸을 불같이 휩쌌거니

얼마전에는
그처럼 당당하신 모습
환하신 모습으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나
조국의 존엄 한껏 떨치시던 장군님!

또 얼마전에는
바다같은 도량으로
온 남녘땅을 품에 안으시고
통일의 지름길 밝혀 주신
우리의 장군님 아니시던가

중대를 찾으시면
병사들의 학습장부터 펼쳐 보시고
침실과 식당부터 돌아 보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온 천하를 쥐락펴락 하시는 위대한 장군!

병사생활에 그리도 마음 기울이시여
상학시간이면 병사와 나란히
한 책상에 앉으시여
몸소 청강생이 되어 주신 격동적인 화폭이여

그렇다, 전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그 담력, 그 지혜로
위대한 장군앞에서
친아버지앞에서 강의를 하였다...

이런 전사앞에
이 행성우의 그 어떤 적이 감히 맞서랴
제국주의 때무리가 달려 든대도
불 같은 한마디면 훔날려 가리
이런 전사 우리 장군님 키워주셨다
조선인민군 전사 그 모든 한명 한명을!

선군시대 청춘찬가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에 대하여-

김일수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시대의 찬가, 선군시대의 꽃으로 피어 난 조선청년들에게 바쳐진 열정의 노래가 이 땅우에 울리고 있으니 그것이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백의선, 류동호)이다.

이로 하여 우리 시문학은 선군혁명문학창조의 로정우에 또 하나의 큰 자욱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 서사시는 위대한 선군혁명시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장군님의 청년들에 대한 격찬의 메아리이며 우리 식 서사시의 면모와 위력을 크게 과시하고 서사시문학발전의 새로운 전진을 보여 준 귀중한 자취이다.

서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지사상이 힘있게 구현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긍지높이 노래하고 시련속에서 더 굳건해진 장군님과 조선청년들과의 혈연적연계속에서 솟아난 혼연일체의 결정체인 평양-남포관광도로건설에서 발휘된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을 열정에 넘쳐 레찬하고있다.

우리는 이 서사시가 청년중지사상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특색있고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펼쳐보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들,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에 대한 격찬의 사상감정을 눈물겹도록 뜨겁게 절절하게 토로한 시대의 명작이라고 자랑높이 말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 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지로 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 기치가 되어 나뭇기고 있는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의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위대한 현실, 변혁적인 생활을 직접 반영하고 있는 철학적으로 무게 있는 종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다.

...

길이어 길이어
황금으로 쌓았대도 비길수 없고
100리라는 그 거리로는
더더욱 그 가치를 말할수 없는
평양-남포관광도로여

시인은 지금 길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길이라도 자욱자욱 그 밑에서 청춘들의 산 심장이 뛰고 후더운 숨결이 확확 뿜어 올라 삼가 서숨어 지는 그런 길, 평양-남포관광도로를 두고 시작부터 격정을 터치고 있다.

그러면 지난 시기 우리 시문학이 거듭 노래해 온 길에 대한 서정을 오늘에 와서 보다 새롭게, 시대적 높이에서 다시금 토로하게 한 강렬한 시적흥분과 충동, 열정의 바탕은 무엇인가.

100리, 이 길우에 전설 같은 기적을 쌓아 올린 청년들의 영웅적위훈과 투쟁에 대한 커다란 시적감흥속에 심혼을 맡긴 시인의 사색은 이 길에 청년들을 내세워 주시고 이 길에서 청춘을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심오한 경지에서 불꽃튀는 시적충격으로 확산되었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길에 새겨 주신 그 뜻, 그 마음을 헤아리며 이 길에서 더 가까와진 장군님과 청년들에 대한 심화된 사색과 느낌의 절정우에서 마침내 시인은 끊어 솟는 격정의 분화구를 찾게 되었으니 이 서사시의 탄생을 마련해 준 시적충동과 열정은 바로 평양-남포관광도로에 깃든 위대한 청년믿음, 청년사랑에 대한 절감에 있다.

이렇게 서사시는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 《천지개벽》이라고 일컫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청년들의 위훈을 노래함에 있어서 그 투쟁과 생활속에 내재되어 있는 끝없이 심오한 진리와 철학을 밝혀 내는데로 지향하고 있다.

백리청춘도로, 이 길에는 참으로 심오한 생활의 뜻과 의미가 새겨져 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절대적 청년믿음, 청년사랑이 펼쳐진 길이며 장군님과 온 나라 청년들의 심장파 심장으로 피줄기가 이어진 붉은기의 길이며 한 없는 그리움의 길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런 길을 백리라는 한정된 거리상개념으로 절수 있으며 레사롭게 뻗어간 평범한 다른 길들에 비겨 노래할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밝혀 내고 있는데 서사시의 종자가 있고 우리 시대 청년들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서사시적형상을 비상히 높은 정서적감화의 세계에로 이끌어 올리게 한 형상적힘의 원천이 있다.

서사시는 평양-남포관광도로는 위대한 청년중지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길이라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천지개벽》과 《청년개벽》이라는 길이 있고

발견적이며 참신한 느낌과 사색, 생활정서적인 파악에 토대하여 그것을 철학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여 이 길을 걷고걸으며
천지개벽이라고만 생각지 말라
세상이 청년들을 사회의 우환거리로
참담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장군님 청년민음으로 창조한
청년개벽이거니

평양-남포관광도로에 이루어진 천지개벽의 참의미를 단 한마디로 주정화하여 명쾌하게 밝혀주는 무게 있는 시형상! 미래격정과 미래확신의 정서적대조속에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승리를 격조높이 노래한 폭 넓은 시형상! 여기에 시인의 불타는 심장속에서 시대의 노래, 열정의 찬가가 울려나오게 한 서정의 핵이 있고 진지하고 깊이있는 현실체험, 사상정서적체함과 사색의 정수가 담긴 사상적 알맹이가 있는것이다.

이 사상적알맹이를 정서화하여 형상의 꽃으로 피우는데서 서사시는 《길》이라는 시적계기, 시적공간에 의거하고 있다. 《길》이라는 시적공간, 시적계기에는 평양-남포관광도로에 깃든 사랑과 믿음, 위훈과 보답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의 형상선우에 연결시켜 주고 그를 통하여 풍만한 서정적형상을 산생시킬수 있는 위력한 형상작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서사시의 종자가 담고 있는 심원한 뜻, 생활철학을 폭넓고 깊이 있게 밝혀내는데서 《길》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적중한 형상공간으로 된다. 그것은 《길》이라는 형상공간, 계기를 통해서만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사랑하신 청년들과 더불어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 드리고 수령님의 업적을 빛내여 가시는 길이라는 의미가 밝혀 질수 있고 이 길우에 청년개벽을 이룩하신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부각할수 있으며 청년들의 삶과 투쟁, 창조의 철학도 보여 줄수 있기때문이다.

여기서 서사시가 이 길이 평범한 길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 줄기차게 이어 나가시는 길이며 수령님과 우리 청년들이 더 가까와 지는 길이라는 철학적의미를 어떻게 밝혀 주고 있는가를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길》이라는 계기에 의하여 만경대갈림길, 강선과 개성, 청산리를 비롯하여 《자옥자옥 사회주의 조국의 력사를 이끌어 온/수령님의 심장의 고동이 울려 오는》 이 길과 《수령님의 혁명의 천만리를 이어/조국을 더 넓은 길로 이끌어 주시려》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전선길을 하나의 서사시안에서 노래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나아가서 고속도로

공사를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더 빛내이는 중요한 일로 보시며 이 길에 청년들을 내세워 주신 위대한 청년민음에 대한 격찬의 정서적바탕우에서 수령님의 청년중시의 뜻을 그대로 이어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우리 청년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진리가 거대한 시대적의미로 부각되게 된다.

이 길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는
태양의 집으로 가는 길
장군님의 손을 잡고 아, 장군님의 손을 잡고
수령님의 품으로 가고가는 길

이 고속도로는 10월의 그날을 향하여 뻗어 갈뿐 아니라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 어버이수령님께 드릴 충성의 보고를 안고 가는 청년들의 길이다. 이것이 《길》이라는 의미속에 밝혀진 오늘의 시대정신이며 우리 청년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의진수가 체현된 시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이라고 볼수 있다.

참으로 서사시의 종자는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과 생활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철학적으로 밝혀 내고 있는것으로 하여 거대한 정서적감화력과 생명력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

서사시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는것은 바로 종자의 구현과정을 통하여 밝혀진 작품의 사상이 심오하기때문이다.

서사시에 형상된 심오한 사상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 내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것이다.

이 서사시는 우리 청년들의 위훈의 서사시이기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사랑과 믿음의 서사시이다. 서사시가 창조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은 절대적 청년민음, 청년사랑의 최고체현자의 형상이다.

서사시는 이 청년민음, 청년사랑의 위대한 높이를 노래하는데 초점을 두고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시며 청년들을 군대와 함께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워 주시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경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년들을 믿고 것처럼 어렵고 방대한 도로건설을 통채로 맡겨 주시는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 대사형상을 놓고 봐도 난관과 시련속에서 주저않거나 위축되지 않고 강성대국을 향하여 청춘의 나래를 활짝 펼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야말로 청년들에게 주실수 있는 진정한 사랑,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것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다.

이어 서사시는 평양의 고급식당들에서 만두를 만들어 청년건설자들에게 잔치상처럼 크게 차려주도

록 일일이 보살피 주신 사실, 청년건설기념탑을 세워 그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도록 해주신 사실, 공사를 시작한지 몇달밖에 안되는 청년들에게 높은 국가수훈과 값 높은 영예를 안겨 주신 사실 등 중요한 사적들에 모를 박아 청년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깊이 있게 노래하였다.

《흙집을 지고 하루에 백리씩을 달리느라/등어리가 벗겨지고 피멍이 저/청년들이 엎드려 잔다는것을 아시고/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온 밤을 새우시며/눈물로 손수건을 적시신 우리 장군님》!

청년들이 그 흙마대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는것을 아시고 그 고결한 마음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이런 청년들을 금방석에 앉혀 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군님!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감동 깊은 사연들에 대한 웅심 깊은 시형상을 통하여 서사시가 노래하고 있는것은 백리청춘로반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민음, 청년사랑을 영원히 력사에 전하는 기념비라는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천명하는데서 또한 빛나는 형상의 봉우리는 청년들은 우리 당의 길동무라는 최상최대의 영광과 믿음을 안겨 주시는 장면이다.

오늘 우리 청년건설자들의 모습에서
백, 천의 차광수, 김혁이를 보시고
백, 천의 리수복, 길영조를 보시며
시대앞에서
혁명앞에서
장엄한 력사의 선언을 하시는
혁명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청년동맹은 우리 당의 미더운
길동무입니다!-

거대한 무게를 안고 올리는 이 대사형상, 이 뜻깊은 시적화폭은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민음의 세계를 가장 심오하게 밝히는 형상세계를 이루고 있다. 하기에 시인도 이것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위대한 선군정치/선군령도를 받들어 나가는/돌격대원들 친위대원들에게/장군님만이 주실수 있는 영원한 표창》이라고 감격과 걱정을 터치는것이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대원, 근위병으로 성장한 청년들을 자신의 젊은 동지로, 우리 당의 미더운 길동무로 굳게 믿어 주시는 절대적 청년민음, 청년사랑을 정서적으로 파고 들어 장군님은 모든 청년들을 선군시대의 꽃으로 피워 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라는 형상과제를 시적으로 훌륭히 해결하였다.

서사시는 더 나아가서 평양-남포관광도로가 위대한 장군님과 청년들과의 혼연일체의 결정체임

을 노래하면서 장군님의 청년민음, 청년사랑의 철학적기초를 천명하는데로 나아가고 있다.

-청년들을 사랑하라!
이는 백두산혈통인 우리 장군님
생의 천품이며
필생의 의지

그이에게서 청년은
민족의 꽃이며 미래
그 꽃이 시들고 밟히고 썩으면
민족은 아름다움도 향기도 미래도 없고
혁명도 무의미하고
삶 그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분

여기서 서사시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 그것은 차넘치는 필승의 신심과 미래에 대한 확신, 혁명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에 뿌리를 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관, 혁명철학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의 심장을 다 주시며/청년들을 철저히 지지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민음이 그토록 절대적 믿음, 무한한 믿음으로 되며 장군님의 청년사랑이 천부모도 미치지 못할 그토록 뜨겁고 열렬한것으로 되는 리유도 바로 여기에서 밝혀진다.

무게 있게 올리는 이 시형상은 청년중시를 영원한 정치철학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의 사상과 감정, 의지의 세계를 파고 들어 부각된 형상인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은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 내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라는 사상을 강렬하고 심오하게 밝혀 내는 위력한 형상으로 되고 있다.

서사시에 구현된 심오한 사상은 다음으로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곳에 그리움이 있고 결사의 투쟁과 위훈이 있다는 사상이다.

서사시는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을 노래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일관된 그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 사상감정에 의거하여 종자의 예술적해명에로 열정을 터치고 있다.

그것은 그대로 온 나라와 세계를 격동시킨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의 원천을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밝혀 내는 형상세계로 되고 있다.

《버림받았것이 길가의 돌이 아니였고/흔한것이 흙과 모래가 아니였》던 간고한 투쟁의 나날 《속소로 오가는 시간도 아까와/진창이 된 길우에 그대로 서서/비가 오면 비물에 강냉이밥을 말아 먹고/눈이 오면 눈송이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웃으며 완공의 그날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게 한 힘은 무엇 이였는가.

우리 장군님 꼭 오실거라고

혹시 멀리 전선에서
 밤길을 오시다 새벽길을 오시다
 텅 비어 있는 건설장을 보면
 우리 장군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는가고
 그래서 밤에도 일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일한다는 청년들
 그래도 장군님 생각하면 힘든줄 모르겠다는
 청년들

백리로반우에 흘러 간 건설의 나날이 단순히 악전고투의 날과 달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
 는 마음으로 새날을 맞고 장군님 모실 날의 환희를
 안고 한밤을 새우며 그리움의 산을 쌓아 온 나날들
 이었음을 보여 주는데서 이 서사시의 즐기즐기에
 뿌리 내린 예술적세부, 일화들은 참으로 깊은 뜻과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고 있다.

흙마대를 멘채 쓰러졌다가도 《어서 가자 어서가
 자/장군님께로 가는 시간이 늦어 진다》며 다시 돌
 러멜 힘이 없는 마대를 안타까운 눈물속에 한치한
 치 끌고 갔다는 한 나어린 처녀의 모습을 방불하게
 재현한 세부, 《아픔도 이길수 있고/배고픔도 이길
 수 있건만/정말 건딜수 없는것이 잠이었던》지 흙
 마대를 지고 가다 선잠든 꿈결에도 강성대국의 령
 마루에 서시여 어서 오라 손저어 부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고 그리움의 나래돌쳐 달음쳐 갔다는
 《고등학교물림의 애젊은 총각》의 심중의 토로
 를 보여 준 세부...

《이 세상 건설사에 없는 <사람휘틀>》에 깃든
 결사전의 이야기며 《터지고 찢기고/찢기고 터지
 여》수십번이나 기운 흔적이 력력한 흙마대가 전하
 는 마대전에 대한 이야기...

눈물겹고 감동적인 이러한 생활세부, 일화들에
 펼쳐 진 감정정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청년들
 의 간절한 그리움이며 그리움의 감정속에 새겨 지
 는 생활의 깊은 뜻, 시대의 철학은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움은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무한대의 힘을 낳는다는것이
 다.

청년돌격대원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보여 주는 양
 양된 시적묘사와 주정토로, 웅건한 시적화폭의 바
 탕에 그리움의 정서가 격류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계신
 다!

살이 찢겨 흩이 되고 뼈가 부서져 자갈이 된대도
 그만이라는 결사의 각오, 조국의 청춘로반을 받드
 는 영원한 초석이 되리라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영
 용적기질이 어디서 솟아 난것이며 수십번, 지어 백
 군데나 덧대고 기운 흙마대를 배낭속에 소중한 보
 관하고 있는 량만의 세계는 또 어디에 뿌리를 두었
 는가가 여기서 밝혀 진다.

평양-남포관광도로, 여기서 세계를 향하여 빛발

치는 조선청년의 아름답고 고상한 모든 장점을 다
 대변해 나선 그리움의 정서! 력사의 시련속에서 더
 선명히 부각되는 조선청년의 모습을 가장 힘있게
 보여 줄수 있는 그리움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를 타고 청년들의 위훈에 대한 시
 적화폭이 흐르고 영웅적투쟁에 대한 시적묘사와 열
 정넘친 주정토로속에서 그리움의 정서가 더 세차게
 굽이쳐 간다. 그가 발휘하는 비상한 정서적감화력
 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 같은 숭배와
 다함 없는 그리움, 《온 나라가 다 자도 장군님과
 우리만은 일한다》며 장군님과 뜻을 함께 하는것을
 영예와 긍지로 여기는 청년들의 심장에서만 기적이
 창조될수 있다는 뜻 깊은 진리를 해명하는데로 지
 향되고 있는데 있다.

5만명 청년돌격대원들이 부르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대합창,
 관람자는 없었건만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
 며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의 그리움의 대합창을 보
 여 주는 장면에서 서사시는 이렇게 긍지높이 선언
 하고 있다.

일심단결의 대합창
 혼연일체의 대합창
 수령절대의 숭배
 수령결사옹위의 정신만을 지닌
 500만 청춘 총폭탄이 터치는 소리
 조선의 500만 《청년인공지구위성》이
 저 우주로 발사되는 소리

이것은 수령절대의 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높
 이에서 조선청년들의 참모습과 위력을 발견한 품위
 있고 심원한 시형상이다. 그래서 조선청년의 힘은
 무한대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이라는 여기에 조선청년들
 이 이룩한 모든 기적과 위훈, 영웅성에 대한 시대의
 대답이 있다.

이러한 시적형상은 우리의 청년건설자들이야말
 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과 같은 수
 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의 체현자들이며 이 투철
 한 수령숭배,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있는 곳에 조선
 청년의 혁명적열정과 고귀한 피땀으로 엮어지는 영
 용서사시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한다.

바로 그때문에 서사시는 《사랑의 천만리/그리움
 의 천만리》우에 서서 《**김정일**시대 청춘 만세!》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청년중지사상 만세!》의 심
 장의 격정을 터친 열정의 찬가, 위대한 장군님에 대
 한 가장 뜨거운 감사의 노래로 되는것이다. 이것이
 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기세차게 진군하
 는 선군시대, 오늘의 시대의 주도적사상감정이며
 여기에 청년중지사상의 위력으로 더욱 부강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담은 웅심 깊은

시형상이 있다.

서사시 《조국이며 청년들을 자랑하라》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또한 구성과 언어형상 등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확고히 담보되었다.

3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사시에서 매 장은 서로 구별되는 사상정서적내용을 가진 독자적인 구성단위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작품의 종자를 밝히는 데로 밀접히 연관된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관한 사건줄거리에 의거하지 않는 이 서사시에서 2절은 1장과 3장사이의 감정론리적연관성을 보장하고 그 모두를 하나로 쫓아갈 수 있는 형상적고리로 된다. 그것은 2장의 기본감정정서인 그리움의 정서가 총적종자를 정서화하여 꽃피우는 감정의 바탕으로 될뿐 아니라 개별적장들의 형상과제를 뚜렷이 밝혀내는데서와 시전반의 일관된 감정흐름, 감정의 조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때문이다.

그리움의 강점을 서사시의 기본흐름으로 관통시켜 나가야만이 다양한 사건과 일화, 사실들이 하나의 형상권내에서 완벽한 감정론리로 맞물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과 그 생활력을 천명하는 종자의 요구를 원만히 구현할 수 있다.

그리움의 정서, 이것이 1장과 3장을 이어주는 중간위치에 놓인것은 작품의 골격을 세우고 형상을 집약화하며 구성의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은 물론 시의 사상적내용, 시적대상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구성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사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생활에 대한 감성적인 파악에 기초한 깊이있는 사상과 풍부한 정서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한것이다.

서사시의 언어형상적위력 또한 비할바없이 크다.

정론적인 높은 분석력과 커다란 개괄력을 가진 언어구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사색과 여운을 안겨준다. 그것을 평양-남포관광도로를 두고 다만 천지개벽이 아니라 위대한 청년민음이 창조한 청년개벽이라고 분석론증한 대목이나 청춘도로를 가리켜 《수령만세 부르며 500만이 돌진해 가는/리수 복영웅의 돌격로/길영조영웅의 비행로/정성옥영웅의 결승선》으로 노래한것을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사시의 언어형상은 결사의 투쟁, 전투적인 정황에 어울리는 화선식언어로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시인들이 도로건설장을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이 하나의 큰 전쟁을 치르어 내는 격전장으로 보고 거창한 현실, 전투적인 생활을 화선정서속에서 감수한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는 최고사령관의 새 작전구역/이 길은 강성대국건설의 전략도로/전투명령시간은/우리 당창건 55돐까지!》라고 한것이나 《누구나 혁명군대의 모습/혁명군대의 정신으로/최고사령부에 승리를

안고 가는 결전장의 결사대원들》이라고 노래한 언어표현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통속적으로 말해서 이 서사시에서 판내, 발파가 스내가 나고 격전장의 초연내가 물썬 풍겨 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실례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반나마 타고 찢겨온 수천켈레의 신발이며 옷들.../마치도 그것들은 뜨거운 탄피들인듯》, 《마흔다섯곳이나 기웠다는 흙마대/이제는 그 형체조차 알아 볼 수 없건만/마치나 마흔다섯곳의 총탄자욱인듯/마흔다섯곳의 피 흘린 상처자욱인듯》...

이러한 언어표현들은 꽃나이청춘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헤쳐 온 《고난의 천만굽이/눈물겨운 아픔과 피어린 시련》, 투쟁의 간고성을 되새겨 주며 끝없는 걱정속에 잠기게 한다.

서사시는 건설의 나날 실재한 력사적사실, 실재한 생활에 대한 진실하고 성실한 서사적묘사와 그와 함께 즐기차게 맥박치는 생활적서정, 진실한 생활감정의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 정서적양상의 서사시에서 서사성과 서정성의 결합이 생활의 실재성, 사실그대로의 생활적바탕위에서 마련되고 생활 그 자체의 감동성과 밀착된 양양된 시적묘사와 강렬한 주정에 의하여 서정성과 서사성의 결합이 훌륭히 실현되고 있는 여기에 또한 서사시의 시형상적특성의 하나가 있다.

서사시의 그 어디에 생활에 대한 과장이나 분석이 있는가. 우리는 임의의 어느 시련, 시 구절에서도 청년건설자들의 생활그대로와 진실한 감정의 토로만을 읽게 된다.

우리 청년들의 생활 그 자체가 그렇듯 고상하고 아름답고 솔직하고 순결하듯이 꾸밈과 가식이 없이 진실하고 소박하며 생활적인 시형상은 사람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사시에서 찾아 보게 되는 명작창작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여 서사시는 당의 요구와 의도에 대한 민감한 반영과 진지하고 깊이 있는 현실체험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을 눈물이나게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 서사시가 당보사실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시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의 위대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보여 주는 감동적인 사실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그 변혁적생활이 안고있는 정수를 서사시의 기본핵으로 확고히 심어 놓고 진실한 예술적형상으로 구현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만큼 당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고 투철하였기에 시인들은 우리 시문학에서 아직 담아 본적이 없는 어려운 현실, 간고한 생활도 서슴없이 시에 담은 것이다.

하지만 《등잔연기 돌가루에 피가래가 끓》는

《비좁은 발과굴》에서의 투쟁이나 《돌베개》를 베고 《흙포단》을 깔고 이슬을 맞으며 쪽잠 든 그들의 모습, 그것을 띠스로 삼는 청년들의 생활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안겨 오는 것인가.

선군시대 조선청년들의 생활, 격전장에서의 과감한 투쟁이 그토록 아름다웠고 그토록 감동적이었고 그자체가 그대로 영웅서사시였기에 세상에 없는 이야기들을 전하려는 시인의 심장은 초기 의도대로 짧게 썬여지는것을 용납할수 없었다. 오랜 기간의 현실체험과정에 시인들이 충격적으로 느낀 모든것이 시줄에 옮겨졌고 그래서 서사시는 어차피 《길어》졌다.

시인은 다만 감동적인 사실 그대로를 고스란히 시화하였을뿐이다. 바로 그때문에 명시구, 명시줄로 된 서사시를 두고 예술적환상의 대담성, 허구의 리용에 대해서라기보다 체험의 진실, 사실그대로의

감동성에 의거하였기때문이라고 평가하는것이 더 정확할것이다.

시인들이 정서적체험과 느낌이 그러하였던것처럼 서사시의 정서도 고요한 정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격동과 환희, 눈물도 있는 정서이며 그렇게 세찬 호흡과 박력으로 고속도로건설기백으로 차넘치는 정서이다.

우리 당의 요구와 의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느 하나 빈틈없이 정확하게 구현한 시인들의 높은 창작적립장과 자세, 현실체험이 우리 시문학이 남기는 경험과 교훈, 충격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다.

참으로 서사시 《조국이여 청년들을 사랑하라》가 그대로 우리 시대 청년격찬, 청년자랑이듯이 이런 서사시가 창작발표된것은 주체시문학의 또 하나의 큰 자랑이다.

비단의 념변

김정철

약산동대로 이름 높은 념변은
비단으로 그 이름 더 높습니다
념변이라 념변은 비단의 고장
장군님 다녀가신 비단의 고장

동대우의 진달래 고운 진달래
비단쪽에 피어나니 약산단이요
구룡강 맑은 물 파라니 물 들어
그 이름 그대로 구룡단이라

약산단 구룡단 천 짜러 가는
아침마다 녀인들 길 메우는 여기
비단 짚줄 모르면 념변치녀 아닌
념변은 념변은 비단치녀 고향

그대는 아십니까 사랑단이 뭔지
그대는 아십니까 일심단이 뭔지
내 나라 내 인민을 비단으로 차려 주자
더운철도 하지날에 오신 장군님

주시는 그 사랑이 씨실로 되고
따라서는 그 정이 날실로 되어
오리오리 엮어 가는 념변의 천은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단, 일심단

천주사의 밝은 달도 비단우에 떠오르고
철웅성의 금잔디도 비단우에 돌아
판서의 8경은 비단의 8경
념변이라 념변은 곧 비단입니다

피 묻은 당원증앞에서

신경애

오늘은 내가 당원이 된지 10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이날 당조직의 분공을 받고 나는 보통강기슭과 전승광장사이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며 우뚝 솟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다.

해마다 찾는 곳이었지만 내가 당원증을 품고 산 지 꼭 10년이 되는 이날에 피 묻은 당원증을 마주한 나의 심정은 류다른 감정에 휩싸였다.

네모반듯한 유리진렬대에 전시되어 있는 당원증들, 공화국기발을 새겨 넣은 당원증주머니와 당원증싸개... 판가리싸움에서 구멍이 뚫리고 불에 타고 피흘린 상처자욱이 오늘도 력력한 당원증들.

금시 그들의 체취가 풍겨 오고 당원들의 뜨거운 심장의 박동이 쿵-쿵- 들려 오는것만 같아 쉬이 발걸음을 땔수 없었다. 나는 무심히 스쳐 볼수 없는 당원증들에 새겨진 글발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신기철 생년월일 1923년 1월 23일

입당년월일 1948년 6월 23일

김중현...

최보현 생년월일 1932년 6월 20일

입당년월일 1953년 4월 17일

전사 1953년 6월 18일

입당한지 두달만에 전사!

거기에 찍여진 글줄을 가슴에 새기노라니 그 무엇에 찢리운듯 싶은 아픈 심정에 사로잡혔다.

당생활 두달과 나의 당생활 10년!

나는 지금껏 짧지 않은 나의 당생활 10년을 당원증을 지녔다는 크나큰 영예와 자부속에 살아왔다. 허나 그 자부가 피 묻은 당원증앞에서는 순식간에 무색해 짐을 금할수 없다.

온통 피가 스며들어 그 당원의 얼굴을 알아 볼수 없었지만 나는 그 당원중에 바쳐진 피의 무게와 나의 당원증에 흘린 땀의 무게를 가슴에 본다. 그리고 그 당원의 참다운 두달을 눈앞에 그려 본다.

하루에도 수십만발의 폭탄과 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져 아름다운바위가 불타고 바위가 재가루되어 휘뿌러지던 가렬처절한 고지에서 포탄상자를 책상삼아 또박또박 경건히 입당청원서를 써 갔을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입당청원서를 쓰며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탄광에서 굴이 무너져 숨진 아버지를 대신하여 연약한 어깨에 고역의 질통을 메지 않으면 안되었던 저주로운 나날들, 배고파 청얼대는 철 없는 동생에게 먹을것 대신 가슴 아픈 《매》를 들고 동생보다 더 크게 울었던 눈물겹던 나날들이 아마 주마

등처럼 흘러 갔으리. 그리고는 또 그러 보았으리. 그 설움과 원한 많은 눈물을 강그리 닦아주신 김일성장군님이 고마와 평양하늘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건국의 나날들과 사람답게 살아본 꿈만 같은 5년, 조국과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알게 해준 그 5년간이 밀물처럼 가슴에 안겨왔으리라.

자주적인간으로 사느냐, 노예로 되느냐, 자주적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결사의 판가리마당에서 그는 자주 듣게 되었다. 《로동당원들은 앞으로!》,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다.》

그는 또 보았다. 육박전의 최후결전에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당원들이었고 적화점앞에 서슴없이 가슴을 들이댄 사람들도 다름 아닌 당원들이었음을.

이런 인간이 되고저, 참인간으로 살고저 그는 조선로동당원을 열렬히 청원했으리.

허나 당원이 되어 두달.

너무도 짧게 산 한 당원의 생앞에 너무도 평범히 산 나의 당생활 10년을 세워 보느라니 머리 숙여짐을 어쩔수 없다.

그리고 어찌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으랴. 살아도 행복하게, 참답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다. 무궁할 세월속에 김일성장군님의 당원으로 긍지롭고 보람찬 당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바쳐야 할 순간에 자기의 가슴속에 움트는 아름다운 꿈과 미래, 목숨까지도 바치는것이 김일성장군님의 당원으로 한생을 빛내는 길이기에는 그는 서슴없이 이 길을 스스로 택했다. 조선로동당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안았다.

조선로동당원! 자기의 운명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할줄 알고 자기의 래일을 변영할 자기 조국의 미래와 결부시킬줄 아는 이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당원의 참모습으로 새겨 졌다.

한 당원의 당생활 두달! 그것은 당과 수령, 조국에 바친 깨끗한 량심과 심장의 붉은 피로 빛내여온 무한대이다. 또한 그것은 내가 평범한 생활로 수십년을 산다 해도 비길수 없이 값 높고 영원한 200년, 2,000년이다.

하기에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마다 피 묻은 당원증을 잊지 못해 하시며 오늘날에도 뜨거이 추억해 주시는것 아니런가.

그이께서는 이 나라 수백수천만 당원들중 한 당원으로서 당총비서가 되시어 영웅당원들이 울리는 충성과 승리의 보고, 피어린 당생활을 그때마다 뜨

거운 걱정속에 안아 보셨다. 영웅전사의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그들의 영웅적최후도 눈물겹게 그려 보셨다. 우리 당이 걸어 온 투쟁의 갈피마다 어려 있는 피어린 자욱자욱을 헤아려 보셨다. 그리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으셨으리.

그날에 하신 말씀 얼마나 내 가슴 뜨겁게 울려주는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피 묻은 당원증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찾아 볼수 없는 특이한 사적물이라고, 희생이 없는 혁명의 승리란 있을수 없다고, 오직 피의 대가로써만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로 승리만을 떨쳐 온 우리 당의 자랑스런 력사와 더불어 흐르는 세월속에 길이 전해 지는 당원들의 짧고도 빛나는 삶.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 힘과 용기를 준 피 묻은 당원증.

조국에 바친 피땀이 다 영생을 낳는것일가.

세상에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당들이 많아도 피 흘려 싸운 그 나라 당원들의 피땀 스민 당원증을 그들의 위훈과 함께 높이 내세워 준 나라는 없다. 일부 나라들에서 수시로 겹쳐드는 생활고에 부대껴 조국 위해 피를 바친 로병들의 당원증과 훈장이 전시장이 아니라 매매장에 나와 흥정판에 오를 때 우리 나라에서만은 포연이 가셔 진지 50년이 가까와 오는 오늘에도 예나 변함없이 당과 조국에 꽃나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당원들의 값 높은 위훈과 사상적재부의 산아인 당원증을 값높이 여기고 온 세상에 길이길이 빛내여 주고 있다.

백두산위인의 파사로운 사랑과 영원한 믿음이 있어 근 반세기가 되여 오는 기나긴 세월도 당원증에 새겨진 붉은 피와 땀을 지우지 못했다. 오히려 우리 당이 겪어 온 혁명투쟁이 얼마나 준엄하고 간고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가 당과 수령께 충성 다한 전위투사, 선봉투사들인 당원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마련된것임을 말해 주고 있구나.

나는 피 묻은 당원증앞에서 내가 조국앞에 서야 할 당원으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깨우친다.

우리의 품은 당원증에 선배당원들이 피로써 지킨 우리의 어제와 오늘, 미래가 비껴 있음을 뼈저리도록 느낄수록 내가 지금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는 당원증이 오늘따라 천근만근으로 무거워 저났다.

한 당원의 당생활 두달과 그가 60번도 더 살았을 120달에 걸치는 나의 당생활!

그 아름다운, 짧은 삶에 비해 내 얼마나 아득히 있고 그들이 창조한 영웅적위훈에 비해 당과 조국앞에 해놓은 일보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가.

포성이 울부짖고 총탄알이 비발치는 가렬한 전장에만 결사전이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앞을 가로 막는 오늘의 일시적인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헤쳐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투쟁도 무한한 영웅성과 헌신성, 희생성을 동반한다.

전화의 날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는 길에서 언제나 돌격전의 맨 앞장에서 나간 영웅당원들처럼 스스로 조국이 부르는 총포성 울리지 않는 결사전에서 돌격의 기수되여 나간적 그 몇번이던가.

당원증을 지녔다고 당원의 영예와 당원의 생명, 당생활이 빛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우기 오래 산 삶의 구간이나 평범히 흘러 가는 당생활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조국에 바친 피땀, 창조와 위훈에 있는것이다.

충성은 시간의 무적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가 바친 깨끗한 량심과 피땀의 함수임을 깨우치는 당원증! 그것은 곧 그 당원의 심장이거니.

지금 내앞에 있는 이 피 묻은 당원증은 조선로동당원임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표로만 안겨 오지 않는다. 피 묻은 당원증은 여기 진렬장안에서 이곳을 찾는 수백수천만의 당원들을 오늘의 투쟁으로 부르는 영웅당원들의 산 심장으로 툭-툭 세차게 뛰고련다.

당원들의 고귀한 품의 피의 대가로 안겨진 붉은 당원증을 내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빛내며 살리.

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기 피 묻은 당원증앞에서리라. 흑시라도 내 마음이, 당성이 약해 지는 때가 있거든 이앞에 또다시 서리라. 언제나 전화의 날 당원들처럼 조국이 겪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 가는 길에,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안아 오는 길에 언제나 혁명의 불씨되여 제1선에 서나가리라. 하여 우리 장군님의 기억속에, 우리 당의 영원한 기억속에 빛나는 참된 당원이 되고싶어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서며 나는 당조직에서 입당한지 10년이 되는 이날에 왜서 나를 여기 피 묻은 당원증앞에 세워 주었는지를 그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디선가 노래가 울려 온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 밝은 최고사령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데일가**

...

준엄한 전화의 나날 아버지수령님을 따라 충성의 천만리를 걸어 온 우리 당원들의 신념의 노래, 그 노래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따라 준엄한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가고가리니. 내 마음 담아 싣고 노래는 울려 퍼진다.

가없이 맑고 푸르른 10월의 하늘가에.

현실은 나의 스승이었다

《김일성상》 계관인 림재성

세기와 세기가 서로 손을 맞잡는 역사적순간에 피눈물의 바다, 고난의 험산준령을 헤쳐 넘어 온 지난 6년동안에 진행한 창작생활을 더듬어 보는 나의 심정은 자못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남들 같으면 열번도 더 꺼꾸려했을 그 어려운 나날 어떻게 60나이가 넘은 몸으로 구보로 달리는 조국에 발걸음을 맞추면서 한해에 거의 한편씩의 장편소설을 써내었는지 나로서도 놀라울 지경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만한 경험을 소개할 이야기거리는 별반 없다. 격동적인 사변으로 가득 찬 현실이 나로 하여금 쓰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창작적흥분을 일으켜 쓰고 또 쓰다보니 15년동안에 5편의 장편소설과 4편의 단편소설을 완성해 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현실에 실지 있는 인간이어야 하고 사람들결에서 늘 같이 숨쉬고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안겨와야 한다.》

나는 여러 기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된바 있지만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창작적재능이 인정되어 문단에 발을 들여 놓은것이 아니다. 열여섯살때부터 20여년간 철도운수의 여러 부문에서 일하는 과정에 직접 체험한 생활을 밀착 삼아 작은 형식의 산문들을 쓰군했는데 그런 창작습성은 60이 훨씬 넘은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간 있는 작가들은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형식의 자료만 보고도 단편소설뿐만아니라 장편소설까지 써내는데 나는 직접 현지에 내려가 체험해 보지 못하고는 단 한줄도 써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현실속에서 체험해 보지 않고는 도대체 묘사대상에 대한 묘상조차 떠오르지 않으니 창작적흥분이 일어 날수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모자라는 재능을 많이 보고 듣는것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쪼박시간이 생겨도 소설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현실속으로 뛰여 들어 간다. 나에게 있어서 현실은 작품의 종자를 제공해 주는 원종장인 동시에 어떤것을 어떻게 써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가 하는것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기도 하다.

나는 지난 6년동안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로서의 나의 생명력을 담보해 주는 현실체험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 나는 우산장에서 장편소설 《기관사》의 초고를 집필하는 과정에 뜻밖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였다. 그때 우리 인민들모두가 그러하였지만 나의 놀라움과 슬픔은 남달리 큰것이였다. 10대 나 어린 소년시절에 아버지, 어머니 다 잃는데다 옆친 데덜친 격으로 두다리 못 쓰는 병신이 되었던 내가 철도성일군으로, 당의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에는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고 많다. 그리하여 자나깨나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할 생각으로 가슴을 불 태웠다. 그중의 하나가 조국해방직후 수령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승리예로 이끌어주신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장편소설 《기관사》를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였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한자한자 심혈을 기울여 써나가는데 문득 아버지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나의 심정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순식간에 온 나라는 눈물의 바다에 잠기고 말았다. 나도 손맥이 풀려 한자도 쓸수 없어 창작전투를 진행하던 우산장에서 철수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크나큰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아무리 참기 어려운것이라해도 울고만 있을수 없었다. 인민들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분연히 일떠섰다.

나는 원고배낭을 지고 다시 우산장으로 나갔다. 그때 내 나이 이미 60에 이르렀지만 청년들 못지않은 정열과 패기를 안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려 57일동안에 초고를 완성하였다. 장편소설 《기관사》를 넘긴 다음 즉시 나의 현지체험 터밭인 철도부문으로 달려 나갔다. 나는 철도수송단위들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교시판철정형을 료해하는 과정에 백무선에서 10여년간 묵어 있던 통나무를 단 한달동안에 수송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미 여러 기회에 소개된바 있지만 백무선철길은 해발 1,700m 가 넘는 북계수를 분수령으로 하고 동에서 서쪽으로 백설령을 횡단하는 내륙의 작은 구간 철길이다. 자강도나 함경도, 강원도의 산세험한 산들과는 달리 파도처럼 완만한 기복을 이룬 고원지대인 백무선은 벌써 10월이면 찬 바람이 날카롭게 우짚고 령하 20℃이하로 기온이 내려 기차바퀴에 넣는 기름방망이가 얼어 렬차운행에 지장을 받는 형편이다. 반대로 림산사업소에서는 때를 만났다고 나무를 베고 역화물장으로 날라 온다. 이렇게

추위는 통나무생산에는 유리하고 철도수송에는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는데 두 부문간의 분쟁에서 지는것은 언제나 철도였다. 그리하여 벌목공들이 애써 베어 놓은 통나무들이 역화물장에서 여러 해 묵고 지어 썩기까지 해서 땔나무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철도성 운수국사령실에서 여러해동안 수송지휘를 해온 나 자신도 백무선에서의 통나무수송은 어쩔 수 없는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런 엄혹한 자연의 도전속에서 전설 같은 기적이 일어 났다.

나의 머리속에는 번개치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나는곳에는 반드시 기적을 창조한 사람이 있는 법인데 그들이야말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받들고 불사신처럼 일떠선 시대의 전형들이 아니겠는가. 나의 마음은 우리 시대의 담당한 전형들이 살며 일하고 있는 백설령으로 달리였다. 마음은 그렇듯 불 같았지만 망설임이 없은것은 아니였다. 나는 철도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철도가 있는 곳이라면 거의 다 가보았지만 백무선만은 가보지 못했다. 사령보고를 통해 그 고장에서는 삼복철에도 밤에는 숨웃없이 건디기 어렵고 겨울에는 립동전에 벌써 기름방망이와 제동통이 얼어붙어 짐차가 움직이지 못할만큼 대단히 추운 고장이라는것을 알고 있을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통나무수송현장인 백무선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때는 12월, 년중 제일 추운 때인데 나이도 적지 않으니 명년 봄에나 가보는게 어떠냐고 권고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평양에 편안히 앉아 취재할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없었다. 내가 바라는것은 철도일꾼들이 짧은 시일에 통나무수송을 얼마만큼 했으며 그 과정에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는 자료가 아니라 엄혹한 자연 환경에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다기차게 일하는 기적의 창조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일하는 모습도 보는것이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료취재가 아니라 현실속에 뛰여 들어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었다.

내가 탄 북행열차가 백무선의 시발역인 백암역에도착한것은 하루중에도 제일 추운 밤 1시경이였다. 그런데 어찌나 추운지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몸의 떨림을 막을수 없었다. 사지가 잠시도 안정하지 못하고 와들와들 떨리는것도 참기 어려웠지만 오금이 얼어 붙은것처럼 떨어 지지 않아 걸음을 옮겨 디딜수 없는것이 더 괴로웠다. 나는 몇해전에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로 출기로 소문난 몽골에, 그것도 대소한이 끼여 있는 1월에 가서 여러 날 목은바 있지만 이렇게 지독한 추위는 처음 보았다. 그런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조차원과 련결원들은 차같이 기관차와 렬차편성에 매여 달려 신호를 하고 검차원들은 도착한 렬차를 검사했으며 화물중계장에서는 상하차기중기들이 쉬임없이 노래 부르듯 달달거리며 돌아갔다.

나는 가슴 뭉클한 감개와 함께 비록 추위에 떨면서 고생을 좀 하기는 하지만 현지로 내려 온것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것을 순간순간 느끼였다.

철도운수일꾼들이 어느 때 같으면 한해동안에도 못할 방대한 물동을 어떻게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송할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다음 날이 더해만지는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통나무수송때문에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불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백설령의 추위를 이겨 내고 기적을 창조했던것이다. 이것을 어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수 있겠는가. 나는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속에서 상하차공들과 함께 밤을 밝히고 기관차를 타고 백설령을 넘나들기도 했다. 그 과정에 작중 인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되었으며 생활세부들과 작품 전반에 대한 표상이 점차 무르익어 가기 시작했고 현실체험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는 이미 장편소설 《백설령》의 줄거리가 완성되였다. 그리하여 장편소설 《기관사》를 출판에 회부하는 즉시로 《백설령》의 집필에 지체없이 돌입할수 있었다.

나에게는 장편소설 《수평선》과 《찬란한 미래》를 창작하던 과정도 교훈적인 시사를 준다.

내가 장편소설 《백설령》을 끝낼 무렵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후 어버이수령님께 충직했던 항일혁명투사를 원형으로 해서 장편소설을 창작할데 대한 과제가 제기되였다. 나는 우선 주인공의 활동을 연구해 보고 조국해방전후의 이야기를 전부 형상화하면 그가 수산부문에서 일하던 때를 기본 주축으로 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로로 제기되는것은 내가 바다생활을 잘 모르는것이였다. 그야말로 바다생활에 대한 체험을 실속 있게 하지 않고는 단 한줄도 쓸수 없는 형편이였다.

때는 1월이어서 바다날씨가 제일 사나운 철이였다. 나는 장편소설 《백설령》을 완성하기 바쁘게 소설의 원형으로 될 항일혁명투사가 많이 활동했던 신포로 내려 갔다. 거기에는 수산성전투지휘부가 자리잡았고 먼바다어로총국도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수산성을 대표해서 내려가 있는 부상을 비롯해 총국일꾼들은 내가 60이 넘은데다 배를 한번도 타본적이 없는 산골태생이라는것을 알자 하나같이 손을 내저었다. 젊어서 배를 타던 사람도 60이 넘으면 풍랑 사나운 정월에는 배를 타지 못한다는것이다. 배를 타보지도 못하고 어로공들의 생활을 묘사한다는것는 말도 되지 않는다. 작가생활을 오래동안 해온 동무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겠지만 70년대에 창작적기량이 높은 작가가 바다생활을 형상할데 대한 과제를 받고 10년이상 부진상태에 있으면서 말밖에 오른적이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작가에게 물어 보았더니 자기는 배멀미를 하기 때문에 배는 타지 못하고 어로공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밀천삼아 글을 쓰다보니 작품심의의견을 받을 때마다 새롭고 무거운 의견들이 자꾸만 제기되지만 수정완성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지에 내려 가서도 생활을 실속 있게 하지 않고 유람식으로 하다가 돌아 온 작가들은 오늘도 의연히 부진의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것을 종종 보게 된다. 내가 멀미를 무서워 배를 타지 않는다면 나 역시 부진의 수치를 면할수 없을것이며 설사 손끝 재간으로 소설을 써낸다 해도 누구에게서나 공감을 받지 못할것이다. 나는 배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빈손으로 돌아설수 없다는 비장한 결심을 품고 일꾼들이 귀찮아 할 정도로 끈질기게 달라붙어 끝내 배에 오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달을 기한부로 닦을 올린 배가 포구를 벗어 나기도 전에 금시 토할것처럼 속이 가래질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배멀미가 심하면 열물까지 토한다니 본인의 피로움은 말할것 없지만 선장을 비롯한 어로공들을 고생시킬것을 생각하니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돌아 설수는 없었다. 고기배는 한달동안 먼바다에서 어군탐색과 고기잡이를 하게 되어있었으므로 죽어도 살아도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했다.

나는 우선 선장과 부선장들에게 배멀미를 하지 않는 강한 체질의 사나이라는것을 시위할 필요성이 있었다. 나는 되도록 태연한 표정으로 조타실에서 아래층 선장실로 살금살금 내려 가 침대에 누웠다. 그랬더니 당장 토할것처럼 들끓던 속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졌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배멀미라는것도 결국 요령으로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1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다시 조타실로 엄금엄금 기여 올라 간 나는 이번에는 2시간은 아무 일 없다가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래서 다시 선장실에 가

서 《안정료법》을 적용했다. 그런 식으로 대엿새 지나니 선장까지 깜짝 놀랄만큼 모진 풍랑에도 끄떡하지 않게 되었다. 정월이라 바다날씨가 어찌나 변덕스러운지 방금전까지 잔잔하던 바다가 돌풍과 함께 갑자기 2m 나 그 이상의 높이로 끓어 번지기 시작하면 20대 청년어로공들도 뉘악 토하곤 했지만 나는 거창한 풍경의 황홀함에 넋을 잃어 버리고 구경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선장, 부선장들은 입을 딱 벌리곤했다. 나는 그때 무엇을 생각했던가. 산골에서 태어나 총을 잡고 한두 산에서 싸우다가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너무나도 생소한 바다에 나온 항일혁명투사가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고 그의 사색 전부가 나의것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생소한 바다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창작적흥분이 오지 않으며 환상이 나래치지 않겠는가.

내가 탄 고기배가 탐색선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마치고 신포항으로 돌아올 때 나는 이미 장편소설 《수평선》의 줄거리를 완성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강계정신을 반영한 장편소설 《찬란한 미래》도 창작했으며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대홍단군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닭이 알 낳듯 편속 장편소설을 써내는데 대해 의혹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것은 장편소설 1편을 쓰는데 4~5년 혹은 그 이상의 시일을 소비하기가 일쑤이기때문일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 그것도 시대정신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 안고 끓어번지는 현실, 생활속으로 뛰어들어 가라고 서슴없이 권고한다. 그러면 현실이야말로 소설의 종자를 제공해 주는 원종장이고 창작적 충동을 불러 일으켜 주는 스승임을 알수 있을것이다.

가사

영웅의 고향집

송찬웅

배꽃이 하얗게 핀 산기슭에는
영웅이 나서 자란 집이 있다네
이 집을 떠난 아들 하나였어도
이 집을 찾는 아들 많고많아라
아 영웅의 고향집이여

어릴적 꿈나래 핀 학교마당엔
영웅의 반신상이 세워 저 있네
그날엔 작은 이 집 다 몰랐어도

오늘은 온 나라가 알고 있어라
아 영웅의 고향집이여

조국에 한몸 바친 위훈 없다면
영웅의 고향집이 어이 빛나라
장군님 베푸시는 그 사랑 넘쳐
언제나 이 집 문은 열려 있어라
아 영웅의 고향집이여

시조

청춘이여 이 길로 가자

김상조

붉은기행진

노을 비낀 바다의 물결인가
장엄한 해불의 설레임인가
로반우에 달리는 수천, 수만의 기록
붉은기행진

기발은 달려야 날리는것
기발은 달려야 승리가 있는것
기발은 날린다
기발은 달린다

맞들이 대오의 앞머리에
만짐 싣고 달리는 차창가에
《날 따라 앞으로!》
구령치는 지휘관의 땀 배인 손에

아, 붉은기, 붉은기행진
저 기발의 달음엔 정녕
청춘의 노래와 웃음이 울린다
청춘의 땀과 맥박이 뚫다
죽어도 영생하는 삶의 맹세가 끓는다

평양에서 남포까지
남포에서 평양까지
붉은 파도되어 노도쳐라
고속도로건설장의 붉은기행진
청춘의 심장 송두리채 타번지는
10월에도 붉은기행진이여!

청춘의 좌지

정말 물랐구나
우리 애송이 청년들이
뭐 한것 있다고
이렇듯 높은 치하 주실줄
과분한 평가 주실줄

정녕 금할수 없구나
우리 청년건설자들
금방석에 올려 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신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정

애송이 우리 청년들이
뭐 한것 있다고
고속도로건설 시작때부터
선물과 훈장, 메달을 안겨 주시고
감사까지 보내주시더니

그 무엇이 모자라
오늘은 이렇듯 우리 청년들을
높은 단상에 세워 주시는것인가
이 땅의 그 누구도 차지해 보지 못한
값 높은 좌지에

아, 장군님 부르시는 길에
한목숨 바쳐 싸움은 우리 청년들의 의지
시련의 광풍 웃음과 노래로 헤쳐 나감은
우리 청춘들의 환희와 랑만

정녕, 우리가 설 자리
우리 청춘들이 설 자리는
장군님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좌지
이 좌지여라
우리 청춘들의 금방석자리는...

평양 가는 날

새벽부터 왜 이다지 떠들썩한가
아침부터 왜 이다지 번거로운가
평양에 가는 날은 오늘 처음 아닌데

돌격대 창문들 활짝 열리고
호실마다 한가득 차고 넘쳐라
깡깡대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저 바라, 저저마다 큰 거울앞에 서보는
넥타이웃차림 멋지구나
분홍치마저고리 날듯 하구나

기쁘고 즐거워 들뜨는 이 아침
웃맵시, 머리단장 곱게 하여라

분내, 향수내 맘껏 풍겨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알찬 로동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진 돌격대 처녀들아
역센 사내대장부들아

이젠 그만 려장 들고 어서 나오렴
장군님 보내주신 사랑의 뺨스
어서 가자 경적높이 울린다

모두 나와 타라고
빠짐없이 오르라고
옥류관 만두상이 기다린다고

아, 장군님 은정에 떠받들리워
돌격대원들 또다시 평양 가는 날은
큰 상받는 청춘의 잔치날!

미래에 주는 유물

나는 가지고 있다
미래에 주는 유물
려단 전람회에 내놓았던
해진 마대, 모지라진 함마...

타오르는 우등불엔 달빛에 비추어 가며
수백번이나 기워 파뿌리가 된 마대
열편 돌까기와 손뿔이작업으로
강철머리 다 벗어진 함마

나는 고이 간수하고 있다
날리는 눈비와 찌물쿠는 더위속
달리는 나의 어깨우에 거침없이 없혀지고
한밤에도 정머리에 퍼런 불꽃 일쿠던
내 구슬땀 배이고 피자옥 어린
나의 살불이-

무심히 버릴수 없다
장군님 TV화면으로 보아주시고
장군님 감동깊이 헤아려 주신
기계보다 사람의 힘이 그 얼마나 무서운가를
세상에 돋보여 준 나의 마대여, 함마여

너는 말해 주리, 속삭여 주리
먼 후날 이 유물에 대해 묻는 후손들에게
이 유물의 주인이 누구였던가를
그들이 어떻게 강성부흥의 대통로 열어놓았던가를

오, 나는 가지고 있다
미래에 주는 유물
력사박물관에 정히 놓일
해진 마대, 모지라진 함마...

직승기에 부치여

황토색 먼지 뽀얗게 날리던 백리로반우
씻은듯 맑게 개인 상공에
떴네, 직승기 한대
머나먼 전선길에서
장군님 띄우신 직승기 한대

우리의 건설모습 화면에 담으려
하늘가에 날개 휘저으며
우리 가슴 흔들며 날아 오네, 날아 오네

어서 오라, 직승기여
첩첩 야산과 강하 꿰지르며
새롭게 펼쳐진 고속도로 따라 항로 잡으라
렌즈를 맞추라

찍으라
만경대갈림길에서부터
저 멀리 백리 남포 입구까지
시원하게 뻗은 청춘로반
우리 건설의 첫삽을 뜨던 력사의 지점

10만산 발파를 터치던 등성이구간
기울어지는 교각을 가슴으로 안아 세우던 다리...

이제는 그우에
드넓은 차길이며 자전거길
꽃나무 단까지 일매지게 펼쳐 졌어도
스치지 말고 다 찍으라

아, 건설의 나날에 우리 흘린 땀
우리 바친 열정과 불 타는 심장
우리 몸은 청춘의 행복과 풋사랑
한밤에 울리던 우등불가의 그 노래소리야
어이 다 렌즈에 담을수 있으랴

허나 우리 장군님 다 읽으시리
다 들으시리 다 새기시리
청년건설기념비와 함께 전해 갈
우리 청춘들의 그 위훈
우리 청춘들의 그 자랑을!

인민군대를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단편소설

자전거

장기성

련화는 도화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전연구분대에 군관으로 복무하는 막내동생이 출장길에 고향집에 잠시 들린다는 연락을 받은것이였다.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나 고향마을은 철길가가 아닌데다가 지금은 연유사정으로 농촌빠스들이 다니지 못해 진정을 다녀 오려면 백여리 길을 걸어야 했다. 도지경을 넘는 산골길이여서 자동차를 만나기도 험치 않았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나 한것에 60리 길을 축내고 지금 길가 나무 밑에서 점심요기를 하면서 다리섬을 하고 있었다. 어지간히 지친 그는 행여나 화물자동차가 오는것이 없을까 하여 이미 지나온 길쪽으로 눈길을 보내었다.

한 중년사나이가 자전거를 밀고 오는것이 눈에 띄었다. 련화는 무심중에 그를 여겨 보다가 자전거 짐대가 비어 있는것을 보고 저 자전거신세라도 졌으면 하는 생각을 불쑥 했다. 초면남자의 자전거뒤에 붙어 앉아 간다는것이 좀 멧적은 일이겠지만 장판지가 빠근해 나는 지금 그런 체면쯤 가릴게 뭐라 하는 타산이 앞서는것이였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밀고 올가? 어디 고장이 났나? 처녀때 이미 자전거를 익힌 련화여서 자전거란 다이야가 정상이고 사슬만 끊어 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탈수 있다는것쯤은 알고도 남았다. 그 사람이 밀고 오는 자전거는 정상이였다.

중년사나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련화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었다.

《예, 석암리 소재지까지 갑니다.》

《저의 다 왔구만요.》

련화는 다소 실망을 했다. 석암리 소재지까지는 이제 10리쯤 가면 된다. 거기서도 자기가 가는 도화리는 30여리 더 가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10리 길을 축내는것도 어디인가. 그는 비위를 부렸다.

《저는 도화리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신세를 질수 없을까요?》

《...》 사나이는 선뜻 응대를 안했다.

《좀 도와 주세요. 전 이미 60리를 걸어 왔더니 지쳐서 그렇습니다.》

련화는 사나이가 가방까지 있는 자기를 뒤에 태워 가기 난감해서 바재이는것 같아 애바른 사정을 했다.

《이 가방은 무거운게 아니랍니다.》

《하 이거 야단이군. 사실 난 자전거를 탈줄 모르오.》

《?...》

《이 자전거도 내것이 아니구.》

《??》

련화는 한가닥 기대가 끊어 져 나가는 실망감속에 이 사람이 남의 자전거를 왜 밀고 가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다.

《이 자전거주인은 신암체신분소의 우편물송달원 아바이라는데 나는 본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오.》

련화는 한층 더 알쏭달쏭해 졌다.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사람이 한번 본적도 없는 사람의 자전거는 왜 밀고 가는가? 이 사람이 간다는 석암리 소재지에서 선암체신분소까지는 련화 자기의 고향마을을 지나 연 50리길이 아닌가. 이 사나이가 거기까지 자전거를 밀고 갈 잡도리인가?

《아주머니는 어디까지 가요?》

사나이가 물었다.

《예, 저는 도화리 소재지에 있는 친정집에 갑니다.》

《그래요?!》

사나이는 왜서인지 반색을 지으며 또 물었다.

《자전거를 탈줄 아오?》

《예.》

《아 그럼 됐구만.》

사나이는 무등 기뻐 했다.

《?...》

《내 이제 이 자전거에 깃든 사연을 들려 주고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겠소.》

사나이는 옆주머니에서 담배를 한대 꺼내 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체신분소아바이

심산속 신작로로 한덩어리로 된 두 군인이 힘겹

게 걷고 있었다. 그들의 철갑모와 두어께에는 위장망이 쳐 있었다.

훈련길에서 산발들을 횡단해 나가던중 발목을 상한 애송이병사와 그를 부축하고 있는 석줄배기 구대원이었다.

어쩔수 없이 대오에서 떨어 지게 된 그들은 행길로 내려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편을 리용할 작정이었는데 한정없이 기약 없는 차를 기다릴수없어 힘겹게 걷고 있는중이었다.

인적도 없었다.

군인들이 비척이며 한마장쯤 걸었을 때 앞쪽 굽인돌이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다.

병사들은 걸음을 멈추고 무심히 그 사람에게 눈길을 보냈다.

첫눈에 구레나룻이 유표한 나이지숙한 아바이였다. 자전거 짐대에는 신문통구리가 실려 있었다.

아바이가 지나치겠지 했는데 왜서인지 멈춰섰다.

《다쳤구만.》

아바이의 동정의 한마디가 어려운 고비에 놓여있는 군인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산야횡단훈련을 하다 그렇게 됐겠구만.》

묻지 않고도 부상경위를 아는것으로 보아 아바이도 언젠가 군사복무를 한듯 싶었다.

《내가 뭐 도와 줄게 없을가?》

《!》

《!》

두 병사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리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녀려해주니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는것이였다.

《어서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걸느라오면 오는 차가 꼭 있을겁니다.》

상급병사가 막연한 기대인줄 알면서도 아바이를 속히 떠나보내기 위해 한 소리였다.

《가만, 자네 자전거를 탈줄 아나?》

아바이가 상급병사에게 물었다.

《예.》

《그럼 됐네. 이 자전거를 타고 가게.》

《?》

아바이는 제잡담 자전거 짐대에서 신문통구리를 풀어 내리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아바이는 출판물을 송달하는 중요한 일로 매일 이 산골길을 오가는것 같은데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급병사가 다급히 말리었다.

《일없네. 나는 이미 담당한 두개 리에 신문들을 나누어 주었어. 이제 한개 리만 돌면 돼.》

《그러면 돌아 갈 때는요?》

《그건 걱정 말라구. 군덴 너무 잔걱정을 해선 안돼. 어떻게 하나 자기 임무를 수행할 생각을 하면

돼.》

《아닙니다. 우린 도지경을 넘어 앞으로 훈련대오와 만나게 될 지점까지 멀리 가야 하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돌려 드리겠습니까.》

《자전거는 목적지까지 가서 길가 어느 집에 맡겨 이쪽으로 오는 인편에 부탁해 보내달라구.》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글쎄 내 하라는대로 하라니까. 군대일은 국사중의 국사가 아닌가.》

아바이는 더 옴니암니할게 없다는듯 신문뭉음을 옆구리에 끼고 성큼성큼 걸어 갔다.

《아 아바이, 그럼 아바이 직장파 성함은?...》

《오, 신암체신분소에 있네. 내 60년대 병사일세.》

《!!》

두 병사는 점도록 아바이의 뒤모습을 쫓았다.

그들옆에는 아바이의 자전거가 남아 있었다.

길가집 할머니와 청년

《좀 서라구. 어디까지 가나?》

머리칼이 새하얀 할머니가 길가에 나서 지나가는 청년에게 말을 건넸다.

《새별군 읍까지 갑니다.》

《아 맞춤 만났구만. 자네 자전거를 탈줄 아나?》

《예. 타도 잘 탑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청년은 영문을 알수 없어 이렇게 물었다.

《자네 증명서를 좀 보여 주게나.》

《?》

청년은 아연해 했다. 이 할머니가 실성한것이 아닌가? 지나치는 길손을 멈춰 세우고 이 무슨 왕청같은 소린가.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두서 없는 말을 던져 상대가 어리둥절해 함을 알아 차리었다.

《오, 내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그러네.》

할머니는 얼마전에 집에 찾아 들었던 두 병사가 자전거를 맡기던 일을 이야기했다.

《군대들은 저 뒤산 지름길로 해서 가야 하기때문에 자전거가 더는 필요 없게 됐다고 하면서 자전거를 맡아 한시 빨리 주인에게 가당게 도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네. 그래 길가에 나서 새별군쪽으로 가는 사람을 찾던 중이네.》

《아 그렇습니까!》

청년은 감동되어 서둘러 자기의 증명서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 드렸다.

《할머니, 제가 그 군대들의 부탁을 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갖든 자전거지요.》

사나이는 라이타로 담배에 불을 붙여 한모금 빨

아 내뽐더니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지질조사원이요. 내가 저 룡산리의 가사산 어방에서 암석시편을 채취해 가지고 오는데 뒤쪽에서 한 청년이 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내옆에 내리더니 부탁할것이 있다는게 아니겠소. 생판 초면에 무슨 부탁을 하려는가 하고 의아해 하니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온 경위를 들려 주었소.

그가 목적지인 새벌읍에까지 와서 이쪽으로 가는 인편을 찾아 보니 없더라오. 청년은 군대를 도와 귀중한 자전거를 선뜻 내주고 신문송달을 위해 먼 산 골길을 걷고 있을 체신분소아바이를 생각하니 자기 목적지에 다 왔다고 지체할수가 없더라오. 그래 계속 달려 자전거주인을 찾아 돌려 준 다음 자기는 걸어서 되돌아 갈 작정으로 오던 중이었소. 그 체신분소아바이의 소행도 감동적이고 또한 그 청년의 마음도 기특하여 나는 자전거를 탈줄 모르지만 내색하지 않고 넘겨 받았지요. 군대 나간 우리 아들이 탔던 자전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고 가서라도 주인을 찾아 주려고...

그러니 아주머니, 이젠 이 자전거를 아주머니가 넘겨 받아야겠구만. 자전거를 탈줄 알겠다, 또 선암 체신분소와 이웃인 도화리까지 가겠다. 그렇지 않소?!》

사나이는 신통한 대상을 만났다는듯 안도감을 표시했다.

사나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련화는 속이 후더워 남을 느끼었다.

아, 얼마나 훌륭한 소행들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인가. 낯선 군인들한테 자전거를 선뜻 내준 그 마음, 군대를 돕는 심정으로 자전거를 주인에게 어서 빨리 돌려 주려 애쓴 사람들, 이것이 총대를 한없이 중시하는 우리 인민의 성정이 아닌가!

련화는 기꺼이 자전거를 넘겨 받았다.

《제가 책임적으로 자전거주인을 찾아 돌려 드리겠어요. 자 그럼 제가 자전거를 몰테니 짐대에 올라 앉으세요.》

련화는 자전거의 손잡이에 힘을 주며 사나이에게 방그레 웃어 보였다.

《아니요. 내가 뒤에 타면 가는 시간이 더딜게요. 혼자 쟁쟁 달려 어서 빨리 자전거를 주인에게 돌려 주시오. 부탁이요.》

련화는 혼자 떠날수밖에 없었다. 자전거 발디디개에 힘을 주어 속도를 높이였다. 달리면서 그는 이제 멀지 않아 친정집에서 만나게 될 군관동생에게 이렇게 말할 생각을 했다. 군대를 생각하는 인민의 마음은 이처럼 뜨겁다고...

근로의 값

홍민식

분명

마치도 그 마치
낮도 그 낮
붓도 그 붓이건만

아니구나

아버지 할아버지세대들이 대대로
피땀에 절던 그 마치
등뼈가 굽던 그 낮
숙명에 울던 그 붓이 아니구나

로동의 희열

창조의 기쁨
주인의 자부가
광휘로운 저 은빛광채속에
얼마나 긍지로이 뽐어 나는것이나

바랐어도

마치 제홀로는 이룰수 없었고
낮 제홀로는 풀수 없었고
붓 제홀로는 지닐수 없었던 그 소원

마치와 낮과 붓을 하나로 뭉친

동지의 단결
일심의 단결로 성취했나니

아, 고마워라 위대한 당이여

그대의 불멸의 기치 그 빛발속에
수수천년 세월의 어둠에 묻혔던
주인의 모습, 인민의 초상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자래우는 근로의 값이
세상높이 푸른 대공에 빛나도다!

로당원의 숭고한 모습

신용선

작품취재를 위해 내가 7시에 도착한것은 오후 5시경이었다.

우리 나라 굴지의 공업지구인 항구도시의 7역은 바다가기슭 약간 둔덕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역구내를 나서면 첫눈에 흰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안겨온다.

삼복더위 여름철이어서 태양은 뜨거웠으나 바다의 다채로운 빛갈과 싱그러운 바다바람, 불역 저쪽에서 쿵-쿵 들려 오는 파도소리는 오랜 려행뒤끝의 피로와 땀 뻘 몸에 금시 시원한 물결이 와닿은듯한 찬기운이 감작되면서 이름할수 없는 유혹과 상쾌한 기분을 주었다.

나는 먼 수평선에서 신기루와 같은 물안개가 피여 오르고 잔파도들이 흰 포말을 날리며 씩없이 밀려 오는 모래불에 발자욱을 찍으며 취재목적지인 7수산사업소를 찾아 갔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곳 수산사업소 당비서였다.

생각했던것과는 다르게 체소하게 생기고 어로공 출신인 당비서는 바다사람특유의 웅글고 석직한 목청으로 나를 매우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두사람은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지기처럼 허물없이 인사말을 나누었다. 우리들은 담배를 서로 권하며 오래동안 마주 앉아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많은 경우 내가 묻고 당비서가 대답을 하였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자신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내 미치지 않았다.

어느덧 창가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살림집 창문마다에서 흘러 나온 전등불빛과 부두에 정박한 크고작은, 병긋거리는 선박등불빛들이 한데 어울려 불야성을 이루며 검푸른 물빛에 어리였다.

당비서 책상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전화기들이 때없이 주인을 찾았다.

그때마다 당비서는 손님인 나때문인지 짙막하게 대답하거나 지시를 주고는 인차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리고는 활달한 성미 그대로 서두르며 화제를 이어 나갔다.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 사업소 어로공들과 일꾼들은 참기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대신 그 어느때보다 더욱 당을 믿고 당을 따라...》

당비서는 또다시 말을 끊었다. 전화기가 종을 울

렸던것이다.

송수화기를 귀전에 눌러 대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던 당비서의 얼굴이 대뜸 굳어 졌다.

《뭐라구?! 박준보아바이가... 알겠소. 내 이제 곧 가겠소!》

《?!》

순간 나도 이름할수 없는 압박감으로 하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송수화기를 놓은 당비서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 다음엔 나에게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작가선생, 오늘은 이만합시다. 급히 찾아 가봐야 할분이 있어서...》

당비서는 초조와 불안때문에 뒤말을 채 하지 못했다.

《당비서동지, 박준보아바이라면 혹시 중형뜨랄로 원앙을 개척한 영웅선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 작가선생이 그 아바이를 어떻게?!...》

당비서는 무척 놀랐다.

《...》

나는 대답대신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속으로 찌릿한 아픔이 줄달음쳤다.

나는 박준보아바이를 잘 안다.

몇해전에 이 영웅선장을 원형으로 소설까지 창작한 나는 이번 취재길에 꼭 만나보리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우리 두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역전거리 해안동에 자리 잡고 있는 박준보아바이네 집을 찾아갔다.

방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식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친지들과 이웃들이 무거운 침묵속에서 환자를 지켜 보고 있었다.

당비서와 내가 방안에 들어 서자 사람들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마다엔 한결같이 커다란 슬픔과 상실을 눈앞에 둔 어둡고 피로운 그림자들이 비껴있었다. 하지만 침대우에 비스듬히 누워 있는 박준보선장은 입언저리에 가벼운 웃음을 띄우며 당비서를 반겨 맞았다.

《선장아바이, 내가 왔습니다.》

당비서는 영웅선장의 두손을 따뜻이 잡아 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맙수다. 당비서... 몹시 기다렸수다.》

가쁜 숨을 몰아 쉬며 힘겹게 말마디들을 번지는

그의 가슴우에 당원증이 없혀 있었다.

그것을 보는 나는 그 어떤 슬픔이나 애석함보다는 승엄하고 고귀하고 비장한, 말로써는 다 하지 못할 걱정과 힘짜이고 말았다.

그리하여 문가에 굳어 진채 영웅선장에게 인사말도 올리지 못하였다.

《평양에서 온 작가선생이 아니시오?》

박준보아바이가 목안에서 그 무엇이 뚫어 번지는 어조로 먼저 말을 건넸다.

그제서야 나는 영웅선장의 침대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선장아바이...》

불현듯 멍치끝에서 불덩어리 같은것이 치밀어 올라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선장아바이도 숨만 가쁘게 몰아 쉴뿐 다른 말을 더 하지 못했다.

그대신 장미가 수북하고 희끗희끗한 눈시울을 치며 나와 당비서를 지켜 보았다.

그 시선속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망감과 애수, 고통 같은것이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즐기차다고 말할수 있는 강렬한 섬광이 다 뚫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에 견디기 어려워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은 찢어 지듯 아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친근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림종을 목격하는 때라는것을 나는 이 순간처럼 깊이 절감해 본적이 일찌기 없었다.

이윽고 영웅선장은 당비서뒤에 서 있는 아들을 눈길로 찾았다. 그리고는 역시 눈길로 침대머리말에 있는 원탁을 가리켰다.

그 눈길이 무엇을 부탁하는줄을 깨달은 20대 막내아들은 원탁우에 놓여 있는 한장의 도면을 영웅선장에게 드렸다.

그러자 영웅선장은 도면을 당비서한테 넘겨 주며 처음보다 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비서동무, ... 프랄확대관을 새롭게 개조할데 대한 당조직의 분공을 채 완성하지 못한 이 불미스러운 당원을 꾸짖어 주시오. 도면은 완성하였으나 아직 시험은 못해 보았수다. 래일엔 꼭 바다에 나가서 시험을 해보려고 했더랬는데 이렇게... 당조직앞에 면목이 없수다.》

《...》

크나큰 감동과 흥분으로 하여 당비서의 얼굴은 삽시에 붉게 익어 번졌다. 도면을 받아 쥔 그의 두손은 마구 떨렸다.

흔히 사람들은 충격적인 사변이나 흥분 그리고 감동앞에서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지금 당비서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였다.

가슴속 밑창에서 용암처럼 끓어 번지는 감정을 간신히 누르고 있는 당비서의 두볼은 때없이 실룩거렸고 관자노리에선 피줄이 풀떡거렸다.

나의 심장도 견잡을수 없이 세차게 고동쳤다.

그 박동소리가 귀전에까지 들려 오는상 싶었다.

영웅선장은 시시각각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 쉬었다. 목에서 뚫는 가래소리가 방안의 공기를 사정없이 압박하였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던것이다.

영웅선장도 자신의 최후를 의식하였는지 잠시 감고 있던 눈을 가까스로 뜨며 당비서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온 심신의 힘을 깡그리 모아 가며 말했다.

《당비서동무, 내 막내아들 경철이녀석을 부탁합니다. 훌륭한 바다사람으로 키워 주시오.》

《준보아바이, 걱정 마십시오. 어제 저녁에 프랄선 09호 세포비서가 나를 찾아 왔더군요. 경철의 입당문제를 토론하려고 말입니다.》

《입당이요?!》

영웅선장은 무척 놀란 어조로 당비서의 말을 되뇌이고는 두눈을 스크르 내려 감았다.

그 다음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당비서동무, 우리 경철이는 당원구실을 하자면 아직도...》 하며 고개를 가로 젓는 그의 얼굴에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진중하고도 경건한 빛이 비껴 있었다.

《당원이란 받아 안은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지 그 어떤 명예나 직위를 위한...》

영웅선장은 여기서 말을 더 잊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동을 멈춘 그의 심장우에는 붉은 당원증이 그대로 없혀 있었다.

그날 밤에 나는 백사장우를 끝없이 거닐었다.

밤바다는 잔잔하였다. 철썹-처절썹 방파제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는 발밑에서 고요히 울렸다.

시원한 바다바람에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날리었다. 했건만 나의 온몸은 불덩어리마냥 달아 올랐다.

그것은 로당원의 숭고한 최후를 목격하면서 장장 반세기이상 승리와 영광을 떨쳐 온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과 창창하고 밝은 래일을 심장으로만이 아니라 리지로써 깊이 깨닫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여 나가는 애국의 열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에서

시조

땀에 대한 찬가

유영하

땀이란 무엇인가

땀
땀이란 무엇인가

한땀기 제 땅이 없이
남의 밭에 명줄을 걸고
허리 굽도록 멎을 끝 때
땀은 무엇이었던가

몇몇놈들의 부귀영달을 위해
만백성이 피땀을 흘렸건만
차레진진 빈궁뿐이었으니
오, 그날의 땀은 무엇이었던지
혈뺏고 주린자의
눈물이 아니었던가

땀이
근로의 땀이
인민의 행복으로 되기까지
몇만년이 걸렸던가

성실한 땀이
오곡을 무르익혀
귀한 목숨 살리고
그 땀이 진보의 길

문명의 대통로를 열어 왔건만

땀의 소중함을 알아 준 이 없고
땀을 빛내 준 세월이 없어
흘릴수록 시들어 가던 인생들을
그 누가 보석처럼 빛내 주었던가

세월을 두고 흘린
제 땀의 값으론
한방울도 빛낼수 없는
땀,
땀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품에 안겨
나라의 주인된 나의 삶이 있고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비껴 있는
땀은 정녕 흘리고흘려도
더 흘리고 싶어 바치는
나의 불 같은 열정의 샘

아, 땀
흘릴 때마다
깊어만 지는 생각이여
갈수록 더해만 가는 고마움이여

삶의 생명수

붉은 넥타이 날리며
《소년단립》 가꿀 때
나는
땀과 인연을 맺었다

중학생모표를 번쩍이며
어머니 일손 도와
농장벌에 푸른 모 심어 갈 때
나의 땀은
고향의 들을 가꾸었고

서슬 푸른 총창을 비껴 들고
조국을 지켜
칼벼랑 타고 넘을 때
나의 땀은
일당백 힘을 키웠다

오, 그렇게 일찌기
나와 인연을 맺어선가
무슨 일을 하든
있는것 다 바쳐야
마음 가벼워 지는 땀!

아낌없이 바칠 때
힘겨움보다 먼저
기쁨을 맛 보았고
일한 피로보다
삶의 환희가 더 컸더라

힘껏 땀 흘린 보람 안고
박수속에
축하의 꽃다발도 받아 봤고
혁신자들과 나란히
대회의 높은 연단에도 올랐거니
땀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그것을 바치면
아름다운 삶이 만발하고
아니 바치면
인생은 락엽이 되고
삶은 열매 없는 가을이 되거니
땀은 정녕 내 삶의 생명수

아름답게 가꾸리라
나의 땀으로
마음도 봄날처럼!
생활도 봄날처럼!
인생도 봄날처럼!

땀은 사랑속에 빛난다

그리움에 젖어
일손을 다그치니 하는 생각
우리 장군님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실가

꼭아 보면
장군님 제일로 사랑하시는
시대의 영웅들
우리앞에 서 있는
아, 눈 부신 별 정성옥

소문없이 달리던
단발머리 시골소녀가
세계마라손강자들을 딛고 올라
장군님의 하늘 같은 사랑을
받게 된 비결은,
그 비결은 무엇이던가

땀, 땀이더라
105리 주로에
비 오나 눈 오나 바람이 부나
흘리고 또 흘린
천만 훈련의 땀방울

그 땀을
아니 흘렸다면

지지는 땀별
숨 막히는 열풍을 뚫고
장군님 바라시는
그 높은 단상에 오를수 있으랴

아, 땀이
그토록 귀해서
우리 장군님
초소에 가시면
훈련에서 땀 흘리는
병사들을 먼저 만나 주시고

일터에 가시면
그 누가 보건 말건
나라와 인민을 위해
땀을 묵묵히 바치는 사람들을
숨은 공로자
숨은 영웅으로 내세우는것 아니라

그리움에 젖어
일손을 다그치며 하는 생각
땀 흘리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버이장군님을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릴 생각뿐이여라

땀과 피

피 흘려
찾은 내 나라
땀 흘려

일떠세워야 했기에
선렬들의 피 젖은 붉은 기폭에
우리 수령님

땀 젖은
마치와 낫과 붓을 새겨 주시고

피를 바쳐
지킨 내 조국
땀을 바쳐
빛내야 하기에

선렬들의 피 붉은 이 땅우에
우리 장군님
탑을 높이 세워
그 마치와 낫과 붓을 빛내 주셨거니

마치를 추켜 든 팔뚝에

낫을 거머쥔 주먹에
붓을 틀어 쥔 손에
땀이 흐르지 않는다면

피로써 찾고
피로써 지킨 이 땅은
다시 침략자의 군화에 짓밟혀
피를 토하며 몸부림치려니

오, 땀이자 피
피자 땀이 아닌가
그 땀을 오늘에 바치지 않는 사람
어찌 준엄한 날 피 흘려 조국을 지키랴

땀을 흘리자

로보트가 사람을 대신하고
인공위성이 우주를 정복한다고
이 시대엔 진정
땀과 인연이 없던가

과학의 시대라고
너나없이
땀과 인연을 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랴

땀으로 가꾸지 않은 땅은
가뭄 든 논고처럼 메마르고
세월을 두고 쌓아 올린
억만재부는 밑창나려니

땀
땀을 흘리자
귀여운 아기의 장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어머니라면
태 물은 고향의 미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려운 오늘을 두고
가야 할 먼길을 두고
말로만 걱정하는
우국지사되기 전에

땀
땀을 흘리자

말로야
누구인들 애국자가 못되랴
하지만
열변을 토하는 천백마디 말로는
종이 한장 옮길수 없거니

땀,
땀을 흘리자
흘리는 그 땀속에
이 나라 녀인들의
웃음을 꽃피울
쌀이 있다 물, 불...
바라는 모든것이 다 있다

있다
흘리는 그 땀속에
기계가 있다
과학이 있다
세계를 딛고 설 강성대국
조선의 미래가 있다
오,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숨 쉬고 있다

시대와 인간, 열망

-장편소설 《열망》을 읽고-

리용일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다.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애로를 박차고 강잉하게 일떠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리는 이 길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은 얼마나 역세여 지고 아름다와 졌는가.

우리는 소설문학의 갈라갈피에서 이 참된 인간들을 반갑게 만나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마땅히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장편소설 《열망》(김문창 작)의 사상예술적성과를 두고 최근 소설문학의 발전면모를 궁지롭게 감득하게 된다.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때에도 자력갱생기지를 꾸려 놓고 현대적인 기계인 선압기를 만들어 내며 대상설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해내는 주인공인 당비서 전영범을 비롯한 이 기계공장의 로동계급들, 간고한 투쟁속에서 시대의 요구를 한가슴에 지닌 불굴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장편소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어떤 혁명정신이며 그것이 시련의 나날에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였는가 하는 거대한 시대적의의를 가지는 사상주제적과제를 제기하고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백두의 밀림속에서 창조된 이 혁명정신에는 오늘의 시대정신이 비껴 있으며 시대의 특징이 집약되어 있다.

오늘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고 누구나 말은 쉽게 할수 있지만 그에 대한 리해와 실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다.

그것은 사람들의 사상적준비도와 기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당비서 전영범, 기사장 강형모, 지배인 최관형을 비롯한 인간들의 생활을 파고들어 자력갱생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가 실지 현실생활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있게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가는 그들의 생활의 밑바닥에 시종일관하게 굽이치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숭배심과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것을 힘 있게 강조하였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시대정신이 약동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관한 문제를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값 있는 삶을 빛내이기 위한 문제로 제기하고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여기에 바로 작품이 제기한 문제의 혁신적의의가 있으며 이 소설이 우리 문단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된 근본요인의 하나가 있다.

물론 지난 시기 적지 않은 현실주제의 소설작품들에서 자력갱생하는 일군들과 로동계급들의 모습을 형상하였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와 같이 그것을 인간학적문제로 전환시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해명한 작품은 찾아 보기 힘들다.

이 소설의무게 있는 사상주제적과제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눈앞에는 주인공인 당비서 전영범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영범의 형상은 우리 시대 당일군형상에서 제기되는 미학적문제에 일련의 긍정적시사를 주는 의의 있는 형상이라고 본다.

《하자, 하면 된다!》

기계설비도 불비하였다, 기술수준도 어리고 자재도 부족하였다. 게다가 기사장 강형모는 《고난의 행군》을 하는 때에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밖에 못 만든다는 현대적인 선압기를 우리가 만들수 있겠는가 하고 하면서 머리를 가로 젓기까지 한다.

이에 대하여 《하자, 하면 된다!》라고 반발해나선것이 바로 당비서 전영범이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배짱과 담력을 가지게 한것인가. 그는 남 다른 기술이나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었다. 남 달리 뾰족한 수가 있는것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려하시오 바라는 문제는 반드시 해내야 하며 또 반드시 해낼수 있다는 확고한 결심, 혁명적신념과 의지로 고동치는 심장이 있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전영범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며 그이께서 주신 과업을 그 어떤 난관과 애로속에서도 결사관철해 가는 기수로서 우리 시대 참된 당일군의 전형으로 형상하였다.

인간의 진모는 순탄하고 평범한 때보다 어렵고 존엄한 시기에 더 잘 나타난다.

《고난의 행군》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나

날이었으며 애로와 난관이 겹겹히 막아 서는 걸음 걸음이었다. 힘겨운 나날에도 전영범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공장 로동계급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자력갱생의 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해 왔다.

우리 손으로 선압기를 만들데 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가시려는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는것이다.

또한 그 투쟁과정에 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의 참된 주인,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웅심 깊은 의도가 숨배여 있는것이다.

하기에 전영범이 자기 사업에서 힘을 넣는것은 기술문제의 해결보다도 사람들에게 대한 사상교양사업이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의 개변과정은 자로 쥘수도 무게로 달수도 없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쉽사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술문제를 푸는것보다 몇배 더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관철해 가는 길이기에는 그는 자력갱생기지를 꾸리는 사업이나 대상설비생산을 질적으로 하지 않고 선압기 만드는 일도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 자력갱생을 한다고 말공부만 하는 기사장도, 나이와 건강상태를 핑계로 우는 소리만 하면서 자리지킴을 하는 주강직장장 윤병암도, 기사장의 그릇된 사상에 물 젖어 선압기설계도면을 구겨 박았던 기사 한석민도 자기 힘에 대한 신심과 시대적열망으로 가슴 불 태우는 자력갱생의 인간으로 키워 가는것이다.

주인공 전영범이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추호의 동요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의도를 받들어 사람들을 자력갱생하는 참인간으로 키워 가는 바로 여기에 시대의 높이에서 새롭게 발현되는 당일군의 사상적면모의 하나가 있다.

소설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앞채를 메고 나서서 이신작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의 모습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해 가는 기수로서의 당일군의 참모습을 인상 깊게 느끼게 한다.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웨치며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해 가는 투쟁의 선두, 바로 여기가 우리 일군들이 서야 할 자리인것이다.

주인공 전영범은 선압기제작에서 걸린 문제를 풀 때에도 언제나 앞장에 서서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방도를 모색하였다.

전기로에 쓸 마그네샤크링카벽돌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것이 전영범이 아니었던가. 그는 눈썹이 날리는 음산한 겨울날 바다가의 광채처리장에서 땀뻘 바람과 차거운

바다물도 아랑곳 않고 사장된 마그네샤크링카벽돌 수집사업에 앞장 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전영범이 대상설비생산계획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머리와 손에 봉대를 감은채로 입원실을 뛰쳐 나와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은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관철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결사관철해 가는 불굴의 모습으로 안겨와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후덥게 한다.

어떻게 되어 그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을 자력갱생의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것처럼 노력하는것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가는 투쟁의 앞장에 서도록 한것인가?

소설에서는 여기에 대답을 줄수 있는 생활, 전영범의 사상정신적바탕을 밝혀 낼수 있는 생활을 진지하게 형상하였다.

지배인과 기사장이 손발이 맞지 않고 한석민기사를 마저 새로운 과학기술창안사업에 잘 나서주지 않아 안타까울 때에도 장군님을 만나뵈던 그날에 주신 말씀과 사람들에게 심장을 주고 사업하라는 전화말씀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전영범, 그는 대상설비생산계획이 암초에 걸렸을 때에도 장군님께서 유명한 70일전투에서 보여 주신 섬멸전의 방법에서 해결방도를 찾는것이다.

그뿐이랴. 전영범이 어려운 매일수록 공장 안팎을 깨닫이 꾸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워 나가도록 하는 사실, 당비서라고 하여 자기에게 특별히 가져 온 명절상품지함을 놓고도 한흙의 미시가루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도로 가져 가게 하는 소행,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돌리며 그들을 우대해 주도록 하는 일, 지어 아들의 결혼식을 옆집도 모르게 소박하게 치르는 등 그의 크고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어 철저히 관철해 가려는 열렬한 지향으로 넘쳐 있다.

그렇다. 이러한 생활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 없는 숭배심과 총폭탄이 되어 장군님을 결사옹위해 갈 맹세가 불타고 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그리고 사상도 감정정서도 담력과 배짱도 사업방법과 사업작품까지도 오직 장군님을 그대로 닮으려는 우리 시대의 참된 당일군의 숭고한 사상적지향을 감득하고도 남음이 있다.

소설은 전영범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며 그 정신은 전영범과 같은 참된 당일군들에 의해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설에 그려진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혁신적의의를 가지는것은 당일군 주인공의 인간적품모를 진실하게 그려낸데도 있다.

솔직하게 말하여 우리의 현실주제 소설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적지 않은 당일군들은 거의나 다 틀이 있고 점잖게 행동하며 작은 결함조차도 없는 완전무결한 인물로 형상되고 있었다.

작가의 장편소설 《탄부》나 《백금산》에서 나오는 당일군이나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에서 다소 불만스러웠던것도 이 점이였다. 때문에 일부 소설들에서 형상된 당일군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으며 생소한 맛이 없고 친근감이 덜 느껴지는것이 다.

당일군도 역시 인간인것만큼 그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으며 노래도 부를줄 아는 개성적인 산인간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당일군의 인간적품모를 진실하게 형상한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에서는 이 문제해결에서 긍정적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전영범을 처음부터 완성된 인간으로 그리지 않았다.

당비서로 갓 임명되어 온 그가 지배인의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측면만 보고 기업관리를 잔지게 하는 긍정면을 보지 못한것이라든가 손탁이 세고 내밀성이 있는 기사장의 우점만 보고 그의 결함을 옹계 파악하지 못하는 생활 그리고 오랜 친구인 주강직장장 윤병암의 결함을 두고 회의에서 큰 소리를 친 자신의 성격상 약점에 대하여 자책하는 전영범의 모습은 또 얼마나 진실한가.

소설에서는 성격상 약점도 있고 사업에서 결함도 범하지만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점을 극복해가며 우리 시대 당일군답게 사업해 가는것으로 주인공을 형상하였다. 소설에는 주인공이 겪는 가정적 고충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그려져 있다. 다 자랐다고만 여겼던 아들이 당비서인 아버지 등을 대고 전망문제를 해결하려고 《뒤공작》을 한다는것을 알았을 때 전영범은 아들교양 하나 톡톡히 못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자책속에 잠기는것이다.

소설에서는 그의 성급한 기질적특성도 당일군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 있게 이바지되도록 설정하였다.

그들이 부른 노래

사나운 폭풍도 쳐몰아 내고
신념을 안겨 준 김정일동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

우리는 소설의 마감부분에서 무대에 나선 주인공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를 류다른 감회에 잠겨

따라 부르며 그 구절구절을 새겨 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우리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그 어떤 난관도 헤치고 우리 손으로 강성대국을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과 확신에 넘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가는 주인공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우리는 가슴 뜨겁게 안아 본다.

소설에서는 작중인물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시대적높이에서 깊이 있고 진실하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소설문단에 생소한 향기를 풍기는 성격적개성들을 창조하였다. 작가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두고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인물들의 사상관점과 견해를 시대적높이에서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이 혁명정신의 심오한 철학적의미와 진리성을 깊이 있고 진실하게 그려내었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자력갱생하면 승리할수 있지만 맥을 놓고 앉아서 남의 손만 바라보면 사회주의를 지켜 낼수 없다. 오늘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대국도 자력갱생의 강성대국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전쟁의 불구름도, 전후복구건설의 시련의 언덕도 자력갱생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면서 헤쳐 넘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참으로 승고한 높이에서 발현되고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의 진리로 굳어 졌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기치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문학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인민들이 높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50년대나 60년대가 아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웅적인 현실과 환경속에서 그려내야 하며 오늘의 시대적높이에서 깊이 있게 읽혀내야 한다. 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발양되는 참다운 인간세계에 대한 심오한 사색과 깊은 분석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설이 거둔 성과는 시대적성격창조를 위한 창작실천에 좋은 경험을 주고 있다.

지배인 최관형은 전극을 자체로 생산하는 일이나 공장에 수십개의 지력갱생기지를 꾸리는 일을 맡잡게 여기지 않아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파연 그가 지배인이 옳긴 옳은가?...

그러나 지배인의 립장은 옳은것이며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극을 자체로 생산하는것보다 외화를 벌어서 사다가 쓰는것이 공장운영에서 낫다는것, 별로 리득이 없고 생산정상화를 할수 없는것들을 자력갱생기지로 꾸리는것은 국가적건지에서 보면 손해가 된다는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는 오늘과 같이 어려운 때에 자력갱생한다고 하여 주먹치기로 일을 벌려 놓을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보고 실리를 보장할수있는것만 하여야 하며 건설 하나를 해도 래일을 내다

보고 세계적수준에 건주어서 해야 한다고 하는것이다.

이런 립장에서 지배인은 단조직장의 가열로개조안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는것이며 최첨단기술이 도입되는 선압기제작에서 헌신성을 발휘하는것이 아닌가!

자력갱생을 하는데서 오늘날이 아니라 래일을 생각해야 하며 국가적견지에서 사고하고 세계적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시종일관한 립장은 얼마나 커다란 감동과 깊은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것인가.

지배인에게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란 어려운 때일수록 진정으로 공장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시대와 미래에 대한 열망과 확신에 넘치는 참된 인생관의 발현이라는 절절한 웨침이 울려나온다.

소설에서 독자들의 인상에 남는것은 작가의 관심과 애정이 흐르는 새 세대 청년들의 성격이다. 단조직장 열관리공 한옥련의 성격적매력은 미모의 제대군인처녀로서 힘들고 어려우며 누구나 꺼려하는 일터를 스스로 택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무역부문에 다닌다는 도급 간부의 아들의 청원을 거절한 눈높은 처녀라는데 있는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적지 않은 소설들에서 사랑관계에서 피동의 위치에 서는것으로만 그려 지는 처녀들과 달리 옥련이 스스로 마음에 드는 총각을 제가 고르고 이악한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형상으로 하여 성격적개성이 독록한것이 아니다. 이 모든것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설계실장자리에서 해임된 가정적환경이지만 위축되지 않고 신심을 가지고 스스로 가열로를 개조하는 기술혁신을 하며 그 과정에 신념이 나약한 아버지가 새 결심을 가지고 선압기제작에 달라붙도록 애를 쓰며 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도와 주는 옥련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사랑스럽고 미더운것인가!

처녀의 도고한 자존심, 자기 일에 대한 공지와 신심, 이악한 노력은 어디서 생겨 난것인가? 그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가는 투쟁에서 주인은 로동계급자신이라는 자각과 높은 책임감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못해 낼것이 없다는 드립 없는 신념과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엇인가 해놓았다고 땀땀이 총화할수 있게 살리는 값 높은 삶에 대한 지향에 원천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난의 행군》 시기 새 세대 로동계급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격의 매력이 있는것이 아닌가.

소설에서는 옥련의 성격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누구의 강요나 통제나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핵심부대로서의 자기 위치와 사명감을 자각한 로동계급에 의하여 빛나게 창조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이 혁명정신을 지닐 때 자기 운명도 생활도 빛나게 개척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의 참다운 인간들의 생활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가지는 깊은 의미와 그 정당성을 새롭게 밝혀 주고 있는것은 비단 옥련이 하나만이 아니다.

독자들에게 새 세대 지식인처녀기사인 안명신의 성격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 오는가.

생기발랄하고 감성적이고 개방적인 옥련이와 달리 내성적이고 사색적이며 리지적인 안명신은 깊이 깊은 인정의 바다를 안고 있는 성격인것으로 하여 인상에 남는다.

안명신에 대하여 말할 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것은 첫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안명신과 강필훈사이의 관계이며 그속에서 발현되는 안명신의 사상정신세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품모는 참으로 새로운 높이에서 발현되였다. 우리 청춘남녀들의 사랑관도 기성관념을 가지고 쥔수 없을 만큼 고상하고 아름답게 꽃피여 났다.

공교롭게도 첫사랑을 배반한 강필훈이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였을 때 안명신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며 생각이 복잡했던가.

흔히 사랑을 배반한 편인은 원수가 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강필훈에 대하여 원망어린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기술사대주의에 빠진 강필훈을 두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 하며 그의 재능과 지식을 소중히 여겨 전공인 유압계통연구를 계속할수 있게 당비서에게 의견을 제기하여 그가 선압기제작에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에 자력갱생의 참된 인간으로 자라나도록 애쓰는 안명신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것인가!

처녀의 몸으로 부모 잃은 형우직장장의 두 아이를 데려다 키울 결심을 하는 안명신은 정녕 우리 시대 청년들만이 지닐수 있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가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안명신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우리 시대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한 주체형의 인간들에 의해서만 창조되는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며 혁명정신이라는것을 밝히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최관형지배인의 경우에는 진정으로 제 공장과 나라일을 생각하며 우리 시대와 래일에 대한 확신과 열망에 차넘치는 애국심의 견지에서 보여 주었으며 열관리공 한옥련의 경우에는 혁명의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의 주인다운 관점과 립장, 참된 인생관의 견지에서 해명하였다. 안명신의 경우에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미학관을 파고 들어 이 혁명정신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시대적높이에서 밝히였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는 각이한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시대적높이에서 분석적으로 파고 들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로동계급들이 어떻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생활속에 얼마나 참담게 뿌리 내리었는가를 깊이 있고 진실하고 풍부하게 보여 줄수 있었다.

소설에서는 긍정인물만이 아니라 부정인물들의 성격도 인상 깊게 형상하였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을 이루는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대부분은 당의 품속에서 수십년간 주체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새 세대들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시대정신을 의식적으로 외면하거나 정면으로 반대하여 나서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주관적으로는 당의 의도를 받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어려운 때에 누구나 시대정신을 옳게 간직하고 있는것은 아니었다. 난관앞에서 동요하고 실망하며 주저앉는 나약성, 보수주의, 사대주의, 요령주의 결합들이 현실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결합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설에서는 강형모기사를 자력갱생한다고 말은 누구보다 많이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그것이 소극성, 보수주의, 주먹치기식사업작풍을 가리우는 방패처럼 되어 있는 성격으로, 직장장 윤병암을 조건타발만 하면서 건강을 핑계로 자리지킴이나 하고 제 살 궁리나 하는 성격으로, 그와 달리 본신사업인 설계에 대한 미련도, 해박한 지식도 있지만 웅충하고 나약한것으로 하여 시대의 복판에 선뜻 뛰어 들지 못하는 성격으로 한 석민을 그렸다.

이들의 각이한 사상관점, 성격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볼수 있는것으로, 개성적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이채롭다.

패배주의사상의 표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모두 자기의 힘, 우리 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며 《고난의 행군》이 벌여 지는 시대와 강성대국의 래일에 대한 신심이 약한데서 생겨 난것이다.

우리 힘에 대한 믿음은 곧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믿음,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렬한 숭배심이며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이다.

작품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옳바로 간직해 가는 투쟁은 패배주의사상을 쓸어 버리고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키워 가는 과정이며 주체의 인생관을 세워 가는 과정이라는것을 작중인물들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의 마감부분에서 새 인간들로 새 출발을 하는 부정인물들이 긍정적인인물들과 함께 부르는 신념의 노래를 두고 우리는 우리 시대가 비긴 성격적면모를 뚜렷이 감득하게 된다.

이 노래는 소설의 시대적성격창조에서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깊은 감동속에 돌이켜 보며 부르며

되는것으로 하여 더욱 감회로운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긍정인물들의 성격을 시대적견지에서 새롭게 탐구함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 우리 시대 인간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시대정신을 자기들의 소중한 생활적감정으로 간직해 가는 참된 인간세계를 깊이 있게 밝혀 냈다.

몇 안되는 인물로...

누구나 장편소설 《열망》을 손에 들면 다 읽을 때까지 놓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참다운 인간세계를 감동깊이 펼쳐 보일수 있게 형상한 극적인 인간관계에 있다.

《고난의 행군》의 하루하루는 우리 인민이 난관앞에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 주신 《강계정신》으로 결연히 일떠나 강성대국 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한 극적인 사변과 생활로 가득찬 나날이 아닌가.

소설은 생활의 본색에 맞게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특색 있게 형상하였다.

소설에 차넘치는 극적생활의 기초에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부정인물들의 패배주의사상과의 심각한 사상적대립과 충돌이 놓여 있다. 작품은 이들의 갈등관계를 순수 직무상, 사업상, 실무적관계에서 표현되는것으로만 형상하지 않았다.

주인공인 당비서 전영범과 강형모기사와의 사이에는 전영범이 친자식과 같이 대하는 처녀기사 안명신과 기사장의 아들 강필훈이 끼여 있는바 이들의 관계는 첫 사랑이 결렬된 관계이다. 이처럼 우리 문단에서는 보기 드문 인간관계가 병렬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품에서는 기사장의 아들이지만 강필훈의 사대주의적병집을 고쳐 주기 위하여 타이르기도 하고 아픈 매를 들면서 애 쓰는 전영범과 안명신의 사랑을 배반한것때문에 자기 아들을 해임시켰다고 당비서를 오해하면서 아들을 두둔해나서는것으로 기사를 형상함으로써 전영범과 기사장의 갈등관계를 인간적으로, 생활적으로 보다 심각하고 예리하게 엮히게 하였다.

책임비서의 아들 전철룡과 평범한 노동자인 한옥련의 이채를 띠는 애정관계도 그들의 아버지인 전영범과 한석민기사의 사이에 심각한 극적인 체험세계가 넘치도록 하는데 복종되고 있다.

전영범이 로쇠병에 걸린 주장직장장 윤병암의 사상적결함을 심각하게 비판하면서 겪는 극적인 체험세계도 그들이 오랜 친구기간이라는 설정이 있음으로 하여 더욱 심각하게 생기는것이 아닌가.

이 소설은 긍정인물집단과 부정인물집단사이에 횡적인 관계뿐아니라 긍정인물들 호상간, 부정인물들 호상간 종적인 관계로 심각하게 극성이 살아나

게 형상하였다.

당비서와 긍정인물인 최관형지배인사이의 관계도 처음에는 서로 그릇되게 일하지 않는가 하는 위구를 가지고 오해하다가 풀리는 과정으로 극을 조성하고 있으며 당비서와 안명신의 관계도 전영범이 군사복무시절에 적무장악당들과의 조우전에서 희생된 전우의 딸이 안명신이라는 극적인 사연을 안고 있는 관계로 형상되었으며 전영범과 한옥련의 관계는 단순히 당비서와 노동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아버지와 며느리감치녀와의 관계로 되게 하였다. 부정인물인 기사장 강형모, 설계기사 한석민, 직장장 윤병암도 서로가 막역한 친구들이라는 설정을 해놓음으로써 그들사이에서 벌어지는 생활을 극성이 있게 펼칠수 있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공부정의 인물관계를 종적, 횡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 극성이 넘쳐 나게 형상함으로써 몇 안되는 인물들로 생활을 립체적으로 펼쳐쳐 인물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인간적품모를 풍부하고 깊이 있고 감동 깊게 그려 낼수 있었다.

×

장편소설 《열망》의 사상에술적성과를 두고 우리는 작가의 높은 시대정신과 현실생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진지하며 성실한 탐구정신을 말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에 취급된 의의 있는 생활무대와 소재, 절절한 인간문제의 설정이나 시대정신이 나타치는 인물

성격을 두고 우리는 작가가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 우리 당이 관심을 돌리고 가슴 아파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모대기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는가를 느낄수 있다.

그렇다. 소설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작가답게 우리 시대와 심장을 맞대고 숨결을 같이 하고 걸음을 같이 하는것으로 하여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할수 있는 작품을 훌륭하게 써낼수 있었다.

소설에 형상된 《고난의 행군》시기의 생활은 불과 2~3년전의 일,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

단편소설 못지 않게 생활을 민감하고 기동성 있게 장편소설에 반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의 성과는 작가가 현실속에서 우리 시대 인간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긍정과 옹호의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며 늘 시대와 인간들에 대하여 사색하고 진지하게 탐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장편소설 《열망》이 거둔 사상에술적성과는 오늘도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북방의 농촌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실하게 생활을 체험하는 작가가 멀지 않아 또다시 우리 문단에서 자기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는 훌륭한 작품을 독자들앞에 내놓을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주고 있다.

상식

홍채에 의한 개인식별기술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안전보장대책, 기밀보장대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다. 이로부터 특정한 인물을 식별해 내는 개인식별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자물쇠를 여는 기계식별방식으로부터 컴퓨터를 리용하는 전자화, 지능화에로 넘어 가고 있다. 특히 인체의 특정한 부위, 레하면 지문이나 얼굴모습, 목소리, 피형 등에 의하여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문에 의한 개인식별기술은 입력이 간단하고 식별정확도가 높기때문에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며 지금은 비교적 실용화되고 있다. 그런데 지문이나 얼굴모습, 목소리는 위조하거나 변할수 있기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할수 없다.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는 홍채에 의한 개별인식체계를 개발하였다.

홍채는 눈알의 각막과 수정체사이에 있는 등근

부분인데 검은색이거나 푸른색이며 무늬가 있다. 매 사람에게서 홍채의 무늬는 서로 다르며 2살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홍채의 화상을 수자화하여 등록해 놓았다가 입구화상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인물을 식별할수 있다.

출입자가 문앞의 일정한 곳에 서면 두개의 촬영기로 얼굴을 식별하고 홍채를 촬영한다. 출입자가 자기의 출입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식별체계는 홍채화상을 비교하여 문을 여닫는다.

시험결과 현재의 화상식별기술로써 정확도는 10만명중 한명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에 의하면 위조나 특성변화에 의하여 잘못 인식할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한다.

이 식별체계는 비접촉식이므로 촬영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인원의 출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할수 있다.

단편소설

차번호 《만-하나》

김창수

1

혜선이가 도로건설장에 갑자기 이름이 난것은 처녀로서 대대참모장이라는 큰 책임을 걸머졌거나 남달리 아름다운 용모때문이 아니였다.

그것은 얼마전 누군가가 평양-남포관광도로건설 청년돌격대 대장에게 요즘 어느 대대나 려단에서도 선뜻 맡아 안기 꺼려 하는 《만-하나》 지점로반공사를 바로 그 처녀참모장(대대장은 결원이였다.)만은 기다린듯 덥석 받아 안을것이라는 편지를 낸 후부터였다.

《만-하나》 지점 로반공시란 15호지구 한길 땅 밑에 너비 20m, 길이 40m 정도로 석돌이 깔려 있어 먼 후날 만에 한번 조금 침하될지 말지 하지만 그래도 다 파내고 성토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말이었다.

편지에 자기 이름을 밝히기 꺼려 한것을 보면 틀림없이 그 처녀한테 뭔가 숨겨야 하는 애뜻한 감정을 품고 있는 청년 같은데 대장은 그런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혜선이를 즉시 불렀으며 처녀가 수리소대나 하나 꾸려 달라는 제기외에 다른 아무런 의견도 없어 하자 과시 우리 도로건설장의 녀결이라면서 대대를 당장 《만-하나》 지점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혜선이네가 《만-하나》 지구로 떠나던 날 건설장의 많은 청년들은 저 아름다운 처녀지휘관을 슬그머니 영광의 언덕우에 올려 세운 그 엉큼한 청년은 누구일가, 그런데 처녀자신도 몰라 무척 궁금해해서 많은 지휘관들이 그 청년을 은근히 찾고까지 있다니 이런 기대가 가는 사랑실화극이 어디 있느냐고 사뭇 기뻐했다.

그러니 하루가 지나고 닷새가 돼와도 그 청년은 그 이상 더 얼굴을 내밀지 않는것이여서 건설자들의 부풀이 올랐던 기대도 어느덧 실망이라는 아쉬운 심정으로 바뀌고 마는것이였다.

그런데 먼 하늘의 별같이 쉬 나타나지 않을것 같은 그 은둔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날에 뜻밖의 일로 불쑥 나타났다.

그것은 혜선이네가 석돌층을 다 파낸 다음 흙으로 묻을것인가 돌로 메울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

하게 논의하던 저녁작업총화모임때였다.

이웃인 《청춘려단》에서 느닷없이 간밤에 그곳 《만-하나》 대원들이 끌어 간 자기네 차를 당장 내놓으라는 전화를 걸어 왔다.

혜선은 한길 뛰며 놀랐다.

차라니? 지금도 문밖 마당엔 이곳 돌격대가 무어질 때 받은 화물차 한대밖에 없지 않는가.

《아, 우린 그 차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하고 그곳 려단에서는 얼마전에 자기들은 성안중기계공장에서 폐기한 낡은 차를 한대 인계 받았다는것, 그러나 거기 수리소대에서도 짝이 없어 고쳐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우선 차번호만 먼저 떼오고 두루 수소문하는 중인데 놀랍게도 간밤에 그 차가 다른데도 아니고 바로 그 수리소대마당으로 옮겨 앉았다는것, 차번호는 여사여사하니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어서 조용히 돌려 주는게 좋겠다고 슬며시 위협했다.

혜선이가 억이 막혀 굳어 저 있는데 이런 때면 언제나 그 청 높은 목소리로 한몫하군 하는 안전참모가 송수화기를 맞아 쥐더니 전화통이 깨여 저 나가게 고아 대기 시작했다.

《수리소대... 소대장 없어, ... 여, 직일병, 동무네 거기 지금 끌어다 놓은 차번호가 뭐야?》

《적재함까지 뜯어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벌써? ... 참모장동무, 이걸 어쩍니까?》

《아, 어쩌면 그런 짓을! ... 꿈에선들 만에 한번 그런 생각을! ... 수치예요!》

처녀책임자의 분개하는 리유가 안전참모의 피를 더 끓게 한듯 그는 거의 폭발적으로 울리는 어조로 다시 웨쳐 댔다.

《건 어찌자고 끌어 왔어?》

직일병은 순순히 전날 자기네는 《청춘려단》 동무들이 부탁하는 헌차수리를 문전지걸했다는것, 그런데 어제 평양시사단에서 일하다가 여기 수리소대로 넘어 온 리준섭이라는 청년이 그 사실을 알자 그런걸 마다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제멋대로 년떡 끌어다 놓았노라고 실토했다.

안전참모는 그 싱거운 지원자를 당장 불러 오라고 소리쳤다.

잠시후 수화기에서 리준섭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자 그는 더 숨넘어가게 고아대기 시작했다.

《왔으면 도와 줘야지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남들은 대장한테 편지까지 내면서 우릴 돕지 못해 안타까워 하는데 동문...》

《허허... 그런건 저한테 말 안해도 됩니다.》

《동문 그 청년과는 너무 대조적이구만!》

《허, 글썄 저한테 그런 얘길 안해도 된...》

《여보!》

그는 더 거친 숨결을 송화구에 퍼부어 댔다.

《그거야 어디 꿈속에서인들 만에 한번 할수 있는 짓인가 말이요?》

《아, 그건 혜선참모장의 말갈구만요.》

《아니, 이 사람이?》 하며 안전참모는 구멍이 송송 송화기를 무섭게 노려 보았다.

《만에 한번 I... 꿈속에서도 그 하나를 소홀히 해서 안된다는것이 그 동무의 좌우명이어서 오늘도 그런 말을 했을것이라는 짐작이 간단 말입니다.》

《아니?》

안전참모는 잊고 있던 그 어떤 중대한 생각이 불시에 떠오르길라도 한듯 가볍게 탄성을 올렸다.

《게다가 인젠 <만-하나>지점을 타고 앉았지, 요즘은 대대도 <만-하나>대대로 부르다니 더더욱 말 안해도 다 알만 하단 말입니다.》

안전참모는 드디어 것처럼 기다리던 사랑실화극이 시작되고 주인공도 지금 막 등장하는것 같았던지 여직껏 죽어라 구박하던 송화기를 별안간 껴안듯 소중히 감싸 쥐고 있었다.

《전해 주십시오. 이 리준섭이도 대개가 지닌 <만-하나>칭호가 얼마나 소중한것인가를 잘 알고있더군요.》

안전참모는 송수화기를 서둘러 놓더니 회열에 들뜬 어조로 웨쳤다.

《그 사람입니다!》

《영? 누구?》

지휘관들의 눈길이 안전참모의 얼굴에 쏠렸다가 다시 일제사격으로 휘뿌려 지듯 혜선의 얼굴로 옮겨 졌다. 그러나 처녀는 이미 그들의 떠들썩하는 소리나 반가움에 찬 눈길들을 느낄 경향이 아닌듯 하였다. 그의 섬세하게 정돈된 얼굴 매 선마다에선 아픔과도 같은 고뇌의 빛이 떠올라 설레이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지휘관들은 깨진 사랑이로구나 하는데 생각이 이른듯 서로 마주 보며 당황해 했다.

혜선이도 한동안 이런 때 맞는 표정마저 지을수 없어 하더니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작년에 사귀었었는데... 괜찮은 동무랍니다....

모임이나 끝내구 더 얘길 하던지요?》

지휘관들은 무슨 얘기들 더 하겠느냐고 웅얼웅얼 대답했다.

《그럼 공사문제나 다시 토론해 보지요.》

혜선이가 감사한듯 이러자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다시는 그 리준섭이라는 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맹세라도 다질것 같은 낯빛들을 지으며 바투 다가앉는것이였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고 밤이 이슥했을 때 안전참모를 비롯한 몇몇 지휘관들이 이러저러한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청년을 보기 위해 수리소대로 향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할줄이야 처녀가 어찌 알았으랴.

모든데서 뛰어난 사나일것이라고 다소 주눅마저 들어 찾아 갔던 그들은 거기서 너무도 예상밖의 청년과 마주 서게 되는 바람에 다시금 마음들을 종잡을수 없어했다.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생김새도 그러루한 청년을 보았기때문이었다.

정녕 어째서 자기네 미인이 저런 남성적인 중량 감마저 없어 보이는 청년과 가까이 지냈겠을까?

혹시 저 청년한테 녀자의 마음을 휘여 내는 무슨 남다른 재간이라도 있는 모양인가?

2

리준섭이라는 청년이 혜선의 심장을 집게마냥 틀어 잡았던것은 작년 여름 선미리지구에서 만세대살림집건설에 쓸 골재생산전투를 진행할 때였다.

그날 준섭은 정전으로 골재세척기가 멎는 바람에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변전소로 급히 달려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됐었다.

그는 가까이에 사람이라고 보이는것은 지금 한창 전주대우에 올라 모자를 빼딱하게 제껴 쓰고있는 나어린 전공뿐이라 그리로 달려 가며 소리쳐 물었다.

《여, 왜 전기를 안주며 그래?》

《...》

전공은 한번 흘깃 내려다 볼뿐 응답이 없었다.

《병어리야?》

《...》

《귀머거리야?》

《...》

《너 우리 돌격대에 끝구 가서 속바지까지 쫓딱 벗기구 불기를 쳐야 정신을 차리겠어?》

전공은 그제야 일을 끝낸듯 돌처럼 떨어져 내렸다.

준섭은 그가 상할것 같아 껴안으려 했다.

그 순간 전공은 온몸으로 뻥 뿌리치며 웨쳤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치지 말아요!》

준섭은 대번에 전주대처럼 굳어 졌다.

혹진주 같은 눈이며 꽃살처럼 살짝 밖으로 번진 살눈섭...

《아, 아 난 그만 너성일줄은 모르구...》

준섭이가 어쩔바를 몰라 하자 혜선은 갈끔했던 눈꼬리에 다소 부드러운 빛을 담으며 말했다.

《그렇더라도 인사말쯤은 할수 있지 않아요?》

《정... 정말이지 미안하오. 사실...난 이런 실수는 처음이요. 그러구- 자강도사람이고.》

혜선은 서글픈 미소를 짓더니 말했다.

《뭐 이런데까지 와서 자강도사람 자랑인가요?》

준섭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느냐고 불만이 버글거리는 낮빛을 짓자 혜선은 대형변압기쪽으로 향하며 아주 멀리소로 말했다.

《그런 자랑은 판데나 가서 하세요.》

《아, 신분을 밝힌다는게 그만... 한데 무슨 사고가 생긴게 아니요? 기사검정시험까지 치른 사람이니 뭐 좀 도울수 있을런지도 모른거요.》

준섭은 어째서 자기가 연방 제자랑을 섞어가면서 끝내 뻘치길 하려하는지 아직은 그 이유를 알수가 없었다.

혜선은 그러는 그가 가공했던지 다시 멈춰 섰다.

《뭐 기술도움까지는... 이 왕변압기속에 빠진 나트를 건지는 일이니까요.》 하고 혜선은 나트를 그대로 두고 전기를 투입하면 불이 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즉 변압기밑으로 기름을 다 뽑았다가 다시 넣어야 할테니 오죽 어렵겠소.》

준섭은 한사코 참내하려 들며 어서 기름담을 버치들이나 내오라고 다그쳤다.

《아이참, 바쁘다면서 언제 버치놀음까지...》

《아니, 그럼 무슨 다른 수가?》

홀연 혜선은 랑불을 능금처럼 붉히며 대답했다.

《그냥 훌 뛰어들이지요.》

《뭐 뭐 그냥 훌?》

《네, 들어 가서 발로 이렇게...》

혜선은 한쪽 발가락으로 집어 낸다는 행동을 보이며 까르르 웃었다.

준섭은 불쑥 그것은 너무도 너성적이 못된다는 생각이 들어 퍼르르 화를 냈다.

《썩 거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잘 부르던지.》

혜선은 지금 모두 지하도에 들어가 바쁜 전선보수작업을 하고 있어 사람이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럼 버치놀음을 할밖에, 한시간도 안걸리겠는데!》

혜선은 웃음을 거두며 나직이 말했다.

《그런데 혹시 알겠어요. 그 사이 어디서 이기던 몰탈이나 뿔던 쇠물이 잘못되겠는지?...》

준섭은 가슴이 울려 와 잠시 곧추 여겨 보았다.

《질이 좀 떨어질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야 뭐 만에 한번 그럴지말지한 일인데 너성의 몸으루 기름목욕할 생각까지 해서야?...》

《...만에 한번...》

혜선은 그 어떤 잊지 못할 정다운 이름이라도 위듯 그윽한 낮빛으로 이르더니 숲속으로 흘러 내리는 시내물 같은 소리로 계속했다.

《정말이지 그건 만에 한번 그럴지말지 할거예요. 그렇지만 전 요즘 왜 그런지 한번속의 한번이라는 그 하나가 사실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이구 그것을 버리면 깨끗한 마음도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군 하지 않겠어요.》

《!》

다시금 커다란 복채로 가슴을 치는것 같은 충격이 준섭의 흉벽을 세차게 울렸다.

《그래서 자리를 어서 좀 피해 달라는건데... 무슨 불일이 있다구 그냥 남아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아, 아 난 뭐 불게 있어 남아 있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 같아서... 그렇소. 그 기름목욕은 내가 할테요!》

준섭은 자신의 뜻하지 않은 결심에 스스로 감동이 커서 저으기 열띤 어조로 웅쳤다.

혜선은 눈을 크게 뜨며 어째서 동무가 그 험한 일을 하려는가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소. 그저 하고 싶구만!》 하고 준섭은 처녀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자신의 결단성을 시위나 하듯 단숨에 옷을 벗어붙이기 시작했다.

그만 놀라움에 굳어져있던 혜선은 사나이가 뻘컘을 아주 버리게 될것이 아쉬워선지 잠시 그것마저 벗을 기미를 보이자 비명을 울리며 돌아 발을 굴렀다.

《아, 아 내 그만...》

준섭은 큰 실수를 할번 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닥닥 대형변압기우로 뛰어 올라 갔다.

이윽고 뚜껑을 힘주어 밀어제낀후 바삐 안으로 몸을 숨기었다. 온몸에 미끈미끈한것이 감촉되자 별난 목욕도 다 해본다는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대뜸 처녀의 의아쩍어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왜 웃는거예요?》

《세상에 없는 일 같아서 그러오.》

《호... 그러니 인젠 세상에 대구 자강도사람이라 큰 소릴 쳐도 되겠어요.》

《아니 동문 혹시 그곳 사람이란 소릴 영웅이란 소리와 같이 보는게 아니요?》

《그래요. 그걸 모르구 함부로 입을 딱딱 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안의 미물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니 그럼 내가 배안의 미물?》

《호호...》

《하하...》

준섭은 웃음을 그 무슨 대화처럼 주고 받으며 혜선이 말하던대로 발가락더듬질을 시작했다.

이윽고 발가락에 작고 뽀뽀한것이 감촉되는 순간 준섭은 《찾았다.》 하고 환희에 넘쳐 웨쳤다.

변압기너머에서도 처녀가 기뻐 뿜라 웨치며 박수를 치는 소리가 봄바람처럼 날아 왔다.

준섭은 홀연 자기와 저 처녀가 지금 단순히 나트만을 찾았기에 이리 좋아 하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녕 저 처녀도 지금 물불을 같이 헤쳐갈만한 미더운 길동무를 만났다고 믿기에 저리 기뻐하는것이 아닐가?

참말로 처녀는 준섭이가 이튿날 변압기상대로해라는 구실을 코에 걸고 다시 찾아 가니 기다린듯 반기였으며 자기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뽀뽀한 마음마저 숨기려 하지 않았다.

결국 자기들 두사람은 어제일로 하여 남들이 눈을 두고서도 그처럼 넘기 어려워 하는 이해와 믿음의 계선을 단숨에 뛰어 넘은것이였다.

형언할수 없는 행복에 휩싸인 준섭은 어느 하루도 번지지 않고 처녀를 찾아 갔다.

점심때까지도 찾아 가군 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들은 처녀가 귀찮아 할수 있다고 녀려했다.

그러나 웬걸, 처녀쪽에서 더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낮빛인데다 어느날엔 속옷 일절이 든 비닐구럭까지 내밀었다. 뽀뽀한 당그렇게 내밀기가 뽀뽀해서 정성품이 커지고,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 또한 앞산만 해진게 틀림없는것 같았다.

서로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일어도 크게 인 것이였다. 이미 두 심장 사이에는 그 어떤 실금 같은 간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확실했다.

그리하여 준섭은 혜선이를 안지 일주일도 채 안되던 어느날 그없는 자기 앞날을 단 하루도 생각할수 없게 된 자기 마음을 어서 털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았으나 요즘 교대자가 곧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때에 언제 남들처럼 달놀아서건 다해 가며 본격지랑 출생지까지 루루이 알아 본단 말인가.

그것은 도리어 모욕으로 될것이였다. 정녕 전날의 그런 믿음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하물며 수도의 맑은 정신과 문화로 교양되고 닥

달된 평양처녀임에야.

석양노을이 서툰 화가의 그림처럼 별로 별거우리하던 저녁무렵이였다.

준섭이는 자기와 함께 앞산쪽으로 걷는 혜선의 얼굴에도 이제 있게 될 자신의 운명적인 고백을 미리 짐작이나 하는듯 내내 도화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여서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하고 있던 말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털어 놓을수 있었다.

...내가 지금 제일 기쁜것은 평양처녀를 한생의 길동무로 삼은것이다.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평양처녀를 반려로 삼고 남다르게 일해 보려 한것 같다. 그러니만큼 이것은 요즘 일부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생활때문에 먹을 알을 노려 수도처녀를 택하려는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한바리에 실어 심술궂게 동일시하려 한다 해도 만에 한번 비슷할지 말지 할것이다. 하기에 지금 내 마음은 푸른 하늘을 통채로 그리안은것처럼 환희롭기만 하다...

그리고 또 뿜라 불 같은 말을 하려는 때였다.

느닷없이 혜선이쪽에서 무엇에 짓눌린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만하세요!》

돌아 보던 준섭은 숨을 헉 들이 그으며 굳어졌다. 혜선의 얼굴에 싸늘한 살얼음이 저 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아니?... 왜 그러오?》

말없이 원망스레 올려 다 보는 혜선의 눈에서는 커다란 눈물방울이 솟아 펴고 있었다.

준섭은 잡았던 황금새를 놓치게 된 때와 같은 심정이여서 다시금 왜 그러느냐고 소리쳐 물었다.

혜선은 금시 큰 울음이라든 터칠것처럼 입술을 일그러뜨리더니 힘들게 한마디 내뿜었다.

《아, 난 자강도사람이...》

준섭은 그가 삼켜 버린 말들을 당장 끄집어 내기라도 할듯이 눈을 불구슬마냥 번쩍거렸다.

《자강도사람이 어떻다는거요? 함부로 입에 올리기엔 너무 값지다 하지 않았소?... 침 발린 소리였소?》

《아, 아니예요.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혜선은 숨 가빠 건딜수 없는듯 자리를 떴다. 준섭은 억이 막혀 졌다가 화닥닥 달려 가 막아 서며 피줄이 끊기는것 같은 어조로 물었다.

《도대체 동무한테 내 모를 무슨 궁냥이 있다가 이러는거요?》

《아, 우린 만나지 말걸 그랬어요.》

《뭐요?》

준섭은 한순간 온 천하를 향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웨치고 싶은 가렬한 충동마저 느끼였다.

정녕 가슴에 솟덩이가 들어 앉는것만 같은 순간
이어서 그는 다시금 성 난 호랑이처럼 울부짖었다.

《내 잘못되는걸 보자고 이러는거요?》

《지금은 몰라야... 그렇게 안될거예요.》

준섭은 그가 자기를 점점 더 요지경속으로만 밀
어 넣는것이어서 참말로 머리를 바위에 짓쫓기라도
할것처럼 벌겋게 달뜬 눈을 무섭게 굴리었다.

그러나 혜선은 그가 이제 무슨 엄청난 일을 벌린
다 해도 자기는 이미 아무 상관 없다는듯 단호히
자리를 뜨며 말하는것이였다.

《다시 찾지 말아 주세요.》

준섭은 자기 머리우에서 어떤 거대한 폭발이라도
일어 나는듯한 감을 느꼈다.

그 다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떠
오르지 않았다....

살폭마져 줄어 드는 이들이 지난후 준섭은 더이
상 이렇게 이를 사려물고 홀로 고통을 참아 낼수만
없다고 단정했다.

하여 그는 혜선이와 살든죽든 결판을 볼 비장한
결심을 안고 다시 변전소로 찾아 갔다.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야...

준섭은 아마 그가 하늘나라에서 왔다가 돌아 간
선녀라 한대도 그처럼 놀라지 않았을것이였다.

그렇수밖에 그는 거기서 혜선이도 자기가 사는
자강도사람이며, 요즘 그 땅에 중소형발전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것과 관련하여 변전변압시
설들을 익히려 몇달전부터 실습을 와 있었고, 여직
껏 련수동에 사는 삼촌네 집에서 다니다가 바로 오
늘아침 철수해 갔다는 꿈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소
식에 접했기때문이였다.

준섭은 크나큰 놀라움속에서도 그가 바로 자강도
사람이기에 그 낯말에 담겨 진 의미를 그리도 잘
알고 있었으며 입 빠르게 함부로 자랑부터 하려 드
는것을 그처럼 질색했다는것과 자기는 그 모든것을
철부지눈으로 바라보다나니 다 익어 가던 사랑마저
그르쳤다는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그 다음 자신의
이런 실수를 놓고 무슨 큰 파오처럼 여기며 아던
정 보던 정 없이 떠나가버린 혜선이에 대한 불만과
자기는 그야말로 부당하게도 비싼 값을 치르고 있
다는 억울한 마음이 가슴 한가득 멀기쳐 흐르는것
을 억제할수 없었다.

준섭은 사랑을 어서 되찾아야겠다는 촉급한 심정
에 물리며 그대로 변전소 앞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서둘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너무하오. 동무가 여기 사람이 아닌것이 사실
이라면 그 순간 거기에 실었던 내 마음도 진심이
아니지 않겠소. 완전한 실수가 이니겠는가 말이요.
구래여 그 실수속에 잘못이라는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몇백년후에 가서 만에 한번 결함으로
자랄지 말지 한 그런것일거요. 게다가 난 이미 나의
그 마음이 너절한 정신들과는 비슷도 하지 않을뿐
만아니라 비슷한것이 있다 한대도 그럴지 말지한
만개들중의 하나일것이라는데 대해서 설명했소. 그
렇소. 동무가 나쁜것은 만에 한번 그럴지 말지 한결
가지고 생사람의 간을 말리는거요. 칼로 찔려야만
살인인줄 아오? 이젠 더 교악한 살인이요. 진짜 간
이 말라 죽는 사람을 보지 않겠거들랑 어서 생각을
돌려 주기 바라요!》

준섭은 변전소사람들한테서 혜선의 주소를 물어
편지를 부쳤고 회답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
겠다는 전보까지 쳤다.

그래서인지 혜선의 쪽에서는 인차 답신을 보내왔
는데 섭섭하게도 거기엔 여전히 차거운 쇠붙이로
엮어 놓은것 같은 랭담한 글만이 적혀 있었다.

《...진짜 살인자라 한대도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언젠가도 말씀 드렸지만 만에 한번 그럴지 말
지 하다고 보는 그 하나가 실지로 오갈데 없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아니 확
신합니다. 평양처녀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한위치를
차지해 보려는 동무의 그 생각은 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동무의 진짜 마음입니다.

동무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았습시다. 동무는 만
번속의 한번이라고 등한하며 그 하나를 버렸지만
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버렸습니
다. ...》

준섭은 한순간 자기 이마를 정바로 내치는 호된
타격에 정신이 아찔해 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동무들 보기가 부끄러워 밖으로 달려 나가
온밤 꼴을 싸쥐고 몸부림쳤다.

사랑을 잃은 대신 강편쪽 같은 새 생활신조가 꼴
풀이치며 꼴수에까지 스며 드는 운명적인 순간이었
다.

3

혜선이는 준섭이가 자기 대대에 나타난것이 반갑
지 않았다.

아무리 한번 달라붙으면 재가 될 때까지 타는 성
미래도 이거야 너무 철면피하지 않은가. 게다가 현
차따위나 끌어 들어 소동을 피우며 여한을 풀자고
드니 이런 시시한 사람이 어디 또 있단 말인가.

혜선이는 이제부터 그의 존재를 매일 매 시각 몸
가까이 느껴 가며 일해야 한다는것이 무엇보다 불
쾌했다.

그러나 조금후 그의 머리속으로는 요즘 많은 청
년들이 저마다 달려 오는 이곳 건설장이니만큼 준

섭의 출현문제를 놓고 그렇게까지 자신과 편결시키며 마음을 쓸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녕 그도 우리 시대 청년인만큼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 달려 왔는지 뉘 안단 말인가.

혜선은 꼭 그럴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기만을 느껴 가며 생각했다.

하여 그의 가슴속에는 단념이라는 차디찬 얼음장이 더욱 두텁게 깔리고 전투임무수행이라는 총검같은 서리찬 기상만이 번뜩이는것이였다.

《20세기를 대표할만한 만년대계 창조물을!》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처녀지휘관의 몸에서는 이런 호소가 썩붙인 구호에서보다 더 힘 있게 울려나오는듯 하였다.

빈틈 없는 지휘, 타끓는 《강계정신》이 불려 오는 속도전의 된바람, 공사의 높은 질!

대대는 모든데서 으뜸이였다.

그래서 건설장의 많은 돌격대원들은 마치 지평선 위에 떠오른 신기루라도 바라보듯 혜선이네 대대쪽을 바라보았으며 확정기에서 그들의 소식만 울려나와도 그 어떤 우아한 세계에 잠기게 하는 훌륭한 노래라도 듣는듯한 낮빛들을 짓군 했다.

대대를 이런 신망의 언덕으로 밀어 올리자니 혜선의 마음고생은 물론 육체적신고도 말이 아니였다.

요즘 그에게는 전에 없이 앞드려 자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것은 썩돌이 든 마대를 등에 둘러 지고 온종일 달리다나니 등어깨에 온통 멍이 들어 도무지 바로 누워 잘수가 없기때문이었다.

그만이 아니라 모든 대원들이 그랬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터진 어깨보다도 썩돌에 터져 나간 마대들을 먼저 곱지 못해 안타까 했다. 낮에는 달리느라 잠이 없어 그들은 달빛 아래서 마대를 기웠으며 설핏한 자동차꼬리등 불빛만 보여도 그리로 달려가 께진 구멍들을 기웠다. 고향으로 돌아 갈 때 입으려던 옷들도 아까와 앓고 썩둑 잘라 기웠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헌걸차게 웃으며 그 어떤 전쟁사에 남을 전투에 대해 얘기하듯 《마대전》이라고 불렀고 그 말이 조선말사전에 없어 이 다음 후대들한테 전해 지지 못할것 같아 은근히 서운해 했다.

통이 큰 인간들이 모인 통이 큰 전투장이였다.

그러나 좁스런 인간들도 더러 있어 누구를 걱정해 주는채 하며 자신들의 속마음을 터놓는 때도 없지 않았다.

《참모장동무, 차라는건 후방물자운반때문에 늘나가 있구 마대조차 성한게 한짝 없는데... 어찌자고 가만 있습니까?》

《요즘 지하수가 터져 구조물공사까지 벌리고 있는데 마대 같은거야 왜 어서 좀 보내달라구 제기하

지 못합니까?》

혜선은 그들과 주고 받는 말로 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날가 겁이라도 나는듯 마대목을 더 바싹 당겨 쥐고 달려며 대답했다.

《전 동무들이 오늘 아침에도 마대를 백번 넘어 키워 가지고 나왔다는걸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자요. 지금은 썩돌을 운반해 내자니 힘들지만 물을 댄 돌이 아니라 흙으로 하기로 했으니 한결 쉬울거예요. 정말이지 저도 지금 우에다 막 제기하고 싶은걸 겨우 참고 있답니다.》

사실이였다. 간밤에도 혜선이는 대장한테 운수기재가 없어 《만-하나》 지점 매몰공사를 돌이 아니라 흙으로 하기로 했다는걸 아는가 하는 소리가 허끝에까지 와닿는것을 아픔 참듯 꼭 참고서 그저 대장이나 어서 좀 보내주면 좋겠다는 제기만 하고 말았었다.

그런데 혜선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이튿날 점심때 대장이 자기차에 콩 한자루와 함께 마대 한통구리를 싣고 왔다.

운전수가 내려 놓는 마대통구리를 기쁜 얼굴로 바라보고 있던 혜선의 눈은 불시에 뒤집힐듯 커졌다.

깎고 또 키워 지기네들것보다 성하다고 볼수 없는 마대들이였기때문이었다.

대장은 루추해서 면구한듯 두손을 맞비볐다.

《콩은 비지를 해서 뒤끼 좀 먹여 보라구. 마대는 간밤 손질을 해보니 몇번은 더 쓸것 같구 해서 가져 왔소.》

혜선은 마음이 처절해 나가까지 하여 눈을 습벅이며 서 있었다.

대장은 어깨에 난 상처에 바를 좋은 약이 지휘부 군의소에 도착했노라는 소식을 전한 후 은근한 어조로 계속했다.

《대대장을 속히 보내달랬지. ... 음, 대대장말이요. 준섭동무가 어떻소?》

《준섭동무?》

혜선은 이 순간 참말로 대장이 말하는 준섭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리해하지 못했다.

《요즘 헌차수리에 여념 없는 동무 있지 않소.》

순간 혜선의 머리속으로는 자기의 자랑스럽지 못한 옛사랑이 비릿한 냄새처럼 떠올랐으며 자기를 끌리고 있는 대장에 대한 노여운 생각이 단 가마속의 기름처럼 끓어 올랐다.

그러나 혜선은 걱정을 애써 눌러 가며 대장이 어째서 때와 장소도 가림이 없이 이런 싱거운 룡담을 할가 하고 놀랍게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대장은 한사코 진지한 낮빛으로 어서 대답하란듯 눈 박아 바라보는것이여서 혜선은 그만

왈각 러져 오르는 설음을 참아 낼수가 없었다.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겁니까? 그 동무한테 어디 그런 자격이 있다구... 게다가 어쩌면 그렇게 시치미를 뚝 따구...그런 실없는 말씀을 하 시려면 오지 마십시오. 흑-》

《허, 난 준섭동무하구 그 정도일것까지는 모르구 ... 아, 운전수동무, 뭘 하고 있소?》

혜선이가 어떻게나 숨이 끓어 지게 설분하던지 대장은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그가 진짜 절명이라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삐 차에 올랐다.

혜선은 차안으로 사라지는 그를 향해 준섭동무를 대대장으로 보내려면 자기를 먼저 떼버리라고 웨칠가 하다가 뭔가 불쑥 목구멍을 가로 막는것이 있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대장은 지금껏 단 한마디의 룡담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서늘러운 리성의 바람을 몰아 오면서 활 열렸던 설음단지뚜껑도 다시 열린 닫아 주었기때문 이였다.

혜선은 자기가 좀 헤덤벙했다는 생각이 들어 대상을 다시 붙잡으려고 했으나 차는 이미 휘발유 탄 냄새를 들썩우며 거대한 포알같이 내딛고 있었다.

아, 대장동진 준섭동무 잘 모르길래 그랬을텐데. ...내 왜 옛 감정을 눌러 가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

지 못했담...

그리고 혜선은 속이 시원해 지도록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신의 립장을 명백히 했지만 도리어 자기는 그렇게 한것으로 하여 이제 준섭이를 직접 만날수밖에 없게 되었다는것을 크나큰 슬픔을 느껴 가며 생각했다.

그럴수밖에 그 일로 하여 준섭이가 이제 대대책임자가 되어 자기결으로 올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밀어 넣을수 없는 물속의 공처럼 명백한 현실로 불거져 올랐는데 어떻게 그냥 어제날의 인상만 가지고 대처해 나갈 작정을 할수 있단 말인가.

《만-하나》대대의 명예와 래일을 위해서도 준섭이를 직접 만나야 했으며 그가 여전히 치졸한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면 직방들이로 대대를 떠날것을 요구해야 했다. 그 다음 대장을 만나 《만-하나》대대를 어떤 높이에서 보살펴 줘야 할 의무가 그에게 걸머져 있는가를 눈물을 흘려 가며 말할것이였다.

혜선은 이 모든것이 자기의 예상대로 진행될것이 뻔한만큼 래일중으로 무조건 다 결속해 버리리라 굳게 결심했다.

(다음호에 계속)